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길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원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5월 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6 호

경천사지 10층석탑 복원 가능성 '의문'

"손대면 부서질듯 위험"

문화재연구소 "원형 복원 자신있다"

경복궁내에 있다가 훼손방지를 위해 해체된 경천사지 10층석탑(국보86호)의 복원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때 조성된 이 석탑은 재질이 대리석인데다 일본으로 약탈당했다가 반환되는 등 이전으로 인해 심하게 마멸되어 95년 5월 실내로 옮기기 위해 해체돼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에서 보존처리하고 있다.

경천사지 10층석탑에 대해 복원불가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해체시킬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해체해 다시 재건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문화재위원은 "석탑을 고정시키기 위해 심었던 시멘트 석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훼손이 있었다"며 "석굴암의 경우에서와 같이 무분별한 해체복원과 실내로의 이전은 경천사지 석탑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연구소 김동현소장은 "지난 94년 대리석 문화재 전문가 칼로제로 베란 카교수(이탈리아 로마대)에게 석탑의 실내이전이 좋겠다는 자문을 구했다"며 "각종 실험과 연구를 통한 해체수리에 만전을 기해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3면>

또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관장은 "경천사지 석탑을 새 국립중앙박물관 실내로 옮길 경우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인해 생길지 모를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천사지 석탑은 1959년 해체보수때 덧붙여진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공수지로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탑돌의 내부와 달리 외부는 불 보살 등의 조각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만일에 대비, 전면 조각에 대한 탁본이 시급하며, 해체에서 복원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상세한 보고서 작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기석 기자)



'꽃탑' 3일 개막된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장을 장식한 꽃탑. '꽃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18일까지 개최되는 꽃박람회 기간중 불교홍보관이 설치되고, 12일(오후3~6시)에는 불교전통의식 영산재가 장엄하게 펼쳐진다. 같은날 오전에는 관불식도 봉행된다. <고양=고영배 기자>

종정 사퇴철회 간청

혜암·월주·설정스님 등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원로의원스님들은 4월29일 통도사로 월하스님을 예방하고 종정사퇴의사 철회를 거듭 간청했다.

이에 월하스님은 "사퇴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개혁종단 출범당시의 인사들이 소정의 임무를 완수했으므로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해 종단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혜암 원로회의장과 월주 총무원장은 월하스님에게 "모든 종도들이 종정사퇴를 원치 않고 있으며 계속 종정으로 모시고 종무를 수행하셨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사퇴의사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조계종 월주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있는 태국 붓다담마센터 남전수행단.

옥수수 1380톤 북에 직접전달

조계종, 자비탁발 2억원으로 구입

북한동포돕기 위한 옥수수 1천3백80톤이 북한에 직접 전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4월30일 중국 단동역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옥수수 1천3백80톤을 23량의 화차에 나누어 선적, 신의주까지 운송했다. 이와 관련 능관스님(사회부장)은 "이날 전달된 옥수수는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의 탁발을 통해 모금된 성금 2억원으로 구입한 것이다"며 "앞으로 방생대법회 성금과 봉축행사 기간동안 모금된 성금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옥수수 1천3백80톤은 북한주민 10만여명이 한달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다.

태국스님 사찰 순례등 두타행

남전수행단 19명 방한

태국 붓다담마센터(주지 아잔 차요) 남전수행단 19명이 4월30일 내한, 21일까지 삼보사찰을 중심으로 탁발, 오후불식, 노숙 등 두타행을 실시한다.

붓다담마센터 수행단은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예방, 조계사 참배를 시작으로 경주 불국사, 합천 해인사, 승주 송광사 등 10여 사찰에서 탁발과 노숙, 오후불식 등의 행각을 하며 남전불교의 두타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14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송광사를 방문,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참여하고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대만과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분원을 갖고 있는 붓다담마센터는 남전불교의 계율과 극기, 절제, 기율적 승단생활을 체험하는 수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행단은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만에서는 팔리어불과 계율을 배웠으며 4월 15일부터 29일까지는 태국에서 비구계를 수지하는등 9년동안 두타행을 계속해오고 있다.

봉축공동기원문 요청

조불련, 종단협에

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30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이 부처님오신날 기원문 공동발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3월 28일 미주평불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기원문 초안을 종단협에 전달했다.

이와관련 종단협은 "현재 조불련이 보낸 '공동기원문'을 토대로 양측간의 의견을 종합, 통일된 공동기원문 작성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귀뿌리서 배운 생명관

3월 중순쯤 도반들과 함께 전라도에 있는 절에 갔다가 절 입구에서 팔고 있는 당귀 두 다발을 사왔다.

겨울을 막 지낸 당귀는 새 움을 손바디 하나쯤 파우고 있었지만 그 움은 말려 나오는 과정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여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그러져 있었다.

집에 온 나는 당귀를 손질해 채반에 널고 그중 세뿌리를 물이 담긴 유리병에 담아서 베란다에 놓아 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이게 웬일인가. 유리병에 담아 놓았던 당귀는 짓이겨진 움을 밀쳐내고 파릇파릇한 속잎을 새롭게 파우고 있지 않은가.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남 지 심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란 잎은 어린 시절 마당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당귀잎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한달 반쯤 지난 지금은 송글송글한 꽃망울이 맺힌 꽃대가 세 개나 올라오고 있다.

나는 요즈음 베란다에 놓여있는 당귀를 보면서 생명에 대한 감동으로 전율하고 있다.

진흙투성이의 당귀뿌리를 손질할 때만 해도 나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였고 그속엔 자신을 존재시키고자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당귀를 보면서 우주가 싸안고 있는 생명력을, 개체속에 내재해 있는 생명력을 가슴깊이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바로 스스로를 존재시키고 아름답게 꽃피우고자 하는 열망임을 알고 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모든 사람, 사람뿐 아니라 갖가지의 동물이나 식물, 산이나 내, 무생물이라고 믿고 있는 돌이나 광석까지도 그 속에 이러한 열망이 내재해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열망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꽃피어나도록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 속의 불성(佛性)도 드러날 것이다.

불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무지, 내가 정말 참회하고 싶은 것은 아만과 편견으로 뒤엉킨 나의 무지다.

〈소설가 ·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꺼지지 않는 燈' 밝힙시다

2541개 법보시 燈 공양…1구좌 1천원

부처님은 왜 이땅에 오셨을까요. 예토를 정토로 만들기 위해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의 전생 500대원(願)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특집을 통해 '500대원'의 뜻을 되새기며 군부대 교도소 등에 법공양하는 '작은 등 밝히기'를 전개합니다. 1구좌당 1천원으로 올해 불기년도에 맞춰 2541명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심을 봉축하면서 인도의 가난한 여인처럼 꺼지지 않는 등공양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참방법
▲1구좌 1천원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하셔도 됩니다)
▲마감 : 1997년 5월 8일
▲접수 : 현대불교신문 (02)722-4162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
※ 송금하신후 반드시 전화연락 주십시오.
※ 동참자 명단은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문(127호)에 게재됩니다.

일지무독 타블로이드 신문 발행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apia.com

108배로 EQ교육 19면
고려불화 133점 한눈에 9면
의상 '일승발원문' 全文발견 15면
불교문화 테마여행 5월 - 대흥사 · 일지암 사고 3면

봉
캔속에 든 천연조개 속에서 직접 진주를 채취해야만 목걸이가 완성됩니다
축
다가오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오신날 불자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같이 오색 찬란한 빛깔을 지니고 사리와 같은 능력을 지닌것은 오직 희망진주 뿐입니다.
'96 미국 히트상품
시중에 나와 있는 진주는 1차 가공을 한 해수(바다)진주이나 희망진주는 전혀 가공을 하지 않은 담수(민물)진주입니다.
희망진주(사리)를 몸에 지니면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직접 조개를 열어 진주를 꺼내 목걸이에 끼워주세요
WISH PEARL
• 캔속에 들었는 4년된 진주조개에서 직접 진주를 채취해서 목걸이에 끼워 선물하는 진주조개목걸이라면 받는 사람도 깜짝 놀라겠지요.
• 진주는 건강, 장수, 부귀, 순수의 상징임
희망진주 목걸이, 이렇게 완성하십시오.
① 먼저 캔을 여세요 ②③ 진주조개를 열고 조개살 속에서 진주를 채취하세요
④ 준비된 목걸이에 진주를 끼울수 있도록 열림장치가 있습니다. 채취한 진주를 목걸이에 끼우시고 착용하세요
(완성)
품 명 | 95% 순은+18K 금도금 | 95% 순은+백금도금 | 14K GOLD
하 트 | 39,000 | 39,000 | 88,000
연 꽃 | 39,000 | 39,000 | 79,000
동고래 | 36,000 | 36,000 | 69,000
• 구성 : 희망진주 1캔+메달+체인+소책자(희망진주이야기)
大福通商株式會社 ☎서울631-0411(代) 부산(051)558-3355

사 설

범종단 연등축제로

불교계와 불자들의 최대의 축제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수없이 많은 여래가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올 것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행진에 점을 찍어 우리 중생들은 색신(色身)으로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일(誕日)을 기린다. 그날을 맞아 그분이 세우신 커다란 비원(悲願)을 상기하고 이땅에서의 우리 삶의 실상을 되돌아보는 전기로 삼는다. 수많은 법회가 열리고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봉축의 정점은 역시 연등행사이다. 법의 등불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려오신 그분처럼, 우리 또한 그 불을 하나씩 켜고 삼세(三世)의 무명(無明)을 밝히고 죄업을 물리치는 기원을 올린다. 그 행사가 지난해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그동안 문호가 다르고 교리에 이견이 있더라도 전 종단은 원음(圓音)의 큰 뜻에 비추어 이날 한 마음이 되어 부처님오신날을 기려왔다. 그런데 빈자(貧者)의 일등(一燈)을 환희심의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불자들에게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조계종을 제외한 여러 종단들이 불참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행사를 누가 주최하느냐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그동안은 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이 주관했는데, 이번에는 조계종이 주최를 맡게 되면서 여러 종단이 소외되었고 이에 대한 불만이 행사불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각 종단들은 독자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각 지역의 사암연합회를 통해 행사를 갖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찍이 봉축연등행사가 이원화되었던 적이 없지는 않다. 60년대초 불교정화때 조계종과 태고종이 각각 선학원과 조계사에서 연등행사를 가졌던 적이 있다. 그러나 72년 태고종이 정식 종단등록을 하고,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불교계는 연등 봉축행사를 범종단차원에서 여법(如法)한 국민적 축제로 정착시켰다.

이제 그 전통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빌미는 아무래도 조계종이 준 듯하다. 그동안은 여러 종단이 함께 비용을 염출하고 울력을 보태며, 행사계획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올해는 조계종이 비용도 전액 부담하고, 계획도 독자적으로 구상하는 등 행사추진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틀은 조계종이 짜고 행사도 조계종이 벌일테니 그저 자리를 빛내고 들러리만서는 행사에는 참여치 않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번의 결정에는 그동안 조계종의 독주에 대한 누적된 불만도 작용했다. 마음을 다치면 방법이 없다. 조계종은 불교계의 중심답게 다른 종파에 대해 배려의 도량을 보였어야 한다. 상(相)이 없는 법(法)에 주인이 어디 있으며, 아(我)가 없는 마당에 주최는 또 무슨 말이냐. 불교는 조계종단만의 일이 아니라 중생 모두의 일임을 알고 대승적 포용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여러 종단도 소아(小我)에 연연하지 말고 뜻깊은 대사에 수희동참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부처님은 가섭에게 연꽃을 들어 위대한 소식을 전했다. 진흙 속에 살되 뻘에 매몰되지 않는 연꽃은 세속사의 시비득실(是非得失)이 허망한 것임을, 그 너머에 훼예(毁譽)와 고락(苦樂)의 팔풍(八風)이 틈입(闖入)할 수 없는 절대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소식을 법으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뜻을 한 순간이나마 저버려서는 안될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오신날이야….

불자들이 범종단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연등축제를 어찌 시민축제 또는 국민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열린마당

연등공양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은 불법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려는 연등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연등공양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공덕을 쌓으려는 '빈자의 일등'의 보시정신 실천이다. 그러나 연등공양비에 대해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 사찰 연등공양비의 실상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불심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등은 자기를 밝히고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혀준다. 〈사진=고영배 기자〉

'無등값' 실시 燈 수량 늘고 신도 호평

종연 〈관악산 성주암 주지〉

원래 등값은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평등의 가르침을 펴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차별이 없다.

그러나 신도들이 쌀과같은 공양물이 사회가 복잡하고 제도화되면서 편리에 의해서 사찰에서도 등값이 생기게 된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 사찰은 1년 총예산의 4분의 1이 초파일 등값으로 충당돼 왔다. 그러다 작년 일부 관악산 등산객들이 절에 들려 연등을 달면서 "사찰이 마치 연등판매하는 인상이다"는 의견을 들은 종무원들이 '無등값'을 건의해와 연등값을 없애게 됐다.

연등은 신도들의 접수순서대로 위치관계없이 차례로 달기때문에 일이 편하고 신도들도 좋아한다. 그런만큼 등값 용도의 사찰 보시수익금은 약간 줄고 연등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초파일행사 등공양 보시금이 사찰운영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현실이다. 작은 사찰의 경우는 더욱 비중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사찰이나 스님들이 연등에 의존해 사는 것은 아닌만큼 이에대한 강조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연등공양비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같다고 본다. 다만 우리사찰은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약간의 부족했던 재정도 정기법회에서 인등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사찰의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차등제 운영 '타당'…등값 조정에 신중

화암 〈봉선사 총무국장〉

등공양은 신심의 표현이다. 따라서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 등을 구입, 불을 밝히며 환희심으로 부처님 오심을 기린다. 이처럼 등을 사고 불을 밝히는 것은 불자들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등을 구입하는 불자들을 위해 사찰은 등값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빈부의 격차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등을 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나친 고가의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점을 그러할 때 등값은 현행처럼 가격을 정해야 하며 불자들은 생활형편이나 역량에 맞게 등을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등값에 대한 이같은 기준이 없이 자유화된다면 등문화가 퇴색돼 등공양의 본래 의미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값을 정해야 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사찰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 불교계의 현실은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비로 한해 절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사찰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불사들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값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로인해 사찰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나 포교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교가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찰도 경제적 흐름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해 등값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등공양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는 가운데 본래의 뜻을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격 균일·수익금 사회회향 '바람직'

구윤회 〈성보사포교원 원장〉

개인적으로 절에 가보니 빈부차이가 심하다는 생각을 갖게됐다. 그래서 포교당을 운영하게되면서 등값을 없애게 됐다. 우리절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은 그만큼 정성이 있으니 먼저 켤 수가 있다.

이런 차등없는 등보시공양은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포교당을 개원하기전 절에 다니면서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연등공양비로 인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과 부처님이 이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서 설법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헐벗고 굶주린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서 성보사포교원은 10년전부터 일률적으로 똑같이 접수 순서대로 1천여등을 켰다. 보시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등크기 색깔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다. 그러다보니 불자들이 연등 갯수에 부담감도 안느끼고 마음껏 켤 수 있다며 좋아한다.

사찰에서는 연등이 많이 걸려 부처님오신날을 기쁘게 장식할 수 있으니 좋고 신도들도 걸립이 없으니 행복해 한다. 또 널리 알려지다보니 찾는 사람도 늘고 신도들의 자부심도 대단한 편이다. 연등공양비가 사찰 재정확보로 인식되고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회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등공양 의미와 현황

부처님예경 '빈자일등' 정신 표현
연등 공양비 사찰 경제에 기여

등(燈)은 어둠을 밝히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상징한다. 즉 법등은 중생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어둠을 밝혀준다는 뜻이다.

연등은 원래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는 부처님 열반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르침은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경전에 보면 '가난한 여인의 꺼지지 않는 등불' 등 등명의 공덕이 나타나 있다. 그런만큼 연등공양은 빼놓을 수 없는 불자의 의무이다.

이처럼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는 것은 번뇌와 무명에 휩싸여 있는 세계를 밝혀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예경하고 그 가르침을 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자하는 원을 세우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보면 등공양의 공덕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수승한 표현이란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등은 원래 북쪽지방과 남쪽지방 사찰에서 많이 걸었으며 중부지방은 초파일에도 기념으로 일부 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6·25를 전후한 50년대는 연등을 켜지않는 공백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60년대부터 등켜는 문화가 성행하게 된 사찰에서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등공양이 화폐로 쓰이면서 연등비도 한 등에 최고 상한가가 없을 정도가 됐다. 따라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등켜기를 부담스러워하는등 연등에 담긴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등올리는 큰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등공양비의 경우 차등제를 채택하는 사찰이 대부분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곳과 등값을 정하지 않는 곳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차등제의 경우 사찰경제 안정과 개인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無등값과 일률 적용 사찰의 경우는 신도들의 위화감을 해소해 주는 장점이 있다.

부산불교전시관 조재원사장은 "현재 초파일이면 전국적으로 사찰에 1천만개 이상의 등이 내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법현스님(전 태고종 총무부장)은 "타종교와 달리 유독 보시금이 초파일 등비로 집중되다보니 사찰경제에서 큰 몫으로 인식돼 등켜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계에서는 연등공양의 새로운 의미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즉 연등공양의 의미를 살려 공양비를 자유로운 보시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불자들이 사찰에서 자유로이 연등을 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정정도의 연등공양비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사찰의 경우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찰에서 초파일에 비중을 두다보니 연등공양비가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주간법회비 월회비 등의 제도도입이 요구된다. 또 불자들도 초파일만 연등켜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조계종 사회국장 일화스님은 "사바세계의 무명을 밝히는 연등은 보기만 하여도 잠자던 보리심이 서서히 깨어나는 인연이 된다"며 "소외된 이웃과 자비정신이 실천되는 연등불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제대로 복원될까

법륜사 양로원 안내문

노후를 부처님과 함께 …

삼보귀의 하옵고.

급변하는 사회적인 변화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만연과 물질이 좌우하는 배금사상의 톱니바퀴속에서 우리의 자랑인 효(孝)의 근본(根本)이 흔들리는 현실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부모와 자손 형제등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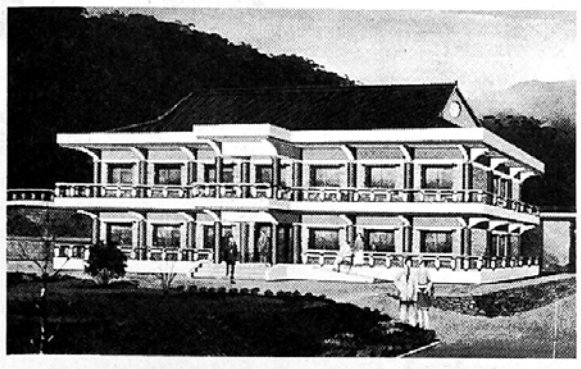
이러한 불안요소가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노인분께서는 한을 갖게됨에 따라 가족간에 갈등이 심화되니 누구에게 책임있단 말인가?

하루가 일년같이 빠른시대에 살고 있는 연법(緣法)인 것을 세상을 떠났다해도 연법은 계속 유지되는 것!

우리 불자님께서는 인연법을 중요시 하므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행을 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 드리는 것이 유일한 효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승이 평소에 보고 들은바 원력에 힘입어 금번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만대산에 산수 수려하고 운치 좋은자리에 법륜사 대웅전 및 양로원을 창건함에 따라 낙성식前에 불성 깊은 불자님과 인연되어 남녀노인을 자비심 도량에 모시기를 부처님前에 예를 올립니다!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고의 설계 및 시설

또한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면 가족분이 오셔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특히 주말 농장을 입주하신 노인분들의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욕탕 및 독서실, 오락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또한 얼키고 설킨 삶의 지치고 허한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기도와 좌선 예불 등을 통해서 노인의 자성이 밝아 성불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 가족분들께서도 그 공덕이 세세 손손까지 부처님의 복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서 비구니 스님께서 불보살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모시게 되오니 많은 인연을 지면을 통해 남·녀 노인분을 한정된 인원까지 모시겠습니다.



구분별 양로 내용 및 금액			
1	구 분	유료양로원	기 타
2	남·녀총인원	65명 남녀	간염, 폐, 악성피부, 전염성제외
3	방 1 실 인 원	1 실 1 명	서로의 성격을 보고 사주상의 합인을 선정
4	평생양로부담금	1 명 해 당	4천만원 단 사망시 공제됨
5	부부양로부담금	2 명 해 당	1인 삼천오백만원 합7천만원 공제됨
6	평생환불부담금	1 명 해 당	삼천만원에 월30만 사망시 보증금 환불
7	고 시 준 비 생	1 실 1 명	식대, 편의시설 제공 월30만원
8	편 의 시 설	각 방 마 다	벽장농과 거울부착 텔레비젼 전화기등설치
9	접 수 년 월 일	1997년4월1일부터 1997년 5월30일까지	
10	입 주 년 월 일	1997년 5월1일부터 입주까지	

※ 뜻과 불심의 행을 신천하는 가정에 삼보의 자비가 충만하소서!

※ 빠른 시일안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미리 접수바랍니다.

문의안내 : 합천법륜사 (0543)955-1379
마산법륜사포교당 (0551)21-8775

※ 계좌번호 : 우체국 610097-0119059(김상봉)

※ 대구은행계좌 : 208-08-024746(손동분)

법 륜 사 주지 김운봉 총무스님 손자혜 총무 정병진 합장

"야외방치 역사에 큰 죄"

수요 인터뷰

경천사지 10층석탑 보존책임
국립 문화재연구소 **김 동 현** 소장



윤기석 기자

- 경천사지 10층석탑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959년 아르바이트로 고건축전문가 임천선생(작고) 밑에서 경천사지 10층석탑의 복원작업에 참여한 것이 문화재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경복궁 회랑에는 수백편으로 조각난 경천사지 석탑이 널려 있었는데, 제 손으로 탑부재를 일일이 실측하고 도면을 그려내다 보니 자연스레 고건축에 관심이 간 것입니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박물관, 문화재관리국을 거쳐 이곳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들어왔죠. 문화재와 함께 삶을 산 지도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 가는군요.

-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제대로 복원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 손으로 직접 다시 세운 탑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원작업에 대한 관심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철저한 보존처리를 통해 가능한한 원형 그대로 복원할 생각입니다. 실내로 이전되는 것이 다행입니다. 정년퇴임 하더라도 새 국립중앙박물관(2003년 완공예정)에 탑이 안전하게 안치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실내이전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금이 가고 녹아내리는 경천사지 10층석탑을 야외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실내이전에 따른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존과학실은 갖가지 실험과 보존처리를 통해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 박물관 설계에도 탑을 안치할 공간을 따로 마련,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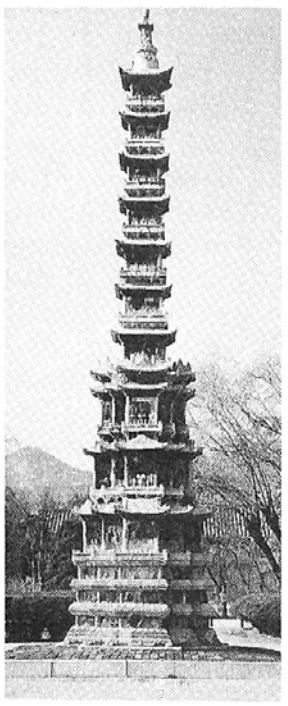
온습도 변화대비·설계공모등 '만전'

- 경천사지 석탑과 재질이나 형태면에서 유사한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원형 그대로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 문화재 보존철학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원각사지 석탑처럼 수명을 다했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죠. 원각사탑은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대리석으로 조성돼 산성비에 쉽게 피해를 받습니다. 이럴 때 보호각이 필요한 겁니다. 보호각 설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각 의견을 수렴, 설계 공모 심의를 거쳐 국민들의 전체의사를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간 우리의 문화재정책은 사전예방보다 일이 터지고 나서 땜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상들의 대담성과 꼼꼼함을 망각한 채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 어느 민족이 고유의 훌륭한 문화를 간직하고 재창조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과거 조상들의 솜씨와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올바른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힘써야 겠습니다.



◇국보 86호 경천사지 10층석탑.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특이하고 세련된 기교를 보이고 있는 경천사지 10층석탑은 원래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부소산 경천사에 있었다.

1909년 당시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1918년 반환되어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방치됐던 것을 1960년 보수복원을 거쳐 경복궁 뜰에 안치했다. 이런 수난속에서 각 부재는 파괴되고 조각은 마멸되었으며, 사리장엄구의 내용과 장치법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인한 훼손이 심각해 1995년부터 해체복원되는 비운을 맛보게 된 것이다.

석탑 전면에는 영산회, 삼세불회 등 십이회상

경천사지 10층석탑 수난사

1909년 日 불법 반출
1918년 반환 경복궁 방치
'60년 보수복원 … '95년 해체

(十二會相)을 빈틈없이 새겨 놓았다. 각층의 옥개석에는 지붕모양과 기와골, 공포 등이 표현돼 마치 화려한 전각(殿閣)을 연상케 한다.

밀교의 만다라적 표현이 강한 이 석탑의 건립연대와 조성배경은 초층탑신에 새겨진 조탑명(造塔銘:탑을 세우게 된 경위를 적어놓은 글)에 의해 지정(至正)8년 즉 고려 충목왕4년(1349)에 원황실과 고려왕실의 복수(福壽)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염원하며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석〉

"종단별 초파일 행사 국민축제 이끌수 있나"

조계종 연등축제 단독진행
종단진흥회 1일 봉축대법회 개최
북동포돕기 성금모금도 각자 추진

불교계 종단들의 분열상이 심상치 않다. 올 봉축행사가 거의 조계종만의 집안행사로 굳어지고 있는가 하면, 북한주민돕기 성금모금도 2일 현재까지 개별 종단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등 각 종단들간의 동상이몽이 표면화되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을 제외한 천태종 등 20여 종단이 소속된 종단진흥회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대법회를 개최했다.

예년과 달리 올 봉축행사는 조계종이 주최를 맡게 되면서 조계종을 제외한 종단 대부분이 불참을 선언, 반쪽행사로의 전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물론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이 법요식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제등행렬에는 참여하지 않고, 총지종 보문종 서울 경기지역 사찰이 참여한다고는 하나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1인 종단진흥회가 개최한 봉축 대법회는 명분은 국태민안 및 세계평화 기원이나, 자신들이 표명했던 '조계종 주최 봉축행사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데서 우려했던 종단협 불협화음과 무관치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올 봉축연등 축제는 '반쪽행사'가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올 봉축행사가 반쪽행사로 전락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그간 종단협 주최의 관례를 깨고 조계종이 주최를 맡게 되면서부터다. 그러나 그 내면적 이유를 들춰보면 반쪽 봉축행사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종단협의회가 그동안 조계종 위주로 운영돼 온데 대해 불만이 쌓여 있던 타종단이 '조계종 주최 봉축행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해서 봉축행사가 '반쪽'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조계종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시각 또한 만만찮다.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간 데 대한 여타종단들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조계종과 다른 종단들의 불협화음이 이에 그치지 않고 종단마다 독자적 활동을 촉발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접은 대접대로 못받고 그렇다고 종단의 위상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화합을 부르짖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모 종단 한 관계자의 말은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합'이 우선이라는데 이의는 다는 종단은 없다. 그러나 각 종단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 최대의 명절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피크인 연등축제가 국민적 축제로 확산되기는 커녕 불자들 조차 각각 행사로 치른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여론이다.

한명우 기자

목어 동국의 소리·우리의 소리

불자들은 발원했다.

총립 동국대학교에 불교음악과가 개설돼 불교음악이 발전할 수 있기를.

4월 29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이 개원 3년만에 마련한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는 그러한 願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앰버서더 호텔 대연회장에서 문화예술대학원 식구들이 열연한 음악회는 동국의 소리이자 우리의 소리' 무대였다.

명창 안숙선의 판소리 심청가중에서 심봉사 눈뜨는 대목은 그대로 법문였다. 심봉사 눈뜸은 곧 무명중생이 밝은 세계를 보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심봉사 덕분에 여기저기서 '개평'으로 눈뜬 소경들. 송석구총장은 그들을 부처님 덕분에 복덕누리는 오늘의 우리에 비유했다.

관현악과 어울린 김영임의 '탑돌이'와 김태곤의 '나무석가모니불'은 청중을 한목소리로 화합시켰다.

박범훈교수의 지휘봉은 때로 숨죽여 선정에 드는가 하면 춤을 추며 선율을 이끌었다.

김덕수패의 사물놀이는 안이비설신의 6근 즉 온몸으로 연주하고 온몸으로 듣게했다. 사물의 어울림은 한 소리가 돼 소리있으면서 소리없는 세계로 이어졌다. 그것은 몰아의 경지였다. 우리의 소리를 사랑하는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이 객석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문화예술대학원장 홍윤식교수는 춤을 추었다.

김성녀씨가 새로 취입한 '미륵님 오시네' '부처님 오신날' 등을 부르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송석구 총장과 새찬불가 가사를 쓴 목정배 교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이 거룩한 법석을 증명했다. 불심돈독한 김흥국씨의 사회도 일품이었다.

"내년부터는 열린음악회처럼 개최합시다." 객석은 이구동성이었다.

그럴려면 불교계가 합심해야한다. 불자기업들은 문화예술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야하고, 불교TV·방송도 함께 진행하고 사찰·사부대중도 동참해야 한다.

익은소리·심연의소리로 부처님오신뜻을 봉축하는 '동국의 소리'는 곧 '우리의 소리'로서 전국에 내걸린 연등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5월 초의스님의 달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5월 테마여행 - 대흥사 · 일지암

禪 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신록의 계절 5월의 문화인물은 한국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스님입니다. 초의스님은 연담스님의 선지(禪旨)를 이은 대선사일뿐 아니라 조선후기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표적 문인입니다. 초의스님은 대흥사 일지암에서 40여년간 머물며 '선다일미(禪茶一味)'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스님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당대 석학들과 긴밀하게 교류했고 따라서 일지암은 불교와 유학이 자연스럽게 사상·문화적으로 접목 발흥된 산실로 유명합니다. 대흥사는 서산 사명 처영 스님 등 고승 대덕들의 부도와 비가 무려 60기나 되고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 배출해 조선후기 불교의 중흥을 이룬 대가람입니다. 25일은 제17회 '차(茶)의 날'입니다. 차의 날에 서산·사명대사와 초의선사를 추모하며 차향 가득한 해남으로 떠나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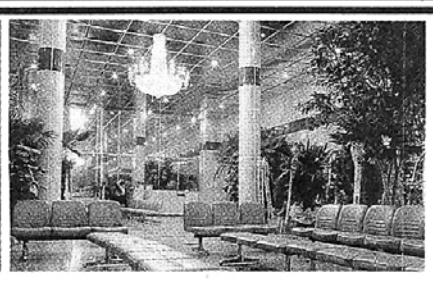
■ 참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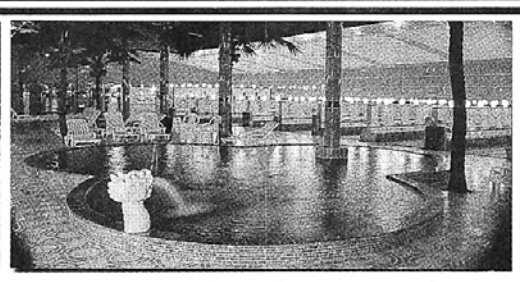
◇일 정: 5월 24일(토)~25일(일) 〈무박 2일〉
◇출 발: 5월 24일(토) 저녁10시 · 조계사 앞
◇안 내: 여연스님(일지암 주지)
◇회 비: 4만원(사찰에서 아침·점심 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6월 29일 부석사 -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7월 27일 해인사 - 나무결에 새긴 한국인의 마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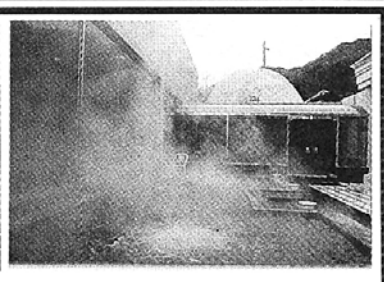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국내최초 실내 썬텐


아늑한 휴식공간


초대형 욕장


충분한 주차공간


노천탕



♨ 국내 최고의 유황천
♨ 국내 최대의 대형목욕장
♨ 불 한증막 ♨ 실내 썬텐 시설
♨ 황토, 고온, 한약사우나
♨ 신선하고 격조 높은 노천탕
♨ 수중 안마탕
♨ 초대형 냉탕 및 주차시설 완비



불 한증막 고온 사우나
황토 사우나 한방 사우나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세속의 번뇌와 무명을 씻어내고 부처님을 만납시다 !!

포천 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일동사이판』은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사우나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자연의 도량속에 위치한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 사우나 일동 사이판

유 황 천

국내최고의 유황천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잇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광과 휴양 레져를 겸해 온가족이 함께
유황천의 신비를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사찰 및 포천군 관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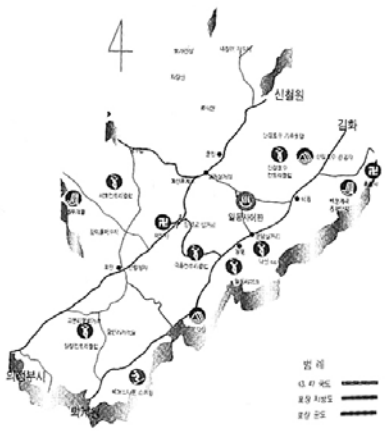
卍 심 원 사 : 지장보살도량(동송읍)
卍 도피안사 : 비로자나불(철불)
부처님이 계신곳
卍 원 아 사 : 청정기도도량
0353)58-8995(상해계곡)
※ 철새도래지

■ 포천군 관광 안내
산정호수, 백운계곡, 운악산, 청계산, 관음산, 명성산, 왕방산, 국망봉, 금주산, 고석정, 재인폭포, 안보 관광지(땅굴)

신 토 불 이

강원 철원지방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봄채소, 싱싱한 과일등
향토장도 마련되었습니다.

■ 교 통 편
• 시외버스 : 상봉터미널,수유리시외버스터미널
일동직행버스 일동하차
• 자가운전 :43번국도(포천-3.8교-성동삼거리 우회전4Km)
47번국도(퇴계원-광릉입구-내리-일동-산정호수방면4Km)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수입리 705번지
☎(0357)536-2000, 2035



열쇠부대 점등식서 법문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은 4월 28일 육군 5사단 열쇠부대(사단장 이장흡 소장)가 봉행한 남북통일기원 점등대법회에서 법문했다.

혜암·벽초스님 다례법회



법장 수덕사주지는 4일 대웅전에서 혜암·벽초스님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정토 어떻게 …' 발표

법타 은해사 주지는 12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5차 하나로포럼에 참석, '불국정토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불교방송 연등 점등식

현각 동국대 선학과 교수스님은 14일 오후6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연등법회를 갖고 연등 점등식을 거행한다.

광명의원 2돌 효도잔치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 스님은 4월 29일 안양결혼회관에서 지역노인 1천여명을 초청하여 안양광명의원 2주년 기념식 및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일산 보현정사 개원



진관 진관사 주지는 경기도 일산에 진관사 부설 보현정사(원장 각성스님)와 코끼리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4월 29일 낙성 및 개원법회를 가졌다. 보현정사는 연건평 4백14평, 5층규모.

불교TV 승만경 강의

철우 파계사 영산율원장은 5일부터 불교TV '재미있는 경전공부'(PD 양흥식)에서 〈승만경〉강의를 시작, 3개월간 진행한다.

군민화합 기원 대법회

정암 기장군사암연합회장스님은 7일 기장중학교 대강당에서 '부산발전과 군민화합기원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초의선사 생애' 발표회

금강 해남 미황사 스님은 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초의선사기념 차 학술 발표회에서 '초의선사의 생애와 불교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대부도 둥지어린이집 위문



법경 능인정사 주지는 1일 신도 10여명과 함께 대부도 둥지어린이집을 방문, 의류 1백벌과 금일봉을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21세기 한중관계' 강연



서석재 국회정각회장(21세기 시민연합 이사장)은 4월 29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장정연 주한중국대사를 초청, '21세기 한중관계'를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부산 불교신도회 정기총회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은 4월 28일 코모도호텔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96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가졌다. 97년 사업계획으로 사단법인화 추진, 불교여행사 설립, 장의사업 등을 확정했다.

경찰병원불교신도회 회장



차두갑 국립경찰병원 불교신도회 회장(마취과 과장)은 9일 오후6시 경찰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봉축기념법회에서 제2대 회장에 취임한다.

중고생에 선재 장학금 전달

최명자 선재장학회 회장은 4월 26일 금정불교대학에서 부산공고 이지용, 금사여중 이은영 등 7명의 중고등학생에게 3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북한동포위해 써달라" 진관스님 영치금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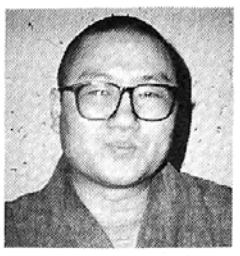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진관스님〈사진〉이 북한동포돕기에 정성을 보탰다.

진관스님은 4월30일 불교인권위원회 조혜은 간사를 통해 영치금 1백만원을 북녘동포돕기 성금으로 써달라며 한겨레신문에 보냈다. 구속 이후 스님, 신부, 목사 등 지인들이 넣어준 영치금을 모아 두었던 스님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려 죽어간다는 보도를 접하고 선뜻 내놓았다고.

"간단사와 교류…한국불교 전할터"

몽골선수단과 결연 통도사 부산포교원 심 산 스님



"지난해부터 몽골불교를 후원해 오던 인연으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와 몽골불교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5월 10일 개막을 앞둔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몽골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통도사부산포교원 원장 심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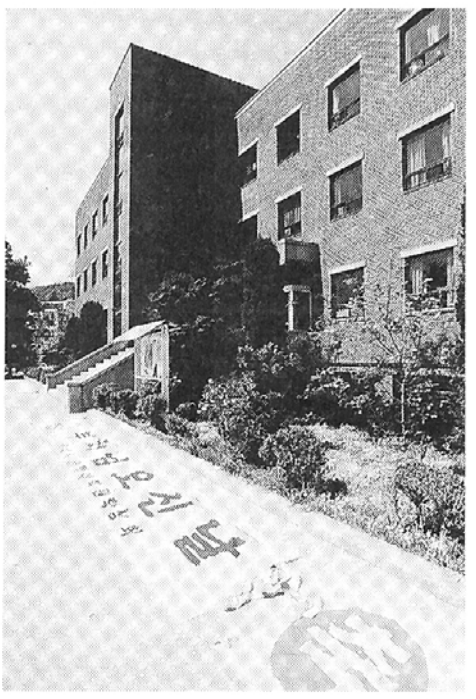
스님은 5월 9일 선수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경기를 응원하고 경주일원과 통도사관광 등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몽골선수단(선수 98명, 임원 59명)의 유니폼 제공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스님은 4월 28일 포교원 법당에서 하루찻집과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으로 선수단들이 조직위원회에 내야하는 관광기금과 응원경기시 입장료 등 일부 경비를 후원했다.

스님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내년 6월경 몽골을 방문, 몽골간단사와 결연을 맺고 몽골불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기독교 대학 봉축 현수막



Focus

대표적인 기독교대학 한신대 교문앞에 '경축 부처님 오신날'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이 봉축 현수막은 4월 24일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회(회장 임희영·신학과 4학기)가 내건 것.

임회장은 "사실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라는 문구를 넣고 싶었는데 보수적인 신자들을 고려해 문구를 바꿨다"고 털어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대로 현수막을 치우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급기야 1일 새벽 현수막이 찢기운채 뜯어지는 일이 발생〈사진〉했다. 그러나 학생회는 2일 다시 제작해 교문에 걸어놓았다. 한신대 봉축 현수막은 종교간 화합의 상징물처럼 보인다.

고영배 기자

목사도 봉축메시지



◇김경재 목사

한신대 교수 김경재목사는 월간〈기독교 사상〉5월호에 쓴 '법정스님에게 쓰는 편지'라는 기고문을 통해 "불교가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이뤄지기 1천5백년전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일으킨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화계사 불자들이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어 준 것에 대한 답례로써 축하메세지를 쓰게됐다고 밝힌 김목사는 "고난의 땅 한반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굶주리는 북녘동포들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서로 신뢰하고 연대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불교관련 입법활동에 관심"

국회보좌진 법우회 정 병 국 초대회장



"정각회가 어른(국회의원)들의 모임이라 보좌진들이 신행을 닦고 불법을 받들어 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축이되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5월 1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 국회보좌진(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불자모임 '법우회'의 초대회장을 맡게된 정병국씨(권익현의원 보좌관·48). 그는 "가능한 정치성을 배제하면서 순수하게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좌진들의 불교이해가 깊어지면 자연히 불교관련 입법활동 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를 외호(外護)하는 일에도 무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75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한 정회장은 매주 정각선원에서 참선수행을 실시하고, 매월 등산을 겸한 순례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질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자비의집 5백만원 후원 김 정 림 할머니



"늙고 병든 사람 심정은 겪어 본 사람이 알지요.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자비의집(회장 동광스님)이 마련한 '어버이날 노인잔치'에 몇 년간 모은 용돈 5백만원을 후원한 김정림 할머니(70).

지난 겨울 허리를 다쳐 노고(老苦)와 병고(病苦)를 함께 겪었던 김할머니는 칠순 잔치 대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몸이 불편한 노인 3백여명에게 점심공양으로 회향했다.

상계동 황룡사에 20여년간 다니고 있는 김할머니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의지하는 것이 내가 아는 불교의 전부지만 부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셨다"며 활짝 웃는다.

김정은 기자

용돈모아 무의탁노인 점심공양

게시판

♣ 봉축행사

불공=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9일 오후6시 통도사부산포교원내 화엄회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공을 갖는다. (051)818-8659

연꽃대축제=삼성동 봉은사(주지 무상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펼치는 '연꽃대축제'(4일~14일)의 일환으로 봉은사 진여문입구에서 생명방생을 위한 헌혈(7일)과 봉은사앞 도로에서 교통안전 호신염주 달아주기(8일~10일) 행사를 벌인다. (02)511-6070

♣ 알림

장학금전달식=새절 봉원사 원각회(지도법사 마일운스님·회장 노대행심)는 11일 오전11시 봉원사 대웅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김홍철(중앙대 부속고 1년)학생 등 5명이 장학금을 받는다. (02)392-5808

다보법회=정병조교수 초청 5월 다보법회가 7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재최된다. (02)703-0108

노인 후원 물품접수=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5월말 실시예정인 무의탁 및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의 봄나들이 후원물품을 보시받는다. 보시물품은 간식류(음료수·빵)이다. (02)203-3677

경로잔치=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진홍)은 18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내서중학교에서 65세이상 지역노인 1천5백여명을 초청, 제2회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사물놀이공연, 각설이타령, 특공무술시범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 영정사진촬영=부산운전불자회(회장 백봉도)는 4일, 11일, 18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부산역광장에서 노인 1천5백명을 대상으로 무료영정사진촬영 및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051)464-2020

♣ 강좌

컴퓨터교육=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지역주민을 위한 컴퓨터강좌를 마련한다. 19일 개강하는 컴퓨터교육은 초·중·고급에 따라 단계별 2개월 완성으로 오전9시30분부터 오후9시30분까지 반별 90분씩 수업한다. (032)325-2161

♣ 이전

대한불교신문사 서울사무소가 1일 청진동 17-6 삼선빌딩 311호로 이전했다. (02)720-2725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캠페인 1,960,470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2,289,550원 △청담종합고등학교 1,336,410원 외 7개단체 1,814,660원 △김남식 1,500,000원 △장문규 160,000원 △윤원 100,000원 △류재향 100,000원 △양경호 10,000원 외 149명 9,897,72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 6,533,320원 △한 끼 굶기 운동 105,000원

〈30일 현재 총 325,402,75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79-960

예금주: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문체부 새 문화재위원 12명 위촉

문화체육부는 4월 24일 문화재위원 55명과 문화재 전문위원 1백14명을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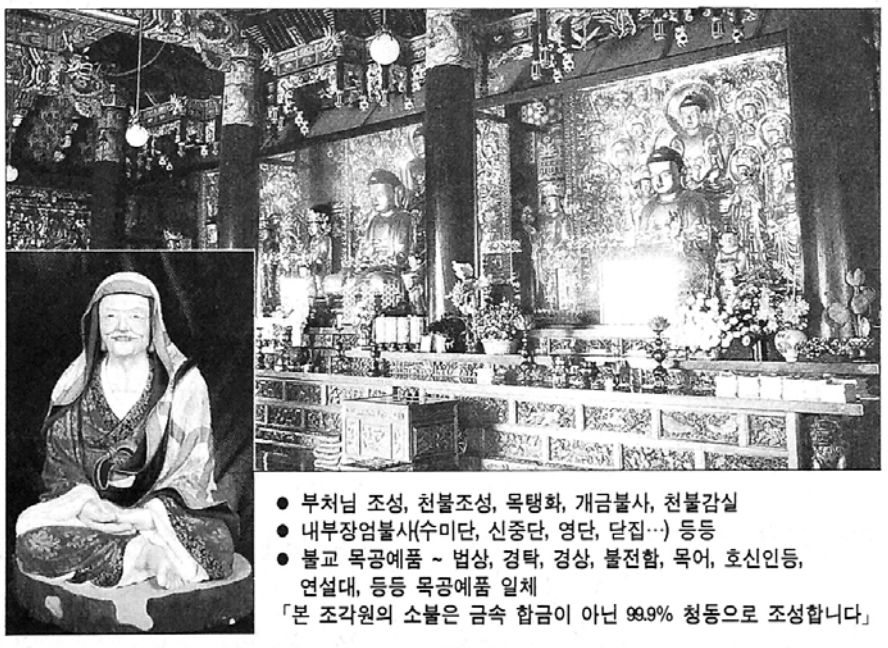
지난해보다 문화재위원수가 49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고 매장문화재를 전담하는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6분과)가 신설됐다. 또 국보지정 심의위원회도 새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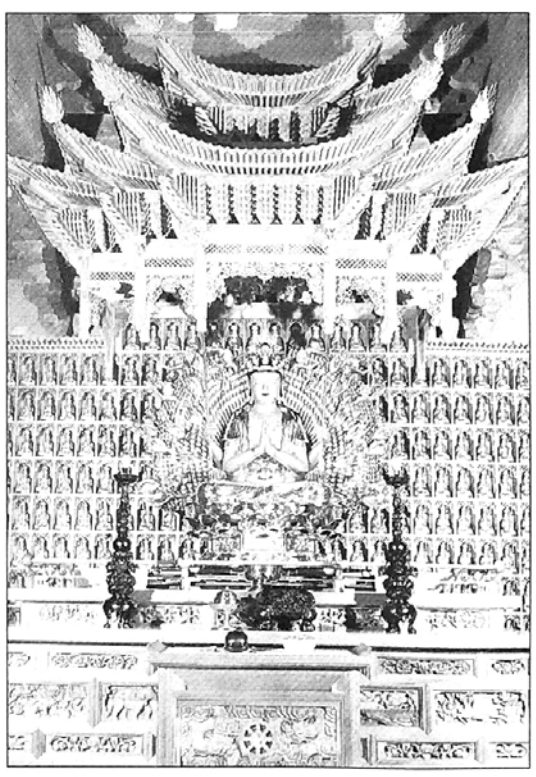
2년 임기로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은 12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2분과(동산문화재) 고병익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장(동양사), 심우준 중앙대명예교수(서지학), 김리나 홍익대교수(불교조각사) △제3분과(사적) 김정배 고려대교수(한국고대사), 정재훈 前문화재관리국장(전통조경), 김일진 영남대교수(고건축) △제4분과(무형문화재) 민길자 국민대교수(복식사), 김옥진 한양대교수(민속무용), 이규태 조선일보논설고문(민속학), 김종태 한양대교수(전통공예) △제5분과(명승, 천연기념물) 홍성각 건국대교수(수목생리학), △제6분과(매장문화재) 김종철 계명대박물관장(고고학).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탐방 MBC 불교연구회



◇문화방송불교연구회는 두달에 한번씩 전국 명산대찰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사진은 속리산 법주사 순례장면.

"안방불심 심는 숨은 포교사"

명찰순례 · 이웃돕기 활발 … 지방국 창립 유도

"부처님의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신으로 혼란의 시대를 계도할 수 있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1백여명의 문화방송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 통일문제연구소 국장 · 51) 회원들은 매월 셋째 목요일 12시 여의도포교원(원장 현진스님)에서 열리는 정기법회를 통해 정법(正法)을 펴는 불자방송인이 될 것을 서원한다.

영상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TV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만큼 회원들은 각기 맡은 분야에서 사회에 이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성을 모은다. 요즘처럼 국가적인 혼란기에는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저마다 바른 마음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다.

이들에게 방송은 머리와 가슴으로 배운 불교를 사회에 회향하는 실천의 과정이기도 하다. 좀더 나은 세상, 현실에서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게 정진하고 있다. 각종 보도프로그램과 교양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 · 광고를 통해 세상을 좀더 자비롭게 만들기 위해 불교적인 정서를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그래서 이들에겐 '숨은 포교사'란 별명이 따라붙어 있다.

지난해 7월6일 봉선사에서 회주 월운스님을 모시고 창립법회를 연지 이제 10개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지만 사내에서는 10여년이 넘는 가톨릭 · 기독교동호회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자 PD 등 개성이 강한 회원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 두달마다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 순례법회를 여는 등의 일이 처음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행군을 하다보니 이력이 붙어서인지 이제는 연2회 이상 이웃돕기에 나서기로 하는 등 내실있는 신행을 다짐한다.

장영효(총무국 총무팀 팀장 · 47) 총무는 "조만간 부산 마산을 필두로 지방 방송국 불교연구회의 창립을 유도해 전국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자체적인 역량이 축적되면 KBS SBS등 다른 방송사와도 교류를 확대할 생각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재경 기자



부산 의료원 법당 개원

"병고중생 부처님품으로"

다도 · 명상프로그램등 24시간 운영

부산시립의료원 법당개원식 및 봉불식이 4월26일 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 성욱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부산 병원법당으로는 부산대학 병원법당에 이어 두번째로 들어선 것.

1992년부터 이곳 의료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바라밀포교원장 효종스님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화된 이 법당은 병마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지처가 됨은 물론이고 전법의 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원목실 바로 옆에 자리한 15평 규모의 이 법당에는 도천스님이 법사로 상주하며 시청각 기기와 불서를 비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각종 법회와 다도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효종스님은 "언제든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 육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할 것이다"고 밝혔다. 효종스님은 2명의 인원으로 5년전 바라밀승려간병인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병원포교에 뜻을 두고 환자목욕에서 임종 축원까지 발로 뛰며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왔다. 현재는 바라밀 간병교육원을 개원해 4백여명의 간병자원봉사자를 배출, 각 병원에서 봉사를 통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산악인聯 내달 1일 출범

15개 지회 구성…사찰환경보호 앞장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추진위원장 손현수)가 오랜 산고끝에 창립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영주 성남 등 15개 지역불교산악회는 오는 6월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전국단위 연합체인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난해 10월20일 월악산 미륵세계사에서 창립준비대회를 가진 불교산악인연합회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창립법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좀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 창립을 미뤄왔었다. 실제로 창립준비대회 이후 새로 발족된 지역 모임은 대전 인천 속초 안동 마산 양산 의정부 등 7곳. 이밖에 예천지역도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불교산악인연합회 추진위 사무총장 김대원 금강메아리산악회장은 "연합회 발족을 계기로 산행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불법을 홍포하며, 사찰환경 · 생태계보호를 통해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등 다양한 신행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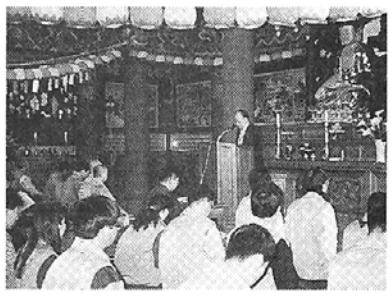
지난 4월19일 추진위원회는 대전에서 창립법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5월2일 전국 지회장 회의에서 現 손현수 추진위원장을 초대회장에 추대하기로 결의(수락여부는 미정)했다. 창립법회에는 13개 지회에서 1천5백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선 · 보시 · 절약 생활화하자"

실천지침 5개항 채택 … 전국대회 일정 발표

97 청정운동 결사현장

청정운동추진위원회(총재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97청정운동 결사대회를 4월 26~27일 1박2일간 괴산다보수련원에서 개최했다. 40여개단체 70여명의 교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7개지역 청정운동 실천 전국대회 세부일정 확정과 5개항의 실천지침을 채택했다.



◇'97 청정운동 결사대회.

'97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는 경주 남산 용장사지(6.22)를 시작으로 속초문화회관(7.15) 논산훈련소(8.10) 영천 제3사관학교(9.7) 청주 예술의 전당(9.30) 장성 백양사(10.19) 서울 진흥원 다보법당(11.15)에서 개최된다. 〈표 참조〉

또 실천지침은 △매일 참선 염불 사경중 한가지 실천 △매월 가족단위의 일정액모아 어려운 이웃에 보시 △호화사치품 사용않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한가족 하나의 문화재를 선정하여 보호 선양하기로 정했다.

이에앞서 결사대회에서 서돈각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혼탁한 사회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대회는 불자들과 사회를 위한 실천운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운동의 이념과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강건기교수는 "청정운동은 시대적 요청과 책임감에 따라 일어난 신행운동이며 생명운동, 새살림운동으로 사회를 굳건히 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김원우 기자

◇'97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 추진 일정

지역	경 주	속 초	논 산	영 천	청 주	장 성	서 울
장소	남산 불당골	문화회관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3사관학교 충성호국사	예술회관	백양사	다보빌딩 대법당
날짜	6월22일	7월15일	8월10일	9월7일	9월30일	10월19일	11월15일
강연 (연사)	문화재보존정책과 시민운동(윤경렬)	만해사상과 민족현실 (박완일)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남지심)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고은)	근검절약의 생활화 (권기종)	자연과 인간의 공생원리 (박성배)	지계와 보시의 생활화 (정병조)

우리 모임에션

금불련 북한동포돕기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는 오는 24일 오후 4시30분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제17회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금불련 운영위는 지난 4월24일 열린 운영위에서 이같이 결정, 당일 모금되는 보시금을 전액 북한동포돕기에 기부키로 했다.

운불련총회 유공자표창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4월 23, 24일 수덕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합회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상에 장지현 대구지회 조직부장, 포교원장상에 이한순 청주지회장, 총재(법장스님)상에 조완희 수원지회장, 지도법사(경원스님)상에 이대병 안양지회장, 회장상에 유기근 광주지회장 · 심영보 전주지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PC통신 3개단체 수련회

PC통신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샵 한승규)의 소모임인 서경모임(서울 · 경기지역모임, 회장 변인택)은 4월 19, 20일 유니텔부처님나라, 칠운회(하이텔 장애법우와 함께 하는 모임, 회장 이승덕)와 함께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합동수련회를 가졌다. PC통신으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장애인불자는 하이텔 'GO BUD 17' 또는 전화 (02)498-8887로 문의.

광주산악회 해인사 순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는 11일 법보종찰인 합천 해인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당일 코스로 오전 8시 광주공원에서 출발한다. 同회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광주근교 사찰 및 전국 명산명찰에서 성지순례 법회를 봉행한다. (062)676-4337

지하철법우회 봉축등밝혀

지하철법우회(회장 신철호 군자차량사무소장)는 1일부터 한달간 종합운동장 역사 등 서울지하철 65개 역사에 봉축연등을 일제히 밝히고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있다.



불교청주방송 첫전파 발사

불교청주방송(FM 96.7MHz) 개국법회 및 축하 리셉션이 4월25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청주방송 10층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국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서돈각씨, 불교청주방송 운영위원장 혜광스님, 불교대구방송 사장 법타스님 등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했다.



종단진흥회 국태민안 기원

종단진흥회(회장 일공)는 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일공(원융종 종정) 운덕(천태종 총무원장) 영명(법상종 종정) 대호(법화종 총무원장) 지명(조동종 총무원장) 법덕(용화종 총무원장) 혜공(삼론종 총무원장) 혜인(대승종 총무원장) 무찰(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송산(해동종 총무원장)스님과 함종한의원(신한국당 불자회장)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불자회 거사5계 수계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는 4월26일 법련사 대법당에서 조계종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을 수계법사로 거사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박세일회장을 비롯 이각범 정책기획수석, 배재욱 사정비서관 등 61명의 회원이 수계를 받았으며, 조계종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도용스님이 월주스님의 불서를 대신 전달했다.



국민회의 연등회 봉축법회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의원)는 4월30일 조계사대웅전에서 봉축기념으로 '국태민안과 국민화합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정한용 · 추미애의원의 헌화에 이어 김대중총재의 격려사,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의 축사, 조계종포교원장 성타스님의 법어가 이어졌다.

연등회는 이날 의원중심의 활동에서 당직자, 지구당위원장, 시도의원, 일반당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물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정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법회안내

월정사(0374)32-6664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오전9시
정기법회 매월5~7일(음) 오전9시
◇주지 현해스님
군인법회 격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상원사청찬기도법회 5월7일 오전9시

법안정사(02)646-4975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부부법회 매월 첫째주토요일 오후7시
금강경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보름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천은정사(0342)701-0770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기도 매월15~18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우황스님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청소년법회 매주일요일오후10시30분
성지순례 매분기 1회

의선사(0364)481-3694
신행교육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
사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교리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
가정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2시
초하루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서천사(02)682-5055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정암사(0398)591-6925
일반신도·백상회법회 매월1·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오후7시
학생부법회매주일요일 오전11시30분

부산 공덕원(051)625-2253
정기법회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지장불교대학강의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중고등부법회 매월1일(음) 오후1시
보리회(거시림)법회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7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父子의 도리 부모님께 근심드리지 말고…

한보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태수 총회장과 3남 보근 회장의 법정상봉이 4월 28일 서울지법 417호에서 벌어졌다. 같은 날 前 제일은행 상무 박석태씨는 '불효자 죄송합니다. 못난 아빠가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매 숨졌다. 또 김영삼대통령은 이에앞선 2월25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아들(현철)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국민 앞에 사죄하였다. '명퇴 신드롬'으로 '아버지'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더니 급기야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자지간의 도리가 어떠해야 할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 부처님께서 선생(善生)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은 다섯가지로 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먼저 부모님과 상의하라. 부모가 하시는 일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부모님께서 하시는 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지 말라. 부모님께서 해오시던 바른 직업을 이어서 더욱 번창하게 하라." 〈선생경〉

▨ 다섯가지의 잘못을 범했을 때 꾸짖을 것이니 믿지 않음, 게으름을 피움, 욕설함, 부끄러움을 모름, 나쁜 벗을 가까이 함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 부모님께 근심을 더해드리지 말고 마땅히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께서 벙이 나셨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급히 의사를 모셔 치료하라. 〈시기라월육방예경〉

▨ 자식은 마땅히 다섯가지의 것으로 부모를 바로 공경하고 봉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무엇인가? 은혜를 잊지 않아 오직 보답하며, 가사를 오직 닦으며, 부채는 오직 갚으며, 분부는 오직 따르며, 섬기되 오직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함이 그것이다. 〈선생자경〉

▨ 부모는 다섯가지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할 것, 착한 것을 가르쳐 줄 것, 학과 도를 가르쳐 줄 것, 좋은 며느리(嫁娶)를 구할 것, 때에 맞게 상속하는 것이다. 〈장이함경〉

▨ 만일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시거든 부모를 잘 섬길지니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대집경〉

▨ 음식과 보배는 아직 능히 부모의 은혜를 갚음에 족하지 못하나, 인도하여 정법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양친께 공양하는 것이라 한다. 〈불사의광경〉

▨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은 살림살이를 잘 할 것, 일찍 일어나 제때에 식사를 드시게 하는 것,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것, 언제나 부모의 큰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병환이 나면 곧 의사를 청해 치료해 드리는 것이다. 〈육방예경〉

▨ 효에는 세가지가 있다. 의식을 제공함은 하품(下品)의 효양이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중품(中品)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을 상품(上品)의 효양이라 한다. 〈이함경〉

▨ 착한 남자가 방편으로 재물을 얻고 손발을 부지런히 써서 법다이 부모를 공양하여 안락을 얻게 하면 이것을 근본불(根本佛)이라 하느니라. 〈잡아함경〉

▨ 물질적인 공양을 하고도 삼보를 믿게 하지 못하면 아직도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은중경〉

신행수첩

◇작년 '96 청정국토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2회 청소년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시상식.



생활속의 禪 강의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회장 한동대)는 구도회 법당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7시 '목요법회'를 갖는다. 5월법회는 〈능엄경〉 〈유마경〉 '생활 속의 선' 등을 강의한다. 이 법회는 8일에는 지안스님(통도사 강주)이 〈금강경오가해〉를, 15일에는 권기종 교수(동국대)가 〈소품반야경〉을 강의하는 등 쉽게 경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051) 462-5062

장애인 솜씨자랑 한마당

'우리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도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자가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 되어서는 안되며 그들의 아픔을 공유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박광서, 남지심)는 14일 장충단공원에서 장애인나들이 행사를 연다. 장애인 솜씨자랑, 게임, 인기가수 장미화씨의 초청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2)278-8672

통일기원 청년등산대회

청년정토회(회장 이동기)는 31일에서 6월1일까지 1박2일간 전북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에서 '97 전국 청년불자 등반대회'를 실시한다.

향적봉(1614m) 등반, 굶어죽어간 북한동포들의 영가 천도제, 통일기원 연날리기 등의 일정이 마련된 이번 등반대회는 청년불자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02)379-1650

환경포스터 글짓기 공모

제25회 세계환경대회를 맞이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제3회 '97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연사랑의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의 참가방법은 ▲포스터(초등학생 8절지, 중·고생 4절지 규격) ▲글짓기(초등학생 2백자 원고지 10장 내외, 중·고생 2백자 원고지 15장 내외)로 시, 생활문, 편지글 등 자유형식이다. 참가작품은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83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로 직접 접수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마감은 5월26일까지. (02)722-7552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불교사회복지회(회장 무공스님)는 메아리 청소년 자원봉사단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5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관오사(주지 지도스님)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한다.

월1회 정기적으로 재가노인 방문봉사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교육된다. 한편 이 자원봉사교육은 중·고등학교로부터 봉사활동 이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053)427-1907

茶향어린 5월신심

보성 징광 야생차밭기행

국토순례모임 '터사랑'(대표 전숙희)은 5월17~18일 무박2일로 차문화기행을 떠난다.

'선암사와 우리 차밭을 찾아서'란 주제를 가진 이번 기행은 선암사 주지 지허스님의 차(茶)에 대한 설명과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 야생차밭을 견학, 차를 직접 따고 마실 수 있을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02)725-1284

쌍계사 일대 차문화축제

일반에 가장 많은 양의 야생차를 공급하는 하동 쌍계사 칠불암 일원에서 17~18일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린다. 2회째 마련되는 이 행사는 하동군이 주최해 초의스님 기념행사와 연계, 다양한 차문화행사를 펼친다. 초의선사 다신탑비 헌화 참배, 햇차시음, 차제조과정 시연, 다례시범공연, 차따기대회, 글짓기 및 사생대회 등이 주요행사다. (0695)83-9665

나의 수행일기



김양일

'한글대장경' 본후 불법에 심취

아내 잃고 제행무상 실감… 자비실천 노력

내 나이 이제 56세. 50세가 지천명(知天命)이면 이미 그 경지가 지난 셈이다.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탓으로 어느덧 50대에 접어들어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마음이 아직 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토록 나의 마음을 젊고 싱싱하게 부지토록 해준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자비의 힘이라고 믿는다. 사실 나는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고 격동의 시대 어두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김으로써 내려진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959년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 입학한 나는 교양필수과목으로 당대의 명교수였던 김잉석교수의 불교학개론, 김용배교수의 불교철학, 안계현교수의 불교문화사 강의를 열심히 듣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불교종립학원인 동국대와의 인연탓도 있지만 불교와는 천생연분이라고 나는 늘 자랑스럽게 여긴다.

불교와의 인연은 좀더 거슬러 올라간다.

내 고향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방장산 밑에 상원사라는 절이 있다.

응석받이인 나는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불공행차에 빠짐없이 따라다녔다.

1965년 전국 신도회 이사가 된 나는 신도회 활동에 남다른 정열을 쏟았다.

당시 사무총장인 박완일거사에게서 한글판 〈팔만대장경〉을 빌려서 열심히 읽었던 일은 잊을 수 없다. 이로써 나는 불교의 진리를 어렴풋이 터득하는 듯했고 심오한 불경에 매료되어 부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었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삼각산 성도원(주지법사 박상문 광운대교수)에서 매주 일요일 고인이 된 대학선배이며 동향인인 송혁교수와 KBS 성우인 임종국동문과 함께 기도하고 법회에서 스님께서 하신 설법을 주제로 토론하던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이며 신행의 밑거름이 되었다.

86년 나에겐 엄청난 불행이 닥쳤다.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나는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KBS 홍보위원직을 그만두고 3년여 동안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방황을 거듭했다.

종국에 가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처절한 경지에 이르렀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나는 새 아내를 맞음으로써 재기하게 되었다.

새 아내의 영향으로 한때는 타종교를 찾아 기웃거렸으나 결국 나는 모태신앙인 불교를 되 찾 게 되었다.

지금은 불교방송을 빠짐없이 듣고 매주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교계신문에서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듣고 부처님의 설법과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면서 굉범하고도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가 깨닫는 종교임을 입증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중년 홀아비처럼 가련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기둥같이 믿고 의지하던 아내를 잃은뒤 인생무상, 제행무상을 깨닫고 믿음, 지혜, 자비를 베풀어 바른 인생을 살고자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을 겪으면서 항상 새롭게 노력한다.

결국 사바세계란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을 일컫는 말로 양심과 역사에 어긋나지 않고 순리대로 살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신념속에 오늘도 우선 내 수양을 쌓고 불사 동참과 기도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살고 있다.

〈울산 대한매일신문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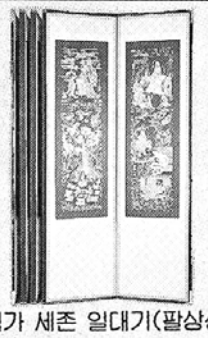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가 보급



◆금강경 10폭병풍 (고급공단 金書)
· 후면 : 석가세존일대기(팔상도)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특후지
봉축특가: ₩49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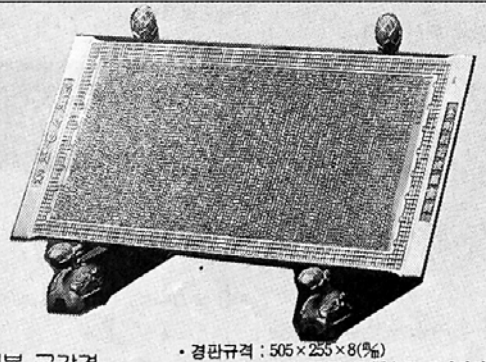
◆부모은중경 10폭병풍 (고급공단 금 서·화)
· 후면 : 반야심경(추사 영인본)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특후지
봉축특가 ₩480,000원



8폭병풍
◆석가 세존 일대기(팔상성도)
· 후면 : 금강경(고급공단 금 서·화)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특후지
봉축특가: ₩390,000원



· 코끼리 꽃꽂이만 350×230(㎜) 특가 ₩120,000
· 단생불(코끼리 받침포함) 1자 3치 390㎜ 특가 ₩330,000



◆천불 금강경
봉축특가 ₩480,000원
· 경판규격 : 505×255×8(㎜)
· 재 질 : 주석(99.9%)24K순금 표면처리
※경관테두리에 천불을 모셨습니다.

국제유네스코 세계유물지정 팔만대장경
국보 제32호 金銅般若心經



· 규격 : 268×209(㎜) · 재질 : 순신주/순금새금 봉특가: ₩60,000원

· 금강호신불시계



금강호신불시계특징
· IPG순금도금
· 고급금강밴드
· 3기압 방수
· 문자판 양각조각
봉특가(남·여각) : ₩50,000원

기획제작전문불사의 집
三田佛事
서울(02)732-6095~6

불자 세상보기

도박 나라경제 좀먹는 망국병

기업인등 150억원 밀반출 적발
여의사 평생모은 43억 탕진

도박이 판을 치고 있다. 지난 한달새 적게는 7억원대에서 많게는 9백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 줄줄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4월 29일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 관광객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국내에서 최소 1백51억원을 밀반출한 카지노 업자와 환전상, 폭력배 및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기업인 연예인 등 3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3천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7백억~9백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카지노에서 자금을 탕진하고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중인 유명 코메디언 황모씨 등 9명을 수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임대한 사무실에 비밀도박장을 열고 7억원대의 포커도박을 해온 의류도매상 등 7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명입시학원장 ㅈ씨는 일본의 관광지까지 오가며 내기골프와 내기바둑에 빠졌다. "재미삼아 1만원씩 내기골프를 한 것이 한판 5억원 판돈의 내기바둑으로 발전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의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ㅈ씨의 뒤늦은 후회였다.

지난 3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4개월간의 수사끝에 여의사로부터 43억원을 도박으로 갈취한 전문도박단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산부인과원장인 여의사를 꼬여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돈을 갈취하고 폭력배를 시켜 노름빚갚으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쇼크로 쓰러져 숨졌으며 평생을 모은 재산은 물론 남편까지 잃고 말았다.

정성운 기자

떡값 보시·노자 풍습서 유래
뇌물로 변질 부패의 시작

김준기·김종범씨 논문 발표

의 뇌물관행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므로 특정국 법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김 교수 등은 이 논문에서 떡값의 기원을 정월대보름 전날밤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스님들이 건네준 법떡을 받고 신도들이 보시하는 풍습과 관리나 하인이 먼길을 떠날 때 떡 사먹을 노자를 준 일에서 비롯됐다고 그 기원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떡값이 변질됐으며, 따라서 떡값은 불법적인 뇌물임에는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불교의 눈 "이겨도 져도 패가망신"

백산신경정신과 최훈동원장은 "한번 빠져들면 가정파탄 자살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이어지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 도박의 특징"이라며 "사교적인 수준의 내기로부터 도박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또 "충동과 욕구의 자기절제와, 이를 위한 교육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묵스님(남양주 동원정사 주지)은 "도박은 자기파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며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는 자정과 수행으로 탐욕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도박의 위험성을 여러 경전에서 지적하고 있다. "재산을 탕진하는 여섯 가지 길이 있다. 술에 빠지는 것, 도박에 빠지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는 것,…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선생자경〉

〈장아함3〉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 가지 위험이 있느니라. 이기더라도 미움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 되며, 친구가 관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지계 금주 파계

비무장지대 남북경작 제의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유휴지를 공동경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제성호연구원은 4월 28일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DMZ 야외학술회의'에서 '비무장지대와 평화조성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45년간 방치돼온 비무장지대내의 농경지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경작해 공동이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화학무기금지협정 발효

●…화학무기의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전량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이 4월 29일 발효됐다. 164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84개국이 비준했다. 한국도 28일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이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농약과 폭동진압용 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무기와 생산설비를 2007년까지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살리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대병원 과장급 이상 관리자 1백여명은 4월 28일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 극복과 사회분위기 환원을 위해 올해 임금인상분 전액을 병원에 반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병원 과장급 이상 보직자 전원은 이날 임금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결의서를 병원측에 전달했다.



◇美 클린턴대통령이 건물벽 낙서를 지우기위해 페인트칠을 하고있다.

美 전·현직 대통령 자원봉사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등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4월 27일 펜실베니아 저먼타운에서 열린 '미국의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대회에 참석, 직접 거리를 청소하고 벽의 낙서를 지웠다. 클린턴 대통령은 낙서로 얼룩진 담에 페인트칠을 했으며, 부인 힐러리여사는 흑인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팁모아 치매요양센터 기증

●…서울 리츠칼튼호텔 직원 2백여명이 지난 2년여 동안 손님들에게 받은 팁을 모은 6백74만2천원을 치매노인 요양센터에 기증했다. 이들은 95년 3월부터 손님들이 봉사료 외의 팁을 주면 '팁상자'를 만들어 모아왔다.

치매노인 강가에 '고려장'

●…치매노인이 아들에 의해 버려졌다. 4월 28일 경북 경산시 금호강변 텐트에서 노숙하던 정모씨(87·여·대구 신암동)를 발견한 청천파출소에 따르면, 치매증세가 있는 정씨가 지난해부터 며느리와 잦은 갈등을 빚자 이를 고민하던 아들이 간단한 취사도구와 이불을 주고 26일 밤 이곳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생 살해 몸값요구 10대

●…경북 칠곡경찰서는 4월 29일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고교생 7명 등 10대 12명을 긴급 구속했다. 이들은 또 피해학생 학부모인 이모씨(47)가 꾸짖자 갑자기 흉기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25일에는 초등생을 살해하고 몸값을 요구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총장이 등록금 빼돌려

●…광주예술대 설립자 이흥하씨(서남대총장)가 산하 7개 대학과 고교에서 2백억원대의 등록금 등을 빼돌렸다.

광주지검은 4월 29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액으로 병원을 인수했으며,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분유 고급우유로 둔갑

●…일부 유명유가공업체들이 생우유(시유)가 아닌 수입혼합분유로 만든 가공우유제품을 마치 고급 생우유제품처럼 보이도록 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월 27일 소비자단체들은 이것이 사실일 경우 해당회사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밀도살 한우 20억대 유통

●…생체검사 도축검사 지육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밀도살한 한우고기 21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도축업자 등 6명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과 공주 등의 우시장에서 소를 사들여 밀도살한 뒤 생고기 전문점 등 고급음식점에 공급해왔다.

팔당호 오염 13년만에 최악

●…팔당호의 수질이 13년만에 최악의 오염도를 기록했다. 4월 29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수질악화 원인은 비료, 퇴비성분 등의 유입이 늘어난 때문이다.

수산물 신체마비 독소검출

●…서울시가 최근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조개류 41건에 대해 '마비성 패독' 함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충무산 생굴 2건과 남해산 바지락 등 3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소가 검출됐다.

시론

청문회 그이후

강산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과는 달리 백성의 마음을 답답하게만 하던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대중 위에 군림하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불려나가 쏟아놓은 말들은 어떤 결과를 남겼는가?

정치인들의 추한모습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씨의 친구들이 구속되고 죄없는 한 은행가가 목을 매 자살하고, '거물급'을 자칭하는 정치인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다. 현철씨의 구속도 검찰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합리화하는가 하면, 질의자인 국회의원들이 솜방망이만을 휘두르는 바람에 '이따위 청문회를 더 해서 무엇 하나'는 비관이 거세게 인 것이 사실이다.



김 종 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번째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부정적 측면도 많았지만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김영삼 정권의 부정과 부패, 독선과 정치철학의 부재, 민족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모한 대북정책이 대중의 눈앞에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른 무렵, 92년 대통령선거 때 민자당 경리부서의 간부였던 인물이 흘린 천문학적 대선자금설은 김대통령을 최대의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것도 청문회 정국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쪽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2백84억원의 몇배나 되는 1천억원 이상을 썼다는 말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아니 야당의 주장대로 1조원이나 되는 돈을 뿌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씨 재판에서 "현직 대통령의 범죄는 형사처벌하기 어려우므로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 임기가 끝난 뒤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가 김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는가?

김 대통령과 현철씨의 앞날을 바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미래는 재처두더라도 오늘 당장 가라앉아 가는 배에서 몸부림 치는 기관사나 다름없는 처지이다. 임기말의 대통령을 가리키는 '절름발이 오리'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할 정도로 대통령의 힘과 권위는 약할 대로 약해져버렸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김심' 운운하면서 신한국당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점찍어주기만을 기다리던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현철씨를 비난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약점을 물고늘어지려 든다. 심지어는 대통령과 수십년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민주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이다. 원리금 갚기에도 바빠 악성 외채를 얻고 또 얻어야 하는데다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부도내는 재벌이 꼬리를 물며,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몇십군데씩이나 문을 닫고, 봉급생활자들은 감원 위협과 쥘어든 월급봉투 앞에서 잔뜩 오그라들어 있다.

이런 판이니 '대통령은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원성이 나오지 않을 리 있는가? 하물며 민족문제에서는 통일로 다가가기는 커녕 원한과 갈등만을 잔뜩 키워버렸다. 북한 정권이 밉다고 굶어죽어가는 동포들에게 밀가루 보내는 것도 막다가 얼마전에야 조금 빗장을 열었으니 그 매정함은 어떻게 변명하랴.

김 대통령과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안쓰럽지만,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은 밝은 미래가 아니라 책임 추궁의 심연이다.

역사와 현실을 보는 눈

역대 대통령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는 빛이 없다. 대통령 마음 먹기에 따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통일이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이렇게 막중한 대통령을 뽑는 데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은 후보의 자질과 경륜과 능력보다는 출신지역이었다. 이제 여덟달도 안남은 12월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되풀이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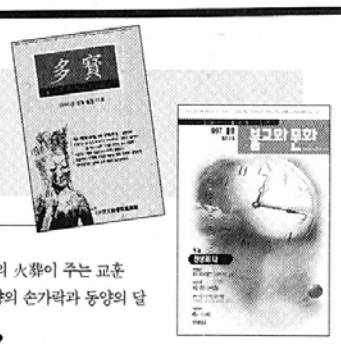
역사와 현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을 세우려면 '나와 너' 모두가 날마다 역사와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조금씩 떠야 한다.

계간 오늘의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계간 '多寶'가
오늘의 불교와 문화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여러분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하여 현대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불교와 문화'는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참기치를 일깨우고 널리 알리는
작업을 통해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교와 문화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보빌딩 (재)대한불교진흥원
전화 : 02-719-1855 / FAX: 02-719-5052



'97년 봄호
주요목차
해외통신
중국 지도자들의 火葬이 주는 교훈
특별기고 / 서양의 손가락과 동양의 달
지상논쟁
대승 佛說·非佛說論
出定後語를 통해 제기한 대승 비불설의 근거
大乘佛教史論을 중심으로 본 대승경전의 불설론
대승 불설·비불설론의 절충적 관점
특집
전생과 나
문헌사적으로 살펴본 전생과 윤회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본 최면과 전생요법
내가 본 최면
불교 윤회설의 의의
내가 느끼는 전생
전생과 윤회 관계논저목록
인물포커스 / 역사인물 재발견 시리즈 - 법공(法空) 스님
화보 / 사진으로 보는 聖寶기행 - '96년 새로이 지정된 성보를 찾아서
최초번역 / 태고 보우국사의 삶과 사상이 깃든 禪詩
- 太古庵歌를 듣는다
생태탐사기 / 가야산 일대와 선운사 야생화를 찾아서
불교계 주요행사일지 ·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 인터넷 불교 · 좋은 책 읽기

■홍천임협조합 마크를 확인하세요
長腦山蔘
장뇌 산삼
정통 심마니의 대를 이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최고의 산삼을 보급합니다.
강원도 홍천임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15~30年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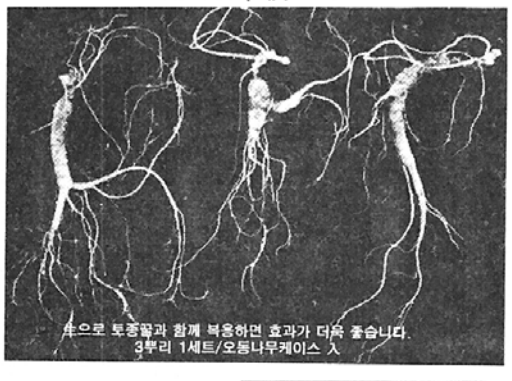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봄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11-730-1046(고천국)



차으로 토종꿀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3뿌리 1세트/오동나무케이스 入

존경하옵는 불자님!
건강과 성불을 발원하옵고 가내화평하시길 빕니다.
최고의 산삼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최저가격에 모시고 있사오니 연락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특품 1세트 3뿌리 65만원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어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게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강원도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6

백장의 여우

百丈和尙凡參次, 有一老人常隨衆聽法. 衆人退, 老人亦退. 忽一日不退. 師遂問, 面前立者復是何人. 老人云, 諾, 某甲比人也. 於過去迦葉佛時, 曾住此山. 因學人問, 大修行底人還落因果也無. 某甲對云, 不落因果, 五百生墮野狐身. 今請和尙代一轉語, 貴脫野狐. 遂問, 大修行底人還落因果也無. 師云, 不昧因果. 老人於言下大悟, 作禮云, 某甲已脫野狐身, 住在山後, 敢告和尙乞依亡僧事例. 師令維那白槌告衆, 食後送亡僧. 大衆言議, 一衆皆安, 涅槃堂又無人病, 何故如是. 食後只見師領衆, 至山後巖下, 以杖挑出一死野狐, 乃依火葬. 師至晩上堂, 擧前因緣. 黃檗便問, 古人錯祇對一轉語, 墮五百生野狐身, 轉轉不錯, 合作箇甚麼. 師云, 近前來, 與伊道. 黃檗遂近前與師一掌. 師拍手笑云, 將謂胡鬚赤, 便有赤鬚胡.

無門曰; 不落因果, 爲甚墮野狐. 不昧因果, 爲甚脫野狐. 若向者裏著得一隻眼, 便知得前百丈贏得風流五百生.

頌曰; 不落不昧, 兩采一賽, 不昧不落, 千錯万錯.

*백장이 설법하는 자리에 한 노인이 있어, 늘 대중과 함께 앉았다가 자리가 파하면 따라 물러가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물러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다. 백장이 "대체 당신은 누구요"라고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섭불이 살던 시대에 이 산에 주석하고 있었사온데, 어느날 학인 하나가 '위대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고 물길래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不落因果)'하고 대답했다가 오백세를 여우의 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우의 몸을 벗을 수 있도록 국면 전환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노인은 (옛날의 그 물음을 다시)물었다. "위대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이 이에 대해 "인과에 혼미하지 않느니라(不昧因果)"고 대답했다. 이 말에 노인은 크게 깨쳤다. 큰절을 올리면서 "제가 이제 여우몸을 벗었습니다. 그 껍데기가 뒷산에 있을테니 산승의 예에 따라 잘 화장해 주십시오" 부탁했다. 백장은 유나에게 목판을 두들겨 대중에게 장례가 있다고 알리게 했다. 다들, 아니 아픈 사람도 없이 편안한데 무슨 말씀이냐면서 어리둥절해 했다. 대중은 백장의 인도로 뒷산 바위 아래로 갔다. 거기서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마리를 뒤져내 화장해 주었다.

백장은 저녁에 법당에 올라 사태의 경위를 일러주었다. 이를 듣고 황벽이 물었다. "그 노인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 오백세를 여우로 살았는데, 만일 제대로 대답을 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백장이 "이리 가까이 오게, 내 일러주지"했다. 황벽은 다가가면서 스승에게 귓쌈 한 대를 올렸다. 백장이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오랑캐 수염이 붉다는데, 여기 바로 그런 놈이 있었군."

*나 혜개가 말한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가 어찌하여 여우몸을 받게 하고, '인과에 혼미하지 않는다(不昧因果)'가 어째서 여우몸을 벗게 하는가. 여기서 올바른 눈 하나를 얻는다면, 백장 앞의 그 노인이 풍류의 오백세를 누린것을 알리라.

*송하여 가로되, '떨어지지 않고 혼미하지 않는다(不落不昧)', 승부는 마찬가지. '혼미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不昧不落)', 틀렸기는 마찬가지.

이 게임은 인과에 '떨어지느냐(落)'와 '혼미하냐(昧)'의 두 글자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불교는 십이인과(十二因果)를 말한다. 세계는 인(因)과 연(緣)의 복합적 고리로 얽혀 있다. 이 교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계전변의 과정에 주체인 나, 중심인 에고(ego)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큰 수행을 통해 인과의 법칙을 증득(證得)한 사람은 바로 그 인과의 고리를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를 얻느냐 아니냐. 이 물음에 대해 노인은 "불락인과(不落因果), 즉 인과를 벗어난다"고 대답했다가 여우거죽을 뒤집어썼다. 백장은 그를 구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정답은 불매인과



"큰 수행자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세계를 보는 눈 새로워 질뿐 일상적 규범 변함없어

다(不昧因果)이다. 수행을 통해 학인은 물리적 세계와 일상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변하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고,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이다. 그는 여전히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며, 피곤하면 눕고 졸리면 잔다." 이 말에 노인은 오백세의 의문을 풀고 해방을 얻었다.

그런데 왜 황벽(黃檗希運 ?~850)이 못 마땅한 얼굴로 나서고 있는가. 그리고 스승의 뺨을 치는 무례한 행동은 어인 일이며, 얻어맞은 백장의 너털웃음은 더더욱 어인 일인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실 이 제2칙 화두의 눈은 여기에 있다. 황벽은 백장의 자상한 깨우침 또한 "평지에 괜히 일으킨 풍파요, 멀쩡한 살갗에 들이댄 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백장이 그걸 모를 리 없다. 알고서도 범한 것이다(知而故犯). 그것을 알려 주려고 황벽을 불렀더니, 황벽이 미리 알고 선수를 쳤다. 백장은 대견한 제자에게 박수와 웃음으로 응답했다.

백장이 던진 감탄의 언구를 읽기가 좀 까다롭다. 오랑캐라는 말에는 두 가지 합의가 얽혀 있다. '달마와 같은 비범함'과 '애비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 그것이다. 황벽을 일러 "스승을 치는 막되먹은, 그러나 비범한 그릇"이라 했으니 억양(抑揚)이 절묘한 찬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삼학(三學) (上)

法數로 배우는 불교

〈16〉

수행의 필수덕목 계(戒) 정(定) 혜(慧)

오계 계학의 기본…생명처럼 여겨야

창조론을 주장하며 절대신의 뜻에 따라 살기를 요구하는 여타 종교는 인간의 구원도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오직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복종을 통해서만이 현세와 내세의 즐거움이 보장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이와는 다르다. 연기론에 입각한 세계관과 생명관을 주장하며 인간 마음의 어둠과 밝음 여하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구원도 스스로의 힘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실로 자기에 의해 악이 행해지고 자기에 의해 스스로 타락되며 자기에 의해 악이 행해지지 않고 자기에 의해 스스로 청정해진다. 청정과 청정치 않음은 자기에게 달린 것.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청정케 할 수 없다는 〈법구경〉의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더럽혀진 자는 더럽혀진 자 자신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덮혀있는 온갖 더러움과 어둠을 인간 스스로가 정화시키고 밝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불교에서는 삼학의 실천에 두고 있다. 삼학은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틀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이루는 것으로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이라 한다. 여기서 학(學)은 글자그대로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간에서 말하는 '학'과는 매우 다른 것이 세간의 학문은 지식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배우는 것에 비해 여기서는 내적이 수행을 배우는 것이다. 삼학은 모든 불교도들이 필수적으로 닦아야 될 으뜸가는 실천 덕목으로 생활의 근간으로 삼지 않으면 안될 만큼 중요하다.

먼저 계학에 대해서 말해보자. 계의 원어는 실라(sila)에 비롯된 말로 '행위의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악수선(止惡修善) 즉, 모든 악을 그치고 착한 행을 닦는다는데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다른



洞山無寒暑

◇통칙스님 作 '동산스님의 더위와 추위'

종교처럼 안지키면 심판 받는 식의 남으로부터 받는 계가 아닌 스스로 발해서 스스로 받아 지키는 발계(發戒)이다. 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것(不殺生) 남의 물건을 취하지 않는 것(不偸盜)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不淫行) 거짓말 하지 않는 것(不妄語) 술마시지 않는 것(不飮酒) 등 5계이다. 이 오계는 다시 대승불교에 들어와 10선계와 보살48경계로 늘어나 자신만을 위한 선행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을 위하는 실천행으로 강조된다. 이것은 뒤에 섭율의계(攝律儀戒:악을 그치는 계) 섭선법계(攝善法戒:선을 행하는 계) 섭중생계(攝衆生戒:중생을 이익케하는 계)라는 삼취정계(三取淨戒)로 정리되기도 했다. 한편 출가한 스님들은 교단 생활에 따른 좀더 엄격한 출가계가 요구되어 비구가 250계 비구니가 348계를 지키게 되어 있다.

계는 출가스님에게 있어서건 재가 불자에 있어서건 생명과도 같다. 만약 계를 어겼다면 즉시에 참회해야 한다. 계를 함부로 어길것 같으면 후에 나쁜 과보를 받게 됨은 물론 수행을 해도 절대 깨달음에 들지 못한다. 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음의 삼학 가운데 정학과 혜학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계는 매우 소중한 것이어서 계를 받을 때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계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과거 스님들 중에는 품속에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었다. 그 칼을 계도(戒刀)라고 하는데 만약 자기의 손이 계를 어기면 손을 자르고 입이 계를 어기면 입을 찢겠다는 맹세물이다. 옛 분들의 말씀에 부처님께 귀의해서 계를 받은 몸은 계체(戒體)가 되어 청정신이 된다고 하였다. 계의 청정,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15

불교와 수학 ⑨

법화경의 수

김 용 운



삼천진점겁 광년 척도로 계산 못해

무시무종의 과거·현재·미래 인연 시사

인류 사상 최대의 과학자로 일컬어지는 뉴턴은 역학법칙과 미적분학을 발견해 이론 물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것은 행성의 불규칙적인 운동, 혜성의 주기, 일월식, 바닷물의 간만 현상… 등 거의 모든 천체 운동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도였고 그의 업적은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며 특히 말년에는 천지창조의 시기를 밝히는데 정성을 쏟았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의 계산에 의하면 처음에는 창조의 시기를 6천년전, 그후 계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8천년전 정도로 수정했다. 그의 과학 업적에 비해 놀라울 만큼 유치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과학으로 발견된 가장 먼 성운은 지구로부터 수조광년 떨어진 것으로 그 지름이 1억 광년에 이른다. 뉴턴이 생각한 하나님은 터무니없이 왜소했었던 것이다.

〈법화경〉(서품제1)에는 석존의 가르침이 현재에 멈추지 않고 과거→현재→미래에 걸치는 교화 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불교적인 과거→현재→미래의 시간관이 여실히 나타난다. 가령 '화성보처유(化城寶處喩)'의 '화성유품제칠(化城喩品第七)'에는 석존의 교화가 먼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왔음을 밝힌다. 그것은 삼천진점겁(三千塵点劫)이라는 먼 옛날에 석존이 태어나 그 최고 대각 경지에 이르렀고 그 교화가 오늘에까지도 이어져 있음을 말한다.

삼천대천세계의 국토를 갈아
이 모든 지종(地種)으로 먹을 만들어
일천 국토 지나서야 한 점 떨구어
이리 되풀이해 이 먹 다하고,
점 떨구고 안떨군 이 모든 국토들을
다시 뭉개 한 티끌로 일겁 친대도
이 티끌 수효보다 그 겁이 더 길리라.

저 부처의 멸도하심 이리 길건만
여래의 무애지는 저 부처의 멸도와
성문·보살 알기를 오늘 보듯 하노라 〈법화경·이원섭 주해〉

삼천진점겁이란 전세계의 물질을 갈아 원자로 만들어 그 한 점을 동방의 천개의 국토를 지났을 때 내리고, 또 그 다음의 천 개의 국토를 지났을 때 또 한 개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원자를 내린 뒤, 모두가 없어질 때 일겁(一劫)으로 하고, 그것을 3천번 되풀이했을 때 경과한 시간이다. 어림으로 지구상의 나라를 2백개로 잡아 지구를 5번 돌았을 때 미진을 하나 내린다고 생각하자. 광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번 반을 돌아간다 해도 1미진이 떨어지는 시간이 30초, 여기에 전 지구상의 물질을 원자의 상태로 갈았을 때의 개수를 곱하는 것이 1겁이다. 그리고 그것에 3천을 곱한 수…,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결과는 광년의 척도(尺度)로 계산한다 해도 헤아릴 수 없는 먼 과거의 시간이다. 또한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에서는 미래세계에 대한 석존의 교화가 설명된다.

1. 그때, 천 세계의 미진(微塵)과 같은 수의 보살마하살 -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이들이다 - 이 부처님 면전에서 일심으로 합장하여 존안(尊顔) 우러러 뵙고 부처님께 아뢰오되,

2. "세존이시여 저희가 부처님의 멸도하신후, 세존의 분신(分身)들이 계시는 국토 - 멸도하신 그곳에서 마땅히 이 경 두루 설하오리니, 어째서이뇨. 저희 또한 스스로 이 참되고 청정하고 큰 법을 얻어, 수지·독송·해설·서사해, 이를 공양하고자 바람이로소이다" 지용(地涌)의 보살들은 석존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사(佛使)이다. 이들은 수가 천의 세계를 갈아 극미의 미진과도 같은 많은 수다.

이처럼 엄청난 큰 수를 등장시킴으로써 '현재'의 모든 현상이 그만큼 많은 인연의 결과이며 또한 이 순간의 일이 미래에 엄청난 인연으로 얽혀 전개되어 감을 시사하고 있다. 불교는 이 엄청난 수의 바다에서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철학을 실감해 온 것이다. 뉴턴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 ·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 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송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관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편지를 전함.

⑩ 일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안국동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아! 고려불화 … 영원한 美



◇일본 경신사 소장의 '수월관음도'.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14세기 동아시아 최고 미술품으로 꼽힌다.

시공사, 韓·美·日·유럽소장 133점 모아 책으로

"한민족 정신세계 불화로 재확인"
수월관음도등 40여점 국내 첫소개



가늘게 그려진 눈썹, 속눈썹은 말할 것도 없고, 한가닥 한가닥 먹선으로 치밀하게 묘사된 귀털, 그윽하면서도 부드러운 시선과 자그마한 입, 풍만한 얼굴, 금박과 수를 새겨놓은 화려한 천의(天衣)와 미풍에도 흩날릴 듯 살포시 걸쳐진 얇은 베일사이로 드러난 수월관음보살의 모습은 그대로가 불교의 이상세계다.

수월관음보살을 찬찬히 바라보노라면 어느덧 마음의 눈이 또다른 세계를 향해 열리는 신비로운 전율을 느끼게 된다.

영원한 미(美)의 세계, 고려불화가 한자리에 모였다. 종교적 예술적으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내외의 고려불화 133점을 모두 모은 〈고려시대의 불화〉(1·2권)가 시공사(대표 전재국)에서 출간된 것이다.

> "금방 살아움직일듯 묘사 정교 필치 섬세 불교회화의 백미"

1권은 도판편으로 국내에 소장하고 있는 12점과 일본에 전하고 있는 106점, 미국 유럽 17점 등 세계 각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 133점을 총망라했다. 불화를 여래도 보살도 나한도 등 종류별로 나눠 전도(全圖)와 부분도를 담아냈다. 2권 해설편에는 작품해설과 참고자료, 한일 미술사학자들의 최근 불화 연구논문을 수록해 놓았다.

이 가운데 일본 이즈미야 박물관(泉屋博古館) 소장 '수월관음도'와 조호손자사(朝護孫子寺)의 지장보살도, 계암사(桂岩寺)의 아미타팔대보살도, 부동원(不動院)의 비로자나불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아미타삼존도와 지장보살도 등 40여점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한국미술연구소(소장 홍선표)가 기획한 이 책은 고려불화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주대학 문화재학과 정우택 교수와 고려불화의 가치를 학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 정립시킨 일본 규수대 문학부 기루다케 준이치 교수가 공동으로 작업했다.

세계적으로 불화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는 한국과 티베트 뿐이다. 특히 불화는 불상이 표현하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를 보다 폭넓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장을 지닌다. 불화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또 교화의 방편으로서 불교의 원대한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종교적 신앙의 결정체다.

불화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불자들의 마음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고려불화는 일본등 외국에 오히려 더 많이 존재해 불화종주국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우리것에 대한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불화의 모든 것을 처음으로 집대성해 한권의 책으로 담아낸 〈고려시대의 불화〉 발간은 뜻깊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섬세한 필치와 정교한 묘사, 신비감 마저 자아내는 화려하고도 조화로운 색채, 그리고 다양하고 개성적인 문양과 도상의 고려불화는 가장 화려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휘한, 불교회화의 백미로 여겨진다. 고려불화는 우리민족의 정신세계의 표출이자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의 미(美)에 다름아니었다.

고려불화는 안료의 혼합을 최대한 절제해 색의 선명함을 극대화 시켰고, 세밀하게 그린 먹선의 표현기법과 불화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금박선의 표현등은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그 생생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려불화의 치밀성 장식성은 외관적이고 표면적인 느낌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면구성을 위한 전체의 요소요소에 각각으로 심오한 표현과 절제의 오묘한 조화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은 결국 조화의 美이며 그것은 곧 한국인들의 미적감각이자 내밀한 정서였던 것이다.



◇국내에 처음 소개된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의 지장보살도.

수록된 불화 가운데 일본 경신사(鏡神社)의 수월관음도, 일본 천은원(天恩院)의 미륵하생경변상도, 호암미술관의 아미타 삼존불(국보 218호) 등은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1310년 고려 화가 김우문이 그린 경신사 수월관음도는 가로 2.5m 세로 4.2m의 거대한 화폭에 그려진 관음상으로 뛰어난 화질과 아름다움으로 14세기 동아시아 최고 미술품으로 꼽힌다.

고려불화는 영산회상도, 아미타회상도, 화엄신중도, 관경변상도, 보살도, 나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그려져 왔다. 그만큼 고려불화는 우리민족의 다양한 종교관, 우주관, 인생관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려불화는 각각의 개별적인 모습속에서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여여한 세계를 보여준다. 마치 한 방울의 바닷물에서 드넓은 바다의 짠 맛을 알수 있는 것처럼, 개별적인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원융되는 세계, 그것이 바로 고려불화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다.



정교수는 특히 "서양화 위조감별 등에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해 고려불화의 숨은 모습을 되살렸다"고 강조한다. 현미경 사진, X레이사진, 적외선 사진등 첨단 광학기술을 동원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여실하게 복원했다고 밝혔다.

한권 이 책의 해설편에는 '고려불화의 특성(기루다케 준이치, 규수대 교수)' '화엄사상과 고려불화의 밤주(이데세이 노스케, 도쿄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불화의 도상과 아름다움:그 표현과 기법(정우택)' '고려불화의 과학적 조사(정우택)' 등의 논문과 도관해설외에 '고려불화의 명문' '고려불화 문헌자료' '고려시대 회화사연표' '고려불화 논저목록' 등의 자료가 수록돼 있다.

〈고려시대의 불화〉는 오는 9월 일본어관 발간에 이어 영어관과 독일어관도 준비중이다.

이은자 기자

'고려시대의 불화' 작업한 정우택교수

10여년간 지구촌 불화찾기



〈고려시대의 불화〉를 작업한 경주대학 문화재학과 정우택(44)교수는 '고려불화'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분야의 권위자다.

정교수는 10여년간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고려불화를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 연구했으며 지난 4년간 이 책의 편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교수는 "고려불화에 관한 화집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3종 정도가 출간된 바 있지만, 이들 모두 현존 고려불화의 50% 미만을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관상태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에 미진한 점이 많았다"면서 "고려불화집의 결정판인 이 책은 고려불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의의를 더욱 높이는 연구자료로서 그동안 텍스트 부재로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고려불화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이번 불화집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작품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들 자료들을 연구자료와 시각자료로서 그 효용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편집했다.

작품선정도 고려불화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취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고려불화로 거론되었던 모든 자료를 가능한 한 망라했다. 소장처의 사정으로 한두 점 정도밖에 조사할 수 없었던 것은 삽도(揷圖)로 수록했고, 사경화의 벽화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불화와 관련된 작품자료는 거의 모두 담았다.

현미경·적외선등 과학기술 동원
육안 확인 불가능한 부분까지 복원

'한국의 불화' 4권 출간

통도사·해인사·월정사편
성보문화재硏 조사 편찬
조선불교 연구 중요 자료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스님)이 지난해 부터 간행하고 있는 〈한국의 불화〉시리즈 제3권 통도사 본말사편(下)과 제4, 5권인 해인사 본말사편(上·下), 그리고 제10권인 월정사 본말사편 등 4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4권에는 후불탱과 보살탱, 신장탱, 각부탱등 생생한 칼라도판의 불화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3대 불모(佛母)인 의겸(義謙)스님 작품인 해인사 대적광전 석가모니후불탱화(1729년)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상부에 1백위가 넘는 화불과 26보살, 30여 존자, 사방천왕, 대범천왕, 제석천왕, 8대금강을 묘사해 뛰어난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종교 체험의 세계를 인물의 표정과 자세 등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는 통도사 괘상도는 그 표현 기법과 양식적 특징이 단연 돋보이는 조선후기 괘상도중 하나다. 산수화적 기법을 대담하게 수용하고 있는 통도사 괘상도는 중요한 부분마다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명문을 남기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 이후 사찰의 대웅전이나 극락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각안에 거의 빠짐없이 봉안되는 중요한 불화인 신장탱화가 각 권마다 담겨져 있어 조선시대 불교신앙의 형태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오는 2005년까지 전국의 사찰불화를 연차적으로 조사 편찬할 계획인 성보문화재연구원은 국내외 박물관 및 개인이 소장한 고려불화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1차분(제1권~20권) 간행 완료와 함께 고려불화도 집대성할 계획이다. 또한 책으로 편집되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해 CD롬 제작도 준비하고 있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유념품(侑念品) ②

應時等行法 응시등행법
是度老死惱 시도노사뇌
比丘悟意行 비구오의행
當令應是念 당령응시념

때에 맞춰 바르게 법을 행하면
늙고 죽는 번뇌에서 벗어남이니
비구는 마음공부길을 깨달으면
마땅히 이런 생각에 응해야 한다

諸念生死棄 제념생사기
爲能作苦際 위능작고제
常當聽微妙 상당청미묘
自覺悟其意 자각오기의

모든 생각의 나고 죽음을 놓아버리면
그것으로 괴로움의 끝을 삼으리니
항상 미묘한 마음작용을 들어서
스스로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

能覺者爲賢 능각자위현
終始無所會 종시무소회
以覺意能應 이각의능응
日夜務學行 일야무학행

이를 부처님 제자라 하리라
밤낮으로 항시 부처님과
법과 스님을 생각하되

念身念非常 염신념비상
念戒布施德 염계보시덕
空不願無相 공불원무상
晝夜當念是 주야당념시

몸을 생각하고 덧없음을 생각하며
계율과 보시와 덕행을 생각하고
공과 원없음과 형상없음을 등
밤낮으로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라

자인품(慈仁品) ①

爲仁不殺 위인불살
常能攝身 상능섭신
是處不死 시처불사
所適無患 소적무환

어질어서 살생하지 않고
항상 몸을 잘 닦으면
거기가 죽지 않는 곳
가는 곳마다 근심 없으리

不殺爲仁 불살위인
愼言守心 신언수심

"인자함으로 자신보고 성냄 참으면
가는 곳마다 근심없어 스스로 편안"

當解甘露要 당해감로요
令諸漏得盡 영제루득진

是處不死 시처불사
所適無患 소적무환

마음작용 능히 깨달으면 어질다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무는 바 없이
깨달은 뜻으로써 능히 응하되
밤낮으로 힘써 배우고 행하여
마땅히 감로법의 요체를 알아
온갖 번뇌 다하도록 하라

어질어서 살생하지 않고
말을 삼가고 본심을 지키면
거기가 죽지 않는 곳
가는 곳마다 근심 없으리

夫人得善利 부인득선리
乃來自歸佛 내래자귀불
是故當晝夜 시고당주야
常念佛法衆 상념불법중

彼亂已整 피란이정
守以慈仁 수이자인
見怒能忍 견노능인
是爲梵行 시위범행

무릇 사람이 좋은 이익얻으려면
스스로 부처님께 돌아가 귀의하라
이런 까닭에 마땅히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과 법과 대중을 생각하라

날 뛰는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인자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며
성냄을 보고 능히 참으면
이를 일러 범행이라 한다

已知自覺意 이지자각의
是爲佛弟子 시위불제자
常當晝夜念 상당주야념
佛與法及僧 불여법급승

至誠安徐 지성안서
口無麤言 구무추언
不瞋彼所 구진피소
是謂梵行 시위범행

참으로 진실되고 편안하고 고요해
입에선 거칠고 추한 말 사라지고
어디서나 성내지 않으면
이를 일러 범행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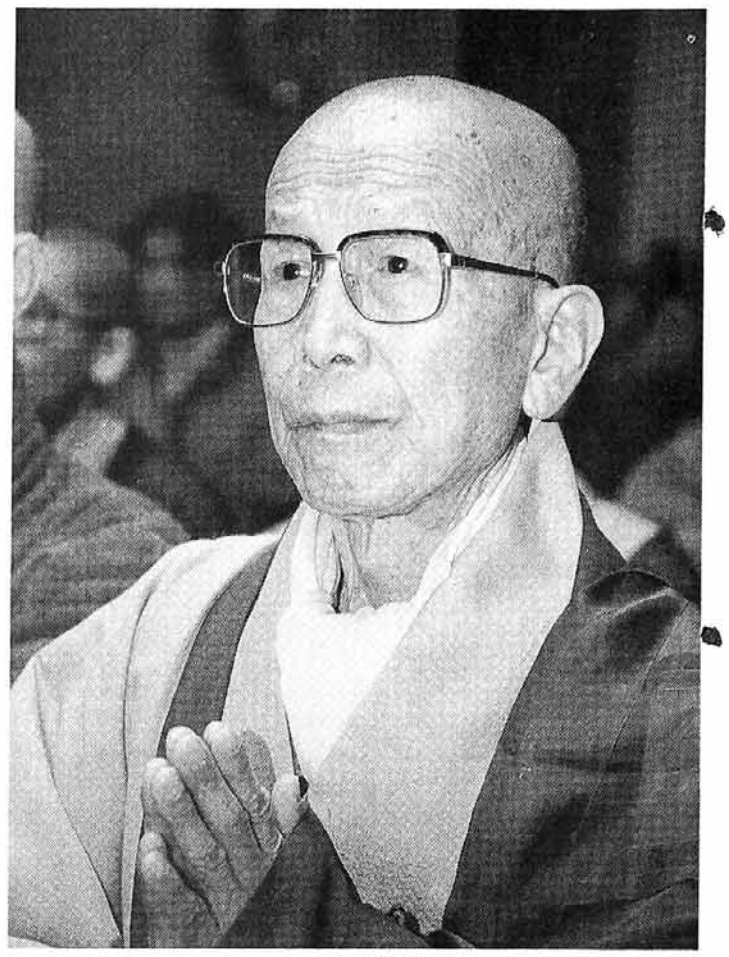
이미 스스로 깨달은 뜻 알면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참사람이 사는 세상

서옹스님 〈고불총림 방장〉



"세상사 걸리지 않게 살다보면
생사 넘는 경지에 도달하니
약으로 건강 얻으려 마세요"

두달전에 산책을 하다가 낙상을 해서 다리뼈를 상했어요. 병원에서 한달여를 입원해 있다가 요즘은 통원치료중인데 임조(상좌, 경기도 고양시 임조선사 주지)가 대웅보전 낙성식을 한다기에 무리를 해서 나와 봤어요.

내가 지금 여든 여섯입니다. 나이를 먹으니깐 쉬 피로해져요. 건강 생각해서 조심 조심해서 생활해야지 무리하면 안 되겠어요. 살아도 한목숨, 죽어도 한목숨이지만 주위에서 신경들을 너무 많이 써서 말이예요. 근데 건강이 약 먹고, 조심조심한다고 지켜지나요. 인간 세상사에 걸리지 않는 자유스러움 속에서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게 건강이죠.

열일곱, 열여덟쯤 내가 양정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지나지 않아 조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철모를 때지만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간디 자서전을 읽고 있었는데 간디가 존경하는 인물로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도 그게 무엇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때였지만 부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던 간디의 자서전을 읽고는 운명적인 뜨거운 그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막연히 불교가 좋은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불교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급새 매료됐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교책을 읽다보니 인생의 진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디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나는 그때 생각했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라야 되고, 일본의 식민지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불교로구나 라고요. 그래서 나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1학년 여름방학때 장성 백양사 만암스님(曼庵, 1876~1957)을 찾아 입산했지요.

그때 만암스님이 불교가 발생한 인도 서천에서 불교적 생활을 하는 늙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서(西)자 옹(翁)자를 써 서옹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출가하고서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상의 사소한 일거리를 다 공부라 생각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모셨습니다. 그때야 솥다고해서 뜨거운 물에 손 담글 수가 있나요. 돌멩이로 얼음을 깨서 음식도 준비하고 양치, 세수도 해야 했는데 얼음을 깨서 손에 대면 얼음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큰 스님(만암스님) 밑에서

약
- 1912년 충남 논산 生
- 1932년 장성 백양사 만암대종사 문하에서 득도

력
- 1941년 일본 동경 임제대 졸업
- 스리랑카 프리베디대학 철학박사
- 64년 동국대 선학원장
- 65~74년 동봉산 무문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조실 역임
- 74~79년 조계종 5대 종정
- 96~ 現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 저서 〈선과 현대문명〉 〈절대현재의 참사람〉 〈임제록 연의〉

얼음깨서 음식만들고 세수하던
행자시절 초발심 생각하며
여든여섯 지금도 계율에 엄격

공부하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하루일 다하고난뒤 참회의 절을 하느라 밤을 꼬박 지샜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때 발심(發心)할 인연이 와주었고 훌륭한 선지식을 모시고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도(道)를 닦자면 발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도를 닦는다면 나무와 돌도 비웃을 것입니다.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수행하고자하는 이는 발심은 왜 하며, 도는 왜 닦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때문에 도를 닦는지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거들랑 우물쭈물하지 말고 곧바로 착수하십시오. 인생이 천추만세토록 살 것인라는 착각에 이 생물체(生物體)를 믿고 기대를 거는 사람을 미혹한 중생이라고 합니다. 도를 깨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일도양단(一刀兩斷)하는 것이니 더 긴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발심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차곡차곡 밟아야 합니다.

구도자의 가장 큰 병은 도를 쉽게 얻으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생사해탈의 도리를 알려면, 천리 만리도 좋으니 선지식을 찾아가서 얻어야 합니다. 자기 병도 제대로 모르는 선지식에게 화두아닌 화두를 받아쥐고 일념 병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일생은 고사하고 한없는 세월 무량겁 지나도록 구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아는 길일수록 묻지 않고 가다가 한 발만 헛 놓으면 무간지옥에 빠지기 일쑤이니 깨닫은 이후가 더 어렵습니다.

참선이 무엇하는 겁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참으로 인간 본래면목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은 부처님이 인간 근본 참다운 본래 모습을 깨달은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경지에까지 도달하신 분이시죠. 나는 참선하면서 그 자유자재한 참다운 인간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학문은 의식으로 하지만 선(禪)은 세간 공부와 달라요. 화두를 들고 의심하는 것은 의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명체가 의심덩어리가 되어 긴장하고 '일(一)'이라는 자리가 주체가 되어 통일된 의식을 갖는 것인데 자유자재 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1백m 경주를 할때

생활 속의 불교 (121)

구제 불능의 길을 어찌 스스로 따라가랴.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근거로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른다.

불법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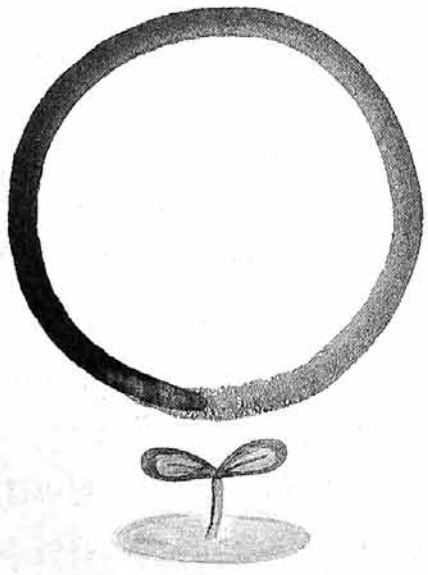
불법은 사람이 있는 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삼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살림살이, 삼계의 이법(理法)이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은 사생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있다. 그러나 불법의 진수를 만나기란 몇 겁을 거치도록 쉽지 않다고 한다. 불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생이 스스로 불법을 특정한 가르침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이다."

불법과의 인연에 대해 흔히 세가지 어려움이 거론된다.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고 살아가면서 불법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더라도 선지식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5억 인구가 많아보이지만 지구 상의 생명체의 수에 비하면 한 줌에 불과하니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생명체의 살림살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법(理法)을 꿰뚫어보지 못하니 불법 만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어쩌다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듣더라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만나고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법구비유경을 보면 전생에 좀벌레, 소라고동의 몸을 거쳐 마침내 비구가 된 사람의 얘기가 있다. 이 비구는 세가지 어려움을 뚫고 수행자가 되었으나 배불리 먹고 딩굴며 소일하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에게 깨우칠 인연이 있음을 보시고 몸소 찾아가 경책하는 법문을 들려 주셨다. 이에 비구는 크게 참회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아라한과에 들게 되었다.

왠만한 불자라면 이 비구만큼은 못된다 해도 다 세가지 어려운 관문을 뚫고 오늘에야 비로소 해탈문 앞에 선 셈이 된다. 참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 불법은 어디에나 있다. 하루 해가 뜨고 지는 거기에도 불법이 있고 나의 한 생각 나고 사라지는 거기에도 불법이 있다. 나의 들 숨 날 숨 가운데도 엄연히 불법은 존재한다. 어디 그뿐인가. 내 주변엔 선지식들이 많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도 선지식이요 부모 자식도 선지식이다. 거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도 선지식이고 날 짐승 들 짐승 풀 한포기라도 내가 배우기로 하면 훌륭한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세가지 어려움을 넘어 기회를 붙잡은 격이 된다. 불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은 그 때문이다. 출신 성분이나 성별, 학력이나 재력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부처 될 자격이 있음도 그래서이다.

그런데 이 모처럼의 기회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박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듯이 천재일우의 기회라도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그만이다. 부처님께서 저 비구에게 경고하셨듯이 좀벌레나 소라고동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각자의 삶이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겁생으로 이어지는 한 게으름을 피운만큼 좌천해서 거기서 다시 닦아 인간의 몸까지 올라와야 한다.

스스로 닦지 않는 중생은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구제받지 못한다. 물 가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마시는 일 만큼은 제 몫이다. 그런데 스스로 불자가 된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 어찌될까. 선지식이 보기엔 구제해야 할 한량없이 측은한 중생이겠지만 스스로 평가해 보면 구제불능의 신세가 아니고 무엇이랴.

혹은 사문이 되어서, 혹은 불법을 배우고 펼치 겠다는 불자로서 하필이면 구제불능의 길을 따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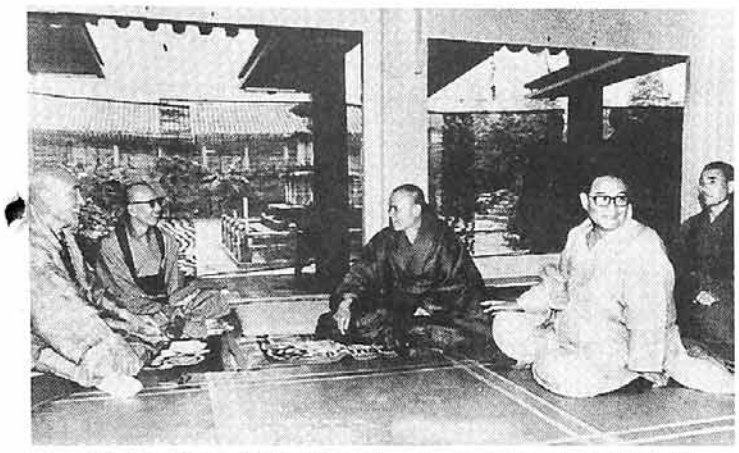
협찬 : 이일용 · 이큰길

큰 스님 수행한담

서로 돕고 존중한다”

“禪은 세간 공부와 달라요 100m 달리기 할때 전심전력하듯 전 생명체가 의심덩어리 되면 의식 초월 자유자재 … ”

평화·자유 이르는길 禪에서 찾을수 있어요 자비심 대립-분열 사회상 화해로 이끌죠



◇1974년 해인사 관음전에서 월산스님 서옹스님 성철스님 향곡스님(사진 왼쪽부터)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전심전력하듯 생명체가 의심덩어리 되어 의식을 초월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저절로 자비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비심은 화합과 같은 통일된 의식을 바탕으로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비로소 일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평등과 대자유라는 인간의 주체성을 찾는 길은 선(禪)뿐임을 알게 되죠. 또한 자기 본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은 그 세계를 알고 해야합니다. 선을 확실히 모르고, 선을 하느니 닦느니 하는 말은 구도선이라 해서 잘못하면 구업이나 지었지, 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21살에 백양사에 와서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년 더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그 후 일본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스님(만암스님)의 만류로 오대산 선방으로 갔습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했을 때에는 일본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여길 때인지라 유학을 갔으면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스님은 내가 중이 돼 ‘사미’니 ‘비구’니 하는 계단을 안 밟고 대번 백양사 예전 강사가 되었으니 수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방한암스님이 계신 선방으로 가 참선공부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2년쯤 지났을까, 일본 임제대학을 다니던 유종묵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 공부해 보는게 어떻겠느냐고 권하시더군요. 우리 스님보고 5원만 대주면 장학생으로 가게 된다고 졸랐더니 마침내 허락 하셨습니다.

일본에 유학가서는 임제대학에서 강사로 계시던 구송박사를 만나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구송박사는 선철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셨는데 ‘참사람주의’에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임제대학은 학생들이 전부 스님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구송박사의 선철학 영향을 받은 나는 취미활동도 그저 선문화에 대해 감상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일본은 선문화라는 것이 형성돼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선서(禪書)니 다도(茶道)니, 선화(禪畵)니…. 그러나 그 때는 감상만 할 뿐 글씨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총무원에서 일하면서 글 부탁하는 이들이 많아 붓을 잡게 돼 얼마전까지 썼는데 요즘은 기력이 달려 잘 쓰지 않죠. 예술은 인간의 심오한 내면, 영원의 그 바탕, 인간의 근원 그 바탕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문학은 인간의 심오한 내면의 바탕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노벨상감이지요. 재미있게만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글씨도 그런 바탕에서 나와야지 예술적 가치가 있는거구요. 그것은 모두 선(禪)과 직결됩니다.

선은 철학이고 종교속의 종교인 깊은 것입니다. 이런 보배가 인류 역사상 달리 없어요.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선(禪)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사람 운동’을 강조합니다.

‘참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첫째 감각이 있고, 감각을 지배하는 이성이 있고, 이성보다 더 깊은 자리에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강조되는 휴머니즘 인간주의 즉 이성을 지배하는 영성자리에 살자는게 참사람입니다.

그 참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자비심으로 서로 화합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가 서로 존중하고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사람인 것 입니다.

일본 유학시절에 천황에게 절할 것을 강요당한 일이 있습니다. 불경에 승려는 천자나 임금에게도 절을 하지 않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속국으로 온갖 핍박을 받아야 했던 나는 천황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일본 승려는 절을 하기로 했고, 나는 굽힐 수 없어 버티다 징병을 당했으나 결국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참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했어도 그런 어리석은 짓들은 하지 않았을텐데요.

최근 생명체 복제니 뭐니 시끄럽습니다. 과학문명의 발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문명을 지배하는 바탕의 원리가 올바르게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 인간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서로 조화를 이룩해서 형성되고 인간도 서로 조화해서 이룩되지 근본 하나가 없으면 혼란해서 전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근본은 전부가 하나로 되어 있고 그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또 아무것도 없는게 되어 버리거든요 거기에 개체가 다 하나의 바탕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와 많은 개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서 거기서 불평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차별로만 나가면 그게 하나가 없는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침략한다거나 착취한다거나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 국가 이기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 나라 이익만 추구하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났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지나치게 이기적이면 문제 해결이 안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불만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 욕심이 지배하면 자기 마음이 욕심에 끄달려 자유가 없어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참자유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자기를 조절할때 나옵니다. 폭력이라든가 무리한 일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욕망이 지나칠때 나오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질서가 있고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화합과 협조의 길이 생기는 것이지요. 불성으로 살면 자비심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무위진인(無位眞人)으로 어디에도 걸림없이 조화있게 사는 길이 열리지요. 참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 자세를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계속해야 하는데 불문에 들지 않고도 꾸준히 수행을 하는 길은 자기 반성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주일후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은 인간 각자가 자신의 참모습인 불성을 깨닫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참모습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화평해 집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해탈하게 되어 충만한 자비심이 넘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고 진정한 자비행이 발현됩니다.

그러한 자리라야 우리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주인공이 돼서 미래의 훌륭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인류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닥치는 경계가 너무 많아요

문 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苦)가 아니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저 자신을 공부시키는 재료라고 하셨는데 공부재료도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신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료가 좀 천천히 오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오주영 ·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답 부처님께서는 다가오는 경계에 속지말고 쉬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몸을 빌고 거기에 과거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키운 의식과 영원한 자기 불씨, 핵이라고 해도 좋고 심봉이라고 해도 됩니다만 아무튼 셋이 계합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생의 인으로해서 현실의 과가, 그것이 악업일 때도 있고 선업일 때도 있겠지만 가지가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살면서 속 상한 일, 가난이 다가드는 것, 괴로움이 오거나 고독함이 찾아 오거나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 또 몸에 병이 생기고 서로 서로 부딪치며 아픔을 겪는 일들이 모두 앞서의 인이 과로 오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걸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찰나 찰나 돌아가면서 찰나로 달려드는 것이니 속지말고 쉬어라, 이러셨거든요.

그런 말씀 하신 뜻은 모든 것-네 마음도 고정된게 없고 네가 보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네가 듣는 것, 가고 오는 것, 만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아 일체가 공했으니 네게 다가오는 경계도 공했느니라, 그러니 속지말아라, 고정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거기에 착을 두고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쉬어라 하셨습니다. 일체가 공했으니 공에서 나온 것을 공에다가 다시 놓아라 하신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일체가 공했으니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고 무엇이라고 붙을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공한 것을 공연히 뭔가 실체가 있는 양 붙잡아 매려고 하니까 달라붙는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떼어내려고, 어서 빨리 내 곁을 떠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제 발목을 잡고, 저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절부절 울고불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 않던가요. 주인공도 이름이지만 공에서 나온 것이니 공에다 놓아라, 빌 공자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 빌 공자 주인공에 놓아라. 그렇게 쉬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속지 말고 놓고 쉬어라 하니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왠지 허전하고 불안하다나요?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천정도 없이 사방이 틔 터졌으며 툭터졌으니까 얽매일 것도 붙잡힐 것도 없는데, 그대로 여여하다는데 이건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내게 삼재니 팔자운명이니 하고 물을 때면 그런 것은 본래 없다,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삼재팔난이 다 뭐냐고 말해줍니다. 그게 다 내 마음으로 짓고 내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체가 없어 자유로운 마음이 왜 붙들립니까?

누구라도 마음은 자유롭고 여여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 돌리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완벽하며 여여한데 말입니다. 훨훨 자유롭구요.

그래도 그걸 못 믿거나 덜 믿어서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인공 자리에 되놓고 거기에다 콱! 맡겨라. ‘주인공! 당신 밖에는 나를 형성시킬 수도 없고 당신 밖에는 나를 이익되게 이끌어 줄 수도 없다. 당신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속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번번히 속아 넘어가고, 부처님께서 쉬어라 하셨는데도 쉬기는 커녕 끄달리고 있으니 이걸 어쩝니까? 놓고 맡기라고 해야 틀리지 않고 속지 않을게 아닙니까?

모두들 믿음이 약한 탓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는 공하여 본래 붙을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지 못하니까 경계마다 쩔쩔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까짓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느냐고요.

다가오는 경계가 다 공부재료인 까닭은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부처님오신날 법보시용 소책자

부처님의 생애

봉축현수막과 어깨띠 및 리본 대용 버튼도 있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석가모니부처님의 감동적인 일대기를 인도 현지의 원색사진들과 함께 편집한 불교신행의 길잡이.

※ 국판(148×210㎜) 68면 1부당 1,500원
※ 500부 이상 주문시 뒷표지에 사찰명, 주소, 전화번호, 법회안내 등을 별도 인쇄해드립니다.
※ 봉축위원회가 제정한 E·I·P 규격에 입각하여 제작한 현수막은 하단에 법회일시와 사찰명을 기입해드리며, 서울 인근지역에는 별도의 설치비를 받고 설치도 해드립니다(4월 28일부터 5월 8일 사이).
※ 어깨띠는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별도인쇄의 부담이 있으므로 주문은 최소 10일 이전에 해주십시오.



가격표

품 명	가 격	규 격
현수막(6m)	40,000원	600×90cm
현수막(8m)	50,000원	800×90cm
현수막(10m)	60,000원	1,000×90cm
봉축어깨띠	2,500원	10×180cm
봉축버튼(100개)	40,000원	직경 55㎜
부처님의 생애(책)	1,500원	국판 68면(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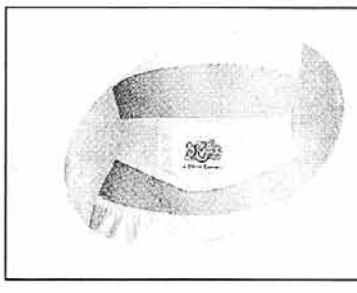
문의처: 포교사업팀
서울(02) 718-4625~9
(02) 719-7115~6
광주(062) 228-5114
대구(053) 744-0032
원주(0371) 763-8575, 0857
불교방송 (02)705-5305~7
불교부산방송 (051)644-5114
불교광주방송 (062)520-1114
불교대구방송 (053)427-5114
불교청주방송 (0431)211-2090
제작/열린불교 (02)739-0108

전화문의 주시는 사찰에는 견본 1부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2~3년전부터 방광염과 불면증이 생기면서 기미가 끼기 시작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하루는 언니가 한약재 성분인 “향비”를 써보라 했습니다. 착용하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불면증이 없어지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도 잘 도는 것 같아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약 9개월이 되었는데 끈기있게 사용하고 있고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고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심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그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아귀노릇

'물…'을 외쳐대는 수원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식수아귀가 되어 있었다

우녀가 본대로 수원이 아귀계의 고통 가운데서 길고 긴 굶속같은 굶주림에 처박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사실을 전혀 남남이 되어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떤 풍경속의 동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굶주림속에 있는 수원 그 자신의 고통은 정작 그 누구의 연민 따위도 아무런 뜻이 없는 상태의 극한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같은 아귀계는 인간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말고도 인간계 안에서 얼마든지 부딪치게 되는 것을 어쩌랴. 실지로 인간계 대부분의 삶은 굶주림으로부터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인간 역사는 굶주림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굶주림을 벗어나는 일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생존이라면 그것과 함께 수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떨쳐 내던지는 그런 웅장한 자유야말로 진정한 해방과 해탈이 아닐 수 없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해탈이 아닌 모든 상태를 훨훨 불태워 불태운 연기 한가닥조차도 다 소멸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수원의 굶주림은 바로 그런 아귀중생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른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높이 떠 있는 독수리의 그 느릿느릿 떠 있는 동작 이상으로 벗어나야 할 해탈의 자적(自適)이 되어 마땅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 그런 경지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끝내는 하나의 모양(相)으로 그려지지 않을 수 없다. 모양! 이것이야말로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어김없는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모양을 없애라! 모양을 없애라! 하고 외치거니와 그렇게 해서 모양을 없앤 나머지 그 모양 없음(無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없는 상태 자체가 또한 끝없는 모양이 아닐 수 없다(無相而 無無相).

우녀는 멀리 아귀계의 수원을 불러보았다. 아귀계의 중생에게는 뛰어난 청각이 갖추어져 있어 우녀의 소리를 듣고 한동안 수원은 굶주림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었다.

"수원님! 제법 오랜만입니다."

"……."

"수원님!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굶주린다 해서 그 굶주림이 끝나면 바로 일체의 굶레로부터 업기설기 가시덤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뛰쳐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수원님! 나… 나를 알아보겠어요?"

"……."

그런데 수원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는 하나 그의 말이 우녀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이다. 수원의 어떤 소리도 우녀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소리조차도 소리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굶주림 속에 빠져있는 것인지 모른다.

하기야 오랫동안 굶주린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기 전에 흐지부지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 십상이다. 또한 굶주림에 빠져있는 상태는 일단 입을 열어서 말을 주고 받을 최소한의 힘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중생은 중생의 폐허이다.

"물 …."

"? …."

"물 …."

"? …."

"물 …."

"?"

이번에는 민들레 씨앗이 전혀 우연스럽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뜻밖에도 아귀계의 수원이 외치는 소리가 아득히 먼 소리로 들려왔다. 우녀의 밝은 귀가 그 소리를 영파(靈波)처럼 들었다.

아까 우녀가 말할 때는 수원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수원의 소리가 우녀에게 가까스로 들리는 것이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소리를 보는 것(觀音 見音)이기도 한 셈일까.

"물 …."

"?"

우녀는 그 "물 …"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그것은 지금 수원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밥이나 남이 구토해낸 그런 더러운 것보다 차라리 한 모금의 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뜻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언젠가 인담으로부터 들은 바 있는 식수(食水)아귀가 된 수원을 새삼 알아보았다.

우녀는 의아하였다. 지난날 무욕도에서 그렇게도 열심으로 공부하던 수행자가 하필이면 먼 곳도 아닌 인간계의 이웃이라 할 아귀계 중생으로 물의 아귀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굶주림 그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는 어떤 뜻이 깊이 잠겨있는 것은 아닌가. 바위 속에 금이나 쇠가 그 캄캄한 원광석(原鑛石)으로 들어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수원은 식수아귀의 현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목마름의 중생노릇을 언제 일낼지 모르게 하고 있었다.

식수아귀의 모양이야말로 다시 한번 중생노릇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 하고 외쳐대며 여기저기 헤매는 일은 정녕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물이 고인 샘에 손을 대다가 그 물을 지키는 아귀계 귀신한테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아 피투성이로 나딩굴어야 하는 것이 식수아귀의 일이기도 하였다.

전생에 술에다 물을 타서 팔아먹은 일로 식수아귀 노릇을 하는 것인지 다른 업보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식법(食法) 아귀가 있어서 그 아귀도 보아야 하는 우녀는 관히 아귀계 쪽을 향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영식(靈識)이 언짢아졌다.

식법아귀란 또 무엇인가.

마치 충청도 가야산이나 덕숭산 칠갑산 계룡산 등지의 가파로운 바위벼랑과도 같은, 지금도 용납할줄 모르는 험준한 암벽을 타고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그런 아귀의 나날을 사는 중생이다.

살갗은 흡사 바위벼랑처럼 거므뒤뒤하고 거칠다. 눈물은 비오듯이 흘러 내리고 땀도 흘러내린다. 그런데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굶주림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날의 생에서 가당치 않은 명리(名利)에 탐닉한 악덕 정치가나 의사 변락부자 등이 바로 이런 과보를 받고있는 것이다.

"확신(穫身) 아귀?"

우녀는 또다른 아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수원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확신아귀가 있었다.

얼굴도 없다. 물론 얼굴이 없으니 눈도 없다. 손발은 가마솥 다리처럼 되어 있었다. 심장은 무려 4미터나 왕직한데 몸 안은 뜨거운 불길로 가득차서 꼭 작은 용광로 같기도 하였다. 그런 불길이 내장을 마구 태우는데 아무리 태워도 태워야 할 내장은 끝이 없었다.

전생에 채물을 탐한 욕심꾸러기가 받는 마지막 과보로서의 고통인 것이다.

우녀는 그의 섬 암굴 처소의 어둠속으로 돌아온지 꽤 오래이건만 아직도 수원이 있는 아귀계의 이곳 저곳의 참담한 아귀업 공경이 더욱 치열하게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인간계 실상을 비추는 아귀세계
우녀는 자신도 아귀업보에 떨어져
새로 고통의 수행을 할지 모른다는…

아무래도 인간 혹은 인간세계와 가장 밀접한 것이 굶주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드나드는 아귀계야말로 어떤 뜻에서는 인간계의 여러 실상을 우화로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다.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말하고 아귀를 만나면 아귀를 말하도다(逢羅漢說羅漢逢餓鬼說餓鬼).

한 선사가 이런 따위 자유자재한 말을 저 건너에 던져서 탁! 소리가 났다한들 지금의 우녀한테는 수원이 살고 있는 아귀세계의 현실 자체가 인간세계의 현실 그것이기도 함을 조금씩 동터오르는 새벽처럼 밝아지며 깨달을 수 있었다.

아주 비싼 이자를 받아내는 고약한 대금업자도 아귀의 길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고 남의 물건이나 돈을 사취한 자도 아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귀의 이름이 '희망(希望)'이라는 것이 매우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이름이 그렇다는 것일 따름이었다.

실로 못생기고 비참한 몰골이 되어 불단에 차려놓은 오래된 제물 밖에 얻어먹지 못하는 아귀인 것이다.

아귀 가운데는 변귀기귀(變鬼奇鬼)도 있다. 제 대가리를 깨뜨려 뇌수를 찍어먹는 아귀, 제가 낳은 아기를 먹어야 하는 아귀, 무덤 속의 썩은 시체를 먹는 아귀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연안바다의 무욕도와는 달리 난바다 한 복판의 고도에 살고있는 아귀도 있다. 그 섬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시냇물도 아무것도 있을 까닭이 없다. 도대체 그 섬의 유일한 생물이란 아귀 자신뿐이었다.

한여름 더위의 1천배나 되는 무서운 흑열(酷熱)이어서 적도 아래의 여름보다 더 덥다. 아니 더운 것이 아니라 온몸이 타들어가는 뜨거움이고 쇠가 녹아버려 엿가락이 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의 갈증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물 한 방울이 있지 않다. 있는 것은 오직 짜디짠 바닷물이었다.

다만 그런 아귀임에도 이른 아침 부지런히 일어나면 아함이슬 몇방울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아귀는 지난 날의 생에서 불쌍한 사람의 물품을 사취한 업보의 중생이겠다.

또한 빽빽한 나무를 다 베어낸 뒤 맨땅으로 만든 인간도 이런 아귀가 되어 마땅하였다.

똥, 콧물, 피고름 그리고 피와 오물, 시궁창물, 썩은 늪, 오래된 시체가 구더기들이 늘어붙어 있는채로 풍풍 떠있는 듯한 웅덩이에서 사는 아귀는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숫제 배는 커다란 집채인데 입은 바늘구멍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

이렇듯이 아귀계는 그나마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아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들도 있다. 무재(無財)아귀는 먹을 것을 입에 넣자마자 즉각 불길이 되어 아귀의 내장을 마구 태워버리기 시작한다.

우녀는 그 자신도 그런 아귀의 업보에 떨어져서 새로 고통의 수행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 조향숙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
(불교문화예술원 원장)의 생필(眞本)

玉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중화민국 문화대학 국제서법학 전과정 수료
· 중화민국 청계 신문예학회 초청 국제 서법 초대전 출품(2회)대만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개)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예술문화원 원장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 · 242-0255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따끗따끗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장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흥분 또는 노화방지에 …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당뇨병, 심장병, 골프머리가 장해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마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도도자기 조이품 金賞 수상
제12회 국제발명품전시회

옥산가 특허 제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에 응용되어 만족을 얻고 있다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옥인을 찍찍어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주원관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지리산 참 솔 (松葉汁)





예로부터 소나무는 千年을 산다하여 松壽千年이라 했으며 神仙食으로 스님들께서 많이 드셨던 仙食이며,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께서도 생전에 산수가 수려한 곳의 솔잎을 드셨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일보 주최 거북이 마라톤 대회 및 각종 행사의 협찬품으로 선정!

최근에 솔잎이 각종 순환기 계통은 물론 질병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송엽즙은 적송엽(70%)을 영지, 벌꿀, 감초, 겉정콩등과 배합 농축한 자연식품으로 체질에 관계없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松葉汁은 : 각종 스트레스와 과다한 흡연, 음주로 어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신 분, 손발이 저리고 뒷목이 뻣뻣한 경험을 하신 분, 천식 및 잇몸질환으로 인한 구취로 고생하시는 분,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며 고혈압, 중풍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특히 어리를 맑게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 좋습니다.

지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고의 노력끝에 정직과 자존심을 걸고 지리산지락 하동군 청정지역 참토양에서 뿌리 듬뿍 먹고 자란 참솔즙을 소개해오니 전국 어디서나 날너노소 누구나 1日 2-3盒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제조 (주) 코리안헬트 판매 지리산영농조합법인
※ 대리점 및 영업소 모집중

서울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4-3 (경순BD 401호)
공장경합장 (02)247-4667/8 FAX (02)213-3984
B.B. 015-456-8930

藝心으로 맞는 초파일

조성주 금강경 5400자 전각 서예전
류종민 '시간의 궤적' 주제 조각전
김성녀 신민요풍 찬불가CD 발간
김영만 조계사길 판화 409점 전시
임동창 대전사암연 후원 콘서트

서예가 조성주, 국악인 김성녀, 조각가 류종민, 판화가 김영만 피아니스트 임동창씨 등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깊은 불심을 지닌 불자 예술가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봉축무대를 가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금강경 전문 5400자를 무려 10년에 걸쳐 1151개의 돌에 완각한 증견 서예가이며 전각가 조성주씨(46). 그의 방대한 전각 금강경을 볼수 있는 전각 서예전이 9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린다. 작업구상에만 1년, 인재(印材)에 새기기전 종이에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서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3년, 그리고 옥 등 1151개의 전각석에 음 양각으로 경구를 하나하나 새기는데 6년여의 세월이 소요된 작품 1151개와 그것을 찍은 20폭 대형병풍작품이 함께 진열된다. 조씨는 이외에도 금니 부모은중경, 보현행원품 등을 포함 250여 점의 서예작품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김성녀씨의 찬불가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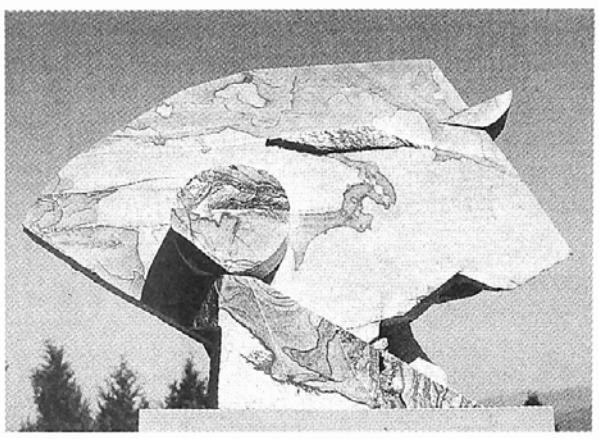
국악인 김성녀씨가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작시, 박범훈교수(중앙대)의 작곡으로 찬불가 CD를 펴 냈다. 이번 CD에는 '거룩한 손' '부처님 사랑' 등 따라 부르기 쉽고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11곡의 신민요풍 찬불가가 김성녀씨 특유의 영롱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담겼다.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날'과 '팔상도' 등 잔잔한 명상을 느낄 수 있는 낭송시도 들어있다. 김성녀씨는 "국악기와 국악창법으로 제작된 본격 찬불가로서 부처님께 헌곡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고 자부심을 나타낸다. 국악관현악단 반주와 중앙불교합창단 30명의 화음이 어우러져 장중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찬불가의 진수를 들을 수 있다.

중앙대 류종민교수(조소과)가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달동안 안성군 청소년수련원내 너리굴미술관에서 '시간의 궤적'이라는 주제로 조각개인전을 갖는다. 돌과 철을 이용하여 생성과 소멸을 주제로, 생의 끊임없는 환원의 모습을 만월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상현과 하현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류교수는 "환이면서 실상인 세계, 사바이면서 정토인 세계, 물질이면서 정신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여기 펼쳐보이는 것은 내 자신이 지나왔던 하나의 궤적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관화가 김영만씨가 오는 15일까지 서울 안국동 로타리, 조계사를 지나 종각까지 6차선 도로 양쪽 1㎞에 관화 작품 409점을 거리에 조성했다. 거리에 걸린 연등과 함께 봉축분위기를 돋궈줄 관화의 내용은 생명과 환경, 통일. 순면에 전통적 감각의 오방색으로 우리의 이웃과 뭇 생명체, 민족을 위해 합장하는 불자들의 비원을 담았다. 크기는 각각 55㎝×125㎝로 조계사일대 거리를 장엄하고 있어 한층 봉축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다.

불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임동창씨가 11일 오후 3시·7시 두차례에 걸쳐 .대덕과학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갖는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달아달아' '또닥또닥'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등 임동창씨 자작곡의 피아노 독주와 함께 관소리명창 전인삼씨, 아쟁 김영길씨, 쟁이골사탑들, 테너 송재용씨. 바리톤 김태선씨 등이 동참해 즉흥연주, 상주아리랑 등을 공연한다.

이경숙 기자


◇류종민作 '월인(月印)'.

불심시심 〈86〉

학의 울음으로 손님 맞다

紅蕖紫萄假春成 붉은 꽃잎 보라 꽃술이 봄을 빌려 오고 (홍파자악가춘성)
杏態桃容各露形 살구 자태 복사 얼굴 각기 다른 모습 보여 (행태도용각로형)
勝句只愁無月色 좋은 글귀에는 달빛 없음이 한스럽고 (승구지수무월색)
甘眠難覺有鍾聲 단잠에는 종소리 울림도 깨닫지 못하다 (감면난각유종성)
花鋪穩錦頻驅蝶 깔린 꽃길에 이슬 비단이 나비를 자주 쫓고 (화포무금빈구접)
柳線煙絲不繫鶯 버들가지는 안개 실이라, 꾀꼬리 붙잡지 못하네 (류선연사불계앵)
終日柴門塵累去 종일 닫힌 사립문 세속 먼지 사절하나 (종일시문진루거)
松林鶴子送三鳴 솔숲의 학울음 손님 불러 오다 (송림학자송삼명)

송계대사의 시이다. '병중에 손님맞이(病中見客)'라 한 세 수 중의 한 수이다. 제목과 걸맞지 않으리만큼 자연풍경의 묘사로 일관되어 있다.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하나 펼쳐보이고 있는 시이다.

울긋불긋한 꽃들에서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봄이 꽃을 빌려 온 것인지, 꽃이 봄을 빌려 온 것인지, 빌리다(假)의 한 글자가 모호한 듯하면서도 묘하다. 또는 작자가 병으로 누워있는 몸이어서 창 밖의 이런 풍경을 빌어서 봄을 의식한다는 것인지.

좋은 시구를 연상했더라도 달빛이 없는 밤이면 무료하기만 하다. 시를 풍월이라 했던 그 시절의 실상을 보여 준다 하겠다. 종소리도 느끼지 못하는 단잠이 이 시인이 병중임을 알게 한다 할 수도 있으나, 시인의 일상적 착상이라 하여도 무난한 시구이다.

꽃길에 깔린 안개는 비단처럼 곱게 장식되어 꽃을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있지만, 가려진 경관이 오던 나비의 길을 가려, 오히려 쫓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버들과 꾀꼬리는 함수의 관계이지만, 아직 힘이 오르지 아니한 실가지는 어디까지나 실 그 자체이기에 꾀꼬리를 잡아두지 못한다. 봄의 아름다운 풍경이기는 하나 이 풍경 뒤에 숨어 있는 아쉬움도 만만치 않음을 시인의 예리한 시각으로 파헤치고 있다.

끝 연에서 종일토록 닫혀있는 사립문이란 표현에서 작자의 병중심회를 암시하고 있으나, 학의 울음이 쓸쓸함을 위로하면서, 아울러 이 학의 울음이 자신을 대신해 손님을 맞는 반가움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전편이 봄의 경치를 여실하게 보이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적조함이나 찾아주는 손님의 반가움을 잘 투영시켰다 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봉축음악회 감동…환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윤식)이 주최한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음악회'가 29일 앰버서더호텔 대연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

한마당 봉축음악회는 김홍국씨가 사회를 맡아 김덕수패의 사물놀이, 명창 안숙선씨의 '심청가', 김태곤씨의 찬불가 공양 등으로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호응을 얻었다. 또 동국불교관현악단이 '영산회상' 중에서 '염불타령'을, 목정배교수와 덕신스님의 창작시를 박범훈교수가 곡을 붙인 찬불가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 '부처님 오신 날' 등을 김성녀씨가 불러 부처님 오심을 봉축했다.

「108국악단」 창단 대구 관음사

불교계 최초의 사찰국악단이 탄생한다. 대구 관음사·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12일 기존 찬불합창단과는 별도의 '108 국악단'을 구성해 창단법회를 갖는다.

108국악단은 관소리를 전공한 사람과 국악에 관심있는 우바이 54명 우바새 54명으로 구성된다. 국악단의 산파역은 국악인이며 택시운전기사인 임재욱씨(44·본지 112호4면 보도). 임씨는 15년전 국악인 원광호선생으로부터 관소리를 사사받은 후 판소리학원을 운영하는 등 국악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신심깊은 불자이다.

사찰단위 첫 결성
우바이·우바새 54명씩

108국악단은 창단후 6개월간은 북 장고 관소리 등 국악의 기초를 다진 다음, 본격적인 작품연습에 돌입하게 된다. 또 대금 가야금 아쟁 무용 등을 별도로 이수하여 입체 관소리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불교와 국악은 너무나 가깝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통음악에 소홀해 왔습니다. 불교와 국악을 접목하여 소리를 통한 깨달음의 추구와 불교음성공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창단 기념공연도 가질 예정이라는 임재욱씨는 "심청가 흥보가 등 기존 판소리 공연뿐 아니라 불교작품을 판소리로 만들어 공연하겠다"는 포부도 밝힌다. (053)473-5802

문화 소식

안광석씨 '전각·서법展'

9일부터 연대박물관



청사 안광석씨의 '전각 관각 서법' 전시회가 9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각 및 서법예술의 대가 안광석씨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연세대 박물관내 '청사기념실' 오픈을 기념한 이번 특별전에는 안씨의 전각 920방 판각 27점 서예46점 인보 5권, 문방구 및 제작도구 등 총 1천여점이 전시된다.

문화재그리기 대회

경주박물관은 오는 19일 오후 1시40분부터 4시까지 경주박물관 전시실 및 정원에서 제13회 어린이 전통예술 실기대회를 갖는다.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재에 대한 그리기 만들기 솜씨를 겨루게 함으로써 문화재사랑을 드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문화재 예술실기대회의 참가부문은 그리기와 찰흙빚기이다.

참가신청은 10일까지. (0561)772-5194

부루나합창단 창단

수덕사 서울·경기 포교원 서천사(주지 진석)는 7일 오전 10시30분 광명시 철산동 캠퍼스카페에서 서천사 부루나합창단 창단식을 갖는다.

도솔사 국악한마당

양구 백두산 법당 도솔사(주지 함현준 법사)는 봉축기념 국악 한마당을 10일 오후 7시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악한마당에는 중앙대국악실내관현악단이 참여해 관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가야금병창, 흥보가 등 관소리와 살풀이춤, 사물놀이 등이 소개되며 장병들이 좋아하는 군가와 유행가가 국악으로 편곡돼 공연될 예정이다. (0364)481-5806

홍희표·이국자씨 11회 동국문학상 수상


◇홍희표씨


◇이국자씨

동국문학인회(회장 홍기삼)가 제11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살풀이〉 등의 시집을 펴 낸 중견시인 홍희표 교수(목원대)가 시 〈낡은 연인〉으로 시부문, 〈베스트셀러 극장〉등 다수의 드라마를 집필해 온 이국자씨가 소설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9일 오후5시30분 동국대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내고장 문화재 지키자" 명예관리인 전국대회

문화재 관리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재관리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문화재 명예관리인 전국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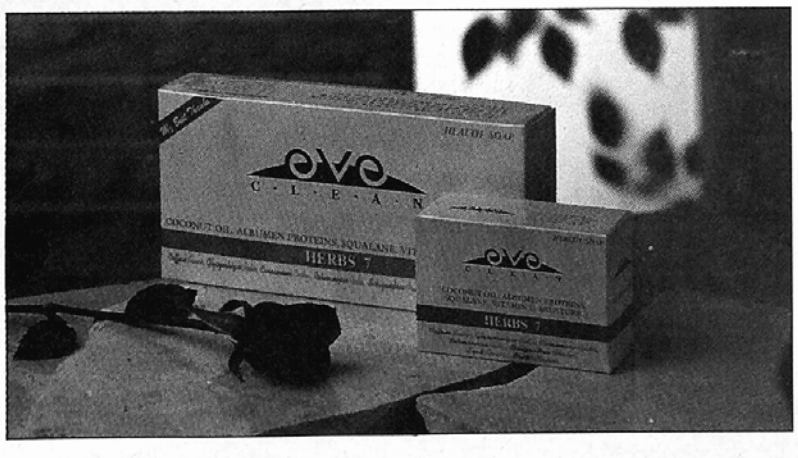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부가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문화재관리인대표 196명을 초청해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문화재관리 실무교육 △명예관리인 수범사례발표 △문화재 현장학습 △무형문화재 실연 △건의사항 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관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다.

문화재명예관리인 제도는 지난 85년부터 시행돼 문화재 도난, 훼손 등을 예방하고 보호 관리하는 등 내고장 문화재 지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n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 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등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evo C·L·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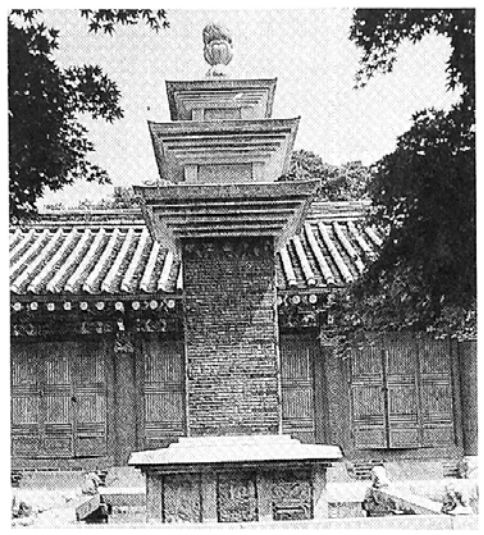
부모은중경·우란분경·육방예경·대승본생심지관경·옥야경·선생경·승만경·관무량수경·무량수경·범망경·자애경

가정의 달 경전 읽으며 가족화목

부모 형제 자비행 첫 대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이 들어있어 가정의 소중함을 한층 되새겨 보게하는 달이다. 가정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의 근간이 된다. 가족간의 사랑과 효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설하고 있는 경전을 가족들이 함께 읽어보는 것도 부처님오신날(14일)이 들어있는 5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효경전인 〈부모은중경〉〈우란분경〉을 비롯 〈육방예경〉〈대승본생심지관경〉〈옥야경〉〈선생경〉〈승만경〉〈관무량수경〉〈무량수경〉〈범망경〉〈자애경〉등에서 효와 가족의 화합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다는 것을 10가지로 설명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가르치는 널리 알려진 효경전이다. 〈우란분경〉은 부처님의 10대제자 가운데 한사람인 목련존자의 예를 통해 불교적인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육방예경〉은 세속적인 인간관계의 예의범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경전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등을 설하고 있다. 부모은(父母恩) 중생은(衆生恩) 국왕은(國王恩)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는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도 부모의 은혜를 으뜸이라고 말한다.

〈관무량수경〉에서는 누구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봉양해야하며 정토왕생에는 효도가 으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친척사이에 서로 경애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무량수경〉은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또 〈범망경〉에서는 부모형제가 돌아가신 날에 법사를 청해 보살계율경인 〈범망경〉을 강설하여 망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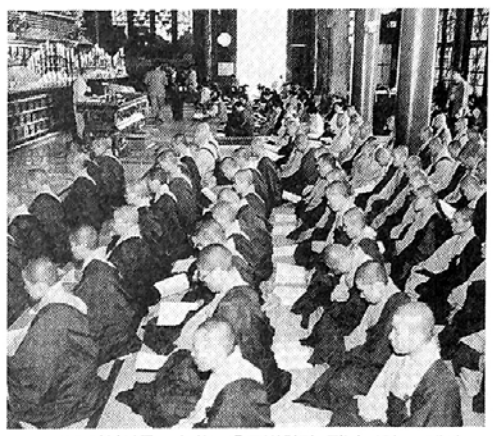
◇효심의 근본사찰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 있는 부모은중경탑.

"효도는 정토왕생의 길"

이상의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 가르치는 효는 그 근본을 자비에 두고 있다.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서원밑에서 가정윤리의 근간인 효와 화합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자비행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 부모형제이며 자비를 바탕으로 한 효가 실현되는 기초 터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일상용어와 쉬운 비유로 따뜻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들 경전은 현재 단행본과 또 한글대장경 영인본 등으로 선보이고 있다. 〈부모은중경〉의 경우 사경책을 비롯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도 나와 있어 가족과 함께 가까운 서점을 찾아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초의선사를 기리는 추모법회가 지난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책으로 보는 '茶禪一味'

우리나라 차문화를 중흥발전 시킨 초의선사가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됨에 따라 차와 초의 선사를 기리는 많은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초의선사의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사상을 깊이 체득케 하고 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차 관련 도서를 표로 소개한다.

◇茶 관련 도서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茶의 선	석 성 우	토 방
다도학	김 명 배	학 문 사
茶의 과학과 문화	김 종 태	보 림 사
茶와 瞑想	이 중 해	초 의
茶와 건강	유 태 종	둥 지
전통차	강 우 석	사회교육연구원
차의 고향을 찾아서	연 호 택	대광출판사
한국다예	석 용 운	초 의
茶의 미학	고 세 연	초 의
茶이야기 禪이야기	석 명 정	대원정사
한국차생활총서	감 승 희	서울출판
한국茶文化	정 영 선	너럭바위
茶 우리차와 건강	윤 기 식	성 림
차문화유적답사기 상·중·하	김 대 성	불교영상
茶는 인간을 멋있고 향기롭게 해준다	천 병 식	초 의
茶요리	이 연 자	초 롱
차한잔	박 희 준	신 어 림
차와 시와 그림	석 성 우	다 보
다도철학	정 영 선	너럭바위
초의선집	김 봉 호	경 서 원
초의선사전집	용 운	아세아문화사
중국의 다도	김 명 배	명 문 당
茶道學論攷	김 명 배	대광문화사
禮茶論	손 민 영	보 림 사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기람기획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기도	일 타	효 림
4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둥 지
5	그까짓 살 좀있으면 어때	학 림	여시아문
6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7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8	고요한 숲속의 연못	김 열 권	고요한소리
9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10	힘든세상 도나 닦지	효 림	가 서 원

구입문의:(02)737-0695

출판가소식

초파일 특화코너 책방여시아문 31일까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책방 여시아문이 5월 한달간 '부처님오신날 불서 특별판매전'을 마련한다.

특별판매전에는 부처님 일대기, 경전, 법어집, 기초개론서 등을 비롯 50여종의 불교관계서적을 전시 판매한다. 또한 재미있는 만화경전,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쉽게 배우는 교리등 어린이를 위한 코너도 준비되었다. (02)737-0695

책방 여시아문은 또한 부처님오신날인 14일에는 마포 석불사(주지 법운)에서 하루동안 불서야외특별판매전도 실시할 계획이다.

'용인 문화유산 총람'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발 앞서 향토문화연구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온 용인문화원(원장송재권)이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을 간행했다.

선사시대 유물유적에서부터 고분, 사적지, 미술 공예 민속자료, 기념물 등 방대한 내용을 총 6백74쪽에 담았다.

이 책은 관련 사진과 함께 용인지역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천과정등을 상세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향토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다.

〈비매품〉

'금강경 전서' 발간

승가대학원, '…오가해'·원전·번역본 등 묶어



조계종 교육원 부설 승가대학원(원장 무비)에서 전통강원의 교재로 사용되는 금강경오가해와 산스크리트 원전, 그리고 금강경의 구마라집, 보리류지, 진제, 급타, 현장, 의정등이 번역한 여섯가지 한역을 한데 묶은 〈금강경 전서〉를 발간했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면서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강경〉이다.

부처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방의 말로 나의 가르침을 설하라' 하셨다. 중국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경전번역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산스크리트 원전의 한문번역시 어순의 변경, 한역의 문장수식의 한계, 반복되는 문장의 삭제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여러 번역가들에 의해 번역되온 금강경을 한자리에 모아 상이한 언어구조로 인해 미진한 부분을 다른 번역본들과 대조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전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 당시의 역경가들의 시대적 언어와 문법 그리고 사상적 경향도 엿볼 수 있게 했다.

법화경 결집 교리·사상적 배경 고찰

법화경 연구 서성우 지음

와제의책



법화경 방편품을 대소승의 정법논쟁이라는 시대상황과 연계시켜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쓴 법화경 연구서.

동국대와 승가대 강사인 성우스님은 법화경의 성립시기로 추정되는 기원 1~2세기 전, 대승불교의 기원부터 대소승의 정법논쟁이 야기된 일련의 과정과 법화자단의 성립등 새로운 불교운동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또 법화경 일승사상의 전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편품을 법화경의 중핵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법화경 결집의 교리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해 법화경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는 입문서로서의 역할도 할것으로 기대된다.

〈운주사 1만원〉

새로나온 책



▲명산답사기=산을 인품의 대상으로 여겨 가까이하기를 즐긴 옛선비들의 명문을 한자리에 모아, 시대별 내용별로 정리한 책.

백두산,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북한산등 총 15편의 답사기행기가 실려 있다. 이곡, 임춘, 석천인, 이규보등이 쓴 고려시대의 작품에는 명산에 얽힌 사찰의 유래나 불교적 고증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솔출판사 7천5백원〉

▲절로 절로 저절로=경남직장불교운동본부와 불교신행학교 지도법사로서 대중불교 생활불교운동을 통해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자원스님의 수상집.

생활속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불법의 진리를 담담한 문체로 표현해 우리모두가 더불어 사는 화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5천5백원〉

▲생명문화기행=건강에 유익한 토속 먹거리와 무공해 명산대천을 소개한 생명문화기행서.

자연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이 책은 문명사회의 쳇바퀴속에서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기쁨을 선사해 준다.

〈태일출판사 7천5백원〉

▲우리의 과학문화재=세계에 자랑할만 한, 우리조상들이 만들어 남긴 천문도, 해시계, 물시계, 도량형 등 1백40여점의 과학기술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또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는 물론 문화사적 의미까지 자세히 밝혀놓았다.

컬러사진·용어해설 등을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서해문집 1만2천원〉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스님/법어집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경전 공부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팔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

의상 '일승발원문' 全文 발견

장충식 교수, 나옹계첩 게송서 전반부 28수 또 찾아

8일 '해인사 복장유물' 세미나서 발표



의상스님(675~702)의 저술로 알려진 〈의상화상일승발원문〉(義相和尙一乘發願文) 전문(全文) 48수가 최근 장충식 교수(동국대 고고미술사)에 의해 확인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의상의 〈일승발원문〉은 장교수에 의해 20수만 확인됐었는데 이번에 28수를 새롭게 발견, 전문 48수가 밝혀진 것.

우리나라 최고 고승중 한 분인 의상스님의 현전 저술이 〈십문간법관〉 〈입법계품초기〉 〈소아미타의기〉 〈화엄일승법계도〉 〈백화도량발원문〉 등 5종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이번에 발굴된 〈일승발원문〉은 의상스님의 화엄사상과 종교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장교수는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인 지공화상의 각경계첩을 연구하기 위해 나옹계첩(권상로 박사가 〈불교〉지 5호에 소개, 1924년)과 비교-연구하던 중 나옹계첩 뒷면 발원문 안의 28수 게송이 〈금자화엄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의상화상일승발원문'과 연이어진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래된 나옹계첩은 1327년 지공스님이 내린 계첩으로 절첩(折帖, 9.6×6.6㎝) 형식.

장교수는 "지난 82년 〈금자화엄경〉에서 '의상화상일승발원문'을 발견할 당시 발원문의 전반부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불보살에 귀의하겠다는 귀경문(歸敬文)을 찾을 수 없어 기이하게 생각했다"며 "나옹계첩의 발원문 28수 게송은 〈금자화엄경〉의 '일승발원문'과 형식이 같은 칠언절구(七言節句)로 삼보에 대한 귀경례(歸敬禮)를 표할 뿐만 아니라 두 발원문 모두 화엄의 도리에 입각한 발원을 서원하는 등 동일인의 문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교수는 "나옹계첩에서 〈무생계경〉 사경 뿐 아니라 의상의 〈일승발원문〉을 필사한 것은 고려불교의 수행자세를 알게 해주고 의상의 화엄학과 종교관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일승발원문〉의 완벽한 전문은 확인됐으나 〈조선고적도보〉에 실려있는 나옹계첩의 행방을 찾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장충식교수의 논문 '해인사 금자무생계법과 의상의 일승발원문'은 8일 동국대에서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 고찰'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홍윤식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가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품의 역사적 의미' 허흥식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가 '불복장과 각경계첩의 봉안배경' 권영숙교수(부산대 의류학과)가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등을 각각 발표하고 정영호 유희경 김상현 채상식 김길웅 김형우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증욱 기자

의상화상일승발원문 전문 48수

새로 발견 28수

稽首歸依恒沙佛 頂禮圓滿契經海
歸依一切諸賢聖 願賜慈光爲證明
無始以來至今身 由貪瞋癡動三業
知不知作及自作 教他人作見聞隨
所造十惡五無間 八萬四千恒沙罪
於三寶前盡懺悔 願令除滅諸業障
願我臨終無苦難 面見彌陀生極樂
成就普賢廣大行 盡未來際度衆生
普願法界諸衆生 永除煩惱所持障
勤修十佛普賢境 衆生界盡總成佛
惟願生生世世處 不墮三途八難中
願同善財發大心 願比文殊甚深智
願得觀音大慈悲 願修普賢廣大行
願證舍那大覺果 願度法界諸衆生

82년 발견 20수

惟願世世生生處 三種世間爲三業
化作無量供養具 充滿十方諸世界
頂禮供養諸三寶 及施六道一切類
如一念塵作佛事 一切念塵亦如是
諸惡一斬一切斬 諸善一成一切成
值遇塵數善知識 廳受法門無厭足
如善知識發大心 我及衆生無不發
如善知識修大行 我及衆生無不修
具足廣大普賢行 往生華藏蓮花界
親見毘盧遮那佛 自他一時成佛道

불문硏 불교용어 英譯 표준안 마련

문체부 '국어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 혼용 우려

최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 산하 번역위원회가 '불교용어 영역 규정'을 준비중인 가운데 문화체육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국어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밝혀 불교용어의 영역화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문화硏은 지난 22일 권기종교수(동국대) 테데스코교수(세종대) 김용표 연구원(불교문화硏) 등 10여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미국인 발음에 근거한 '머큐 라이샤워 체계'를 기본 표기법으로 정하고 시대·지역·직책 등의 서술 방법도 구체적으로 밝힌 '영역 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최근 개정-공개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 원칙에 따라 영문화한 전자법(轉字法)을 채택해 불교문화硏의 '영역 시안'과 표기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표기법의 상이점은 특히 'ㄱ·ㄷ·ㅂ·ㅈ'의 자음과 'ㅓ·ㅜ·ㅡ'의 모음에서 찾을 수 있다. '머큐 라이샤워' 방법은 'ㄱ·ㄷ·ㅂ·ㅈ'를 'k·t·p·ch'로 쓰는 반면 개정안은 'g·d·b·j'로 표기하고, 또 '머큐 라이샤워'가 'ㅓ·ㅜ·ㅡ'를 'ŏ·u·ŭ'로 표기하지만 개정안은 'e·wu·u'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박사는 "머큐 라이샤워 표기법은 반달점 등의 특수부호를 사용해 출판이 까다롭고 국어의 현실음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권 외국인은 발음하기 조차 힘들다"며 "행정구역·도로표지판·문화재명·해외출판물 등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불교문화硏는 "영역 시안을 보완해야겠지만 '머큐 라이샤워'를 기본 표기법으로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영역-발간될 불교관련 출판물의 불교용어와 불교문화재명(名) 등이 어느 규정을 따르느냐에 따라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상이해 한국불교의 학술·포교 등에서 영역 표기상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욱〉

◇불문硏 - 문체부 로마자 표기법 차이

예	불문硏 영역 시안	문체부 국어-로마자 개정 표기법
원 효	Wŏnhyo	Wenhyo(Weonhyo)
대 웅 전	Taeungŏn	Daiwungjen(Daiwungjeon)
선 불 교	Sŏn Buddhism	Sen Buddhism(Seon)
스 님	Sulim	Sunim
유 점 사	Yujŏmsa	Ujemsa(Ujeomsa)
무량수전	Muryangsujŏn	Muryangsujen(Mulyangsujeon)
극 락 전	Kungnakchŏn	Guglagjen(Gugragjeon)
다 보 탑	Tabot'ap	Dabotop
석 굴 암	Sŏkkuram	Seggwuram(Seoggwulam)

※ ( )는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2안

학술단신

7회 가산학술상 공모
30일까지 논문등 마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산)이 제7회 가산학술상을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불교학 및 관련분야 연구를 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발표 논문·미발표 논문초록·중장기 연구계획서·추천서 등을 오는 5월30일까지 제출해 응모할 수 있다.

이번 학술상의 수상자는 연구비 지원은 물론 각종 학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며 가산불교문화硏의 '전문연구위원'과 '불교대사전편찬 및 학보편집위원' 등으로 위촉된다. (02)765-9602

'생태주의와…' 강좌개설
불교환경연구원, 8일부터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이 5월8일부터 매주 목요일(7시30분) '생태주의와 에코페미니즘'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는 정유성교수(서강대)가 '인간해방을 위한 남성학과 신여성론' 정순영씨(한국여성개발원)가 '국제 여성운동의 동향과 과제' 정순영씨(한국여성개발원)가 '환경위기시대의 여성의 역할과 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비롯해 6월26일까지 8차례의 강좌가 개설된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7월3일 '에코페미니즘, 여성운동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도 개최할 예정이다.

(02)765-6324

나와 경전 6

금강경



심 재 열
〈원효사상연구소장〉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

모든 것은 허망하느니, 만약 모든 형상이 진실상이 아님을 보면 그 즉시 여래를 보리라는 뜻의 이 사구게는 〈금강경〉의 핵심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불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알고, 집착하고 번뇌한다. 〈금강경〉은 우리중생의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바로 보고 '나'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가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사구게를 암송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금강경 사구게를 수지 암송하도록 늘 권유하고 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상징이고 경전중의 경전이다. 대승불교권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자가 불문에 처음 들어가는데 의지하는 경전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강경〉이다.

한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금강경을 제일의 경으로 신봉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다.

나 또한 오래전 청담스님에게서 〈금강경〉 강좌를 세 번이나 공부했다. 또 이종익박사에게 〈금강경오가해〉를 수강하기도 했고, 천태대사의 〈금강반야경소〉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다경(金剛般若波羅蜜經)〉의 약칭으로 〈금강반야경〉이라고도 한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해공(解空)제일이라고 불리운 수보리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낼 적에 그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항복받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설한 것으로 〈고려대장경〉 권 5에 수록되어 있다. 대승경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경전인 〈금강경〉은 원시불교의 연기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경〉의 핵심이 되는 공사상이 그 주축이 되어있다.

구마라십 삼장이래 선종 교종을 통틀어 범종파적으로 〈금강경〉이 경전 가운데 제일 많이 독송, 연구된 이유도 이런 점에 있다 할 것이다.

〈금강경〉은 한국불교 선종계통에서는 보조스님 이후 조계종의 지도이념으로까지 등장했으며 보조스님의 제자 진각국사는 '제불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이 모두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진각집(眞覺集)〉에서 설하고 있기도 하다. 선종과 〈금강경〉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6조 혜능대사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금강경〉 사구게를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아 5조 홍인대사로부터 〈금강경〉을 통한 전법인가를 받은 이래, 〈금강경〉은 선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 되었다.

고려조 제일의 선지식으로 천태종을 개립(開立)한 의천 대각국사는 원효선사의 금강경소를 읽고서야 비로소 〈금강경〉의 깊고 바른 뜻을 깨우쳤음을 다음과 같이 찬탄했다.

"뜻으로 한 말씀 글이 아니기에 불심에 개합하나니, 분황(元曉)의 경문 관석이 홀로 이를 감당하셨네. 불심을 몰라 외로웠던 나의 다생 어두운 밤과 같더니, 오늘 원효소 만남이여, 하늘에서 바늘 던져 겨자씨 맞힘과 같아라"

무학(無學)대사의 상수제자인 함허득통화상은 선과 교를 함께 정통한 조선조의 마지막 선지식으로 유명한 〈오가해설의〉를 저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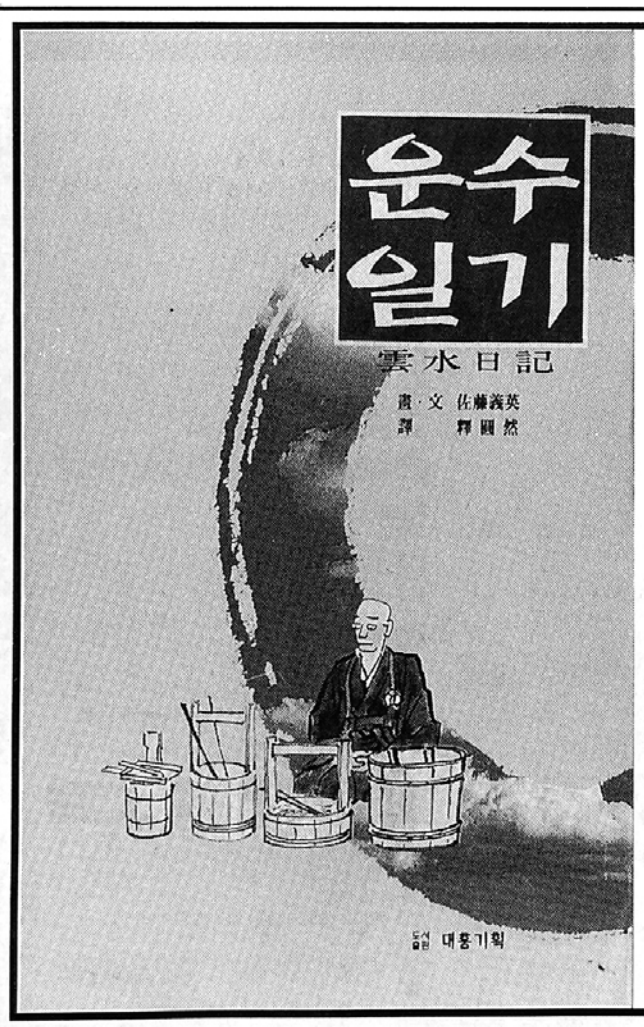
"모든 형상 진실아님보면 여래보리라"
사구게 늘 암송…깊은 뜻 수행지침

이 설의는 금강경과 그 오가해의 오묘한 경지를 남김없이 밝혀 놓았을 뿐 아니라 한차원 높은 교리체계를 실어 줌으로 많은 〈금강경〉 주석서 가운데 금자탑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일찍이 나는 배운 것을 토대로 금강경에 관한 책을 한권 간행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래서 아침저녁 지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책 간행에 힘썼는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얻어 내가 하고자 했던 바를 성취한 적이 있었다.

〈금강경〉과 관련한 수많은 영험담 가운데 〈금강경〉 독송으로 생명을 연장한 이야기가 있다. 중국 당나라시대 반야원의 수도승이었던 법정이라는 스님은 하루 37번씩 〈금강경〉을 읽었다. 스님은 나이 60세에 이르러 죽어가면서도 지성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한 염라대왕이 스님에게 30년 더 수행하고 중생을 교화한 뒤에 오라며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는 특전을 받아 스님은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 〈금강경〉을 더욱 열심히 독송하고 중생포교에 힘쓰다가 30년 후인 90세에 입적했다고 한다.

오늘날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는 불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 반갑다.



"求道의 길"

雲水日記는 日本의 한젊은 僧侶가 人生一代의 큰 뜻을 품고 求道의 길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 修道過程을 그림을 곁들여 가며 재미있게 日記式으로 소개한 것이다.

저자 佐藤 義英
平田 精耕
加藤 隆芳
역자 釋 圓 然

정가 6,000원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주·야 七一一·四三七〇 五四三·七三〇六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간경화·정신질환·만성신장병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대체의학
전화:0552-82-8128, 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시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집수성 훈련(ST) 쇼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안내

위 치 : 평택 대로변 서울에서 1시간이내 · 시장, 터미널, 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평 수 : 57평
보증금 : 5000만원
시설비 : 1000만원(최고시설)
연락처 0336)665-6686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소재
■ 대지 760평, 건평 108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10평)
■ 신축 2년 6개월 ■ 객실 10개, 보일러시설
■ 해외이주로 파격적인 가격 - 1억 5천
연락처 0373)374-7417

구 함
위치 : 서울, 서울 근교
예정 : 2~3억원
연락처 : 02)876-7996

● 건 물 : 23평
● 금 액 : 1300만원
주 소 : 동두천시 관암동 산 43
연락처 : (0351)867-0610 (02)873-1752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사, 장적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스쿨버스 통학가능
3. 충북지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전화(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판대교학대학원

●유지원 선생 구함●
■경력자 우대
■불자 환영
■반야사 불교대학
■서울 중랑구 상봉1동 62-1
연락처 : 02)434-7806 02)208-7806

포교당안내

● 위 치 : 경주시 동방동 600번지
● 시 설 : 주택 30평, 창고 60평 배나무 1500수, 자연녹지 5000평
● 가 격 : 평당 10만원
● 경주시에서 불국사방향 중간도로 접하고 있음
연락처 0561-745-7768

위 치 : 부산 동상동 시장통 사거리
평 수 : 24평
보증금 : 1500만원 월세15만원
시설비 : 가격절충
연락처 051)531-0313 011-851-8224

운영하실 분
▶ 위 치 : 일산 화정지구
※ 자세한 사항은 군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344-970~9628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평 수 : 17.5평
가 격 : 1억 (가격절충)
♠ 연락처 02)363-9626

구 함
위 치 : 서울시내
◆ 지하철 역세권 지역
◆ 기존 포교당
◆ 포교당 가능한 건물
연락처 051)518-3555

▶ 위 치 : 대구시 두류동
▶ 평 수 : 51평, 3층
▶ 보증금 : 2천만원, 월40만원
▶ 수련장 가능
연락처 : 053)626-7220 053)656-8808

기타정보

천부경
81권의 화엄경을 81자의 천부경에
도서출판 바로보기 ☎ 597-2460
<법문 테잎도 나와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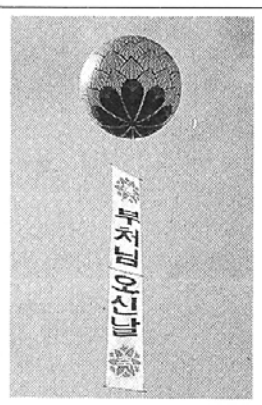
病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외룡산 용님선원
●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강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신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다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서,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丁 합장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 원 사
연락처: 0331)262-0606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현재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혹열자(심은때)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청과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혼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봉축행사의 대미를 이루는 장엄물
○하늘에 핀 연꽃○


부처님 오신날 축제기를 맞아 각종 축제의 장엄물이 축제 무드를 한층 북돋우고 있다. 이러한 장엄물을 개발 시판 해오고 있는 불교용품업체인 삼전불사(대표 김상길)가 교계업체 최초로 찬불(讚佛)애드벌룬을 개발해 큰 호흥을 얻고 있다. 삼전불사 김상길 대표는 "봉축행사를 장엄하게 꾸미고자 고심하던중 하늘에 뜬 연꽃에 착안 애드벌룬을 제작하게 됐다. 이 찬불 애드벌룬은 비단 봉축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불교 행사일에 전법 홍포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판중인 찬불 애드벌룬은 지름 2.8m의 대형 기구형으로 연질 고급 PVC 재질에다 특수 실크인쇄로 표면을 마감하여 여러차례 사용할 수 있으며 보급가격은 48만원이다.
연락문의 : 삼전불사 (02)732-6095

단전 자동 氣 운동 열풍!

에로부터 신선이 된다고 하는 최고의 건강법으로 알려진 단전회음 "氣" 운동열풍이 인기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단전,회음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자리에 누워 스위치만 누르면 20분간 짜릿짜릿한 미세진동파가 단전과 회음을 운동시켜 준다. 단전은 인체 에너지(氣)의 중심이며 단전운동을 통하여 20대 못지않는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대소변이 시원시원해지는 *단전, 회음 건강운동기!!*
■ 장벽에 수십년 묵은 숙변도 7~15일이면 확실히 빠져나오고 소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서 피로가 없어지고 얼굴색깔이 달라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 단전 · 회음운동으로 精氣가 강화됩니다.
⊙ 책자를 무증해 드립니다
韓國傳統 氣 健康 硏究會
Tel. 02)455-6944(代)

살아있는 法語 , 살아있는 佛教史料 !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부처님 오신 날 특선 佛書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특선 佛書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신 판매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부처님 일대기
고타마 붓다의 생애/E.H. 브루스터/6,000원/시공사
보살은 누구인가/법희연구원/3,000원/정우서적
부처님의 생애/미야사까 유우소우/5,000원/불교시대사
부처님의 생애/박경훈/6,000원/불광
부처님의 생애/한정섭/6,000원/불교대학교재
붇다(팔상록)/고성훈/7,000원/우리출판사
불타 석가모니/와다나베 쇼오꼬/4,000원/샘터
불타의 세계/김지견/18,000원/김영사
붓다 그 생애와 사상/마스다니 후미오/4,000원/대원정사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김형중/5,500원/밀알
석가여래행적송/법성/15,000원/조계종출판사
성중성 부처님 팔상록/백용성/6,000원/홍법원
팔상록/오고산 외/12,000원/보련각
싯타르타/헤르만 헤세/3,000원/범우사
붓다차리타/김달진/6,000원/고려원

고승 일대기 · 법어
경허선사/이홍우/6,800원/민족사
경허집/명정/8,000원/모아
고봉화상 선요어록/통광 역주/8,000원/불광
구산선문/구산문도회/21,000원/불일
나옹스님 어록/무비/5,500원/민족사
방한암 선사/김호성/5,000원/민족사
백운스님 어록/무비/10,000원/민족사
보조국사전서/지눌/5,500원/고려원
보조법어/심재열/10,000원/보성문화사
부처님이 계신다면/탄허/5,500원/교림
살아있는 부처/민집부/8,000원/불교명상
삼소굴 소식/명정/20,000원/극락선원
의상 그의 생애와 사상/김두진/15,000원/민음사
진정국사와 호산록/허흥식/15,000원/민족사
진흙소의 울음/경허/7,000원/홍법원
참선의 길/대혜보각선사, 장순용/7,500원/고려원
청산의 메아리/불교전기문화(연)/4,000원/불교영상
청허당집/동국역경원/12,500원/동국역경원
평상심이 도라 이르지 말라/동산 동봉/17,000원/불광
한암일발록/한암대종사문집/25,000원/민족사
한암집/명정/6,000원/모아
효봉법어집/효봉문도회/15,000원/불일
달마어록/야나기타 세이잔/7,500원/김영사
임간록 上下/백련선사간행회/上4,000원, 下5,500원/장경각
마조록, 백장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임제록, 법안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위앙록/백련선사간행회/4,500원/장경각
조동록/백련선사간행회/4,500원/장경각
운문록 上下/백련선사간행회/上4,500원, 下5,000원/장경각
양기록, 황룡록/백련선사간행회/4,500원/장경각
조주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설봉록/백련선사간행회/7,000원/장경각
현사록/백련선사간행회/7,000원/장경각
나옹록/백련선사간행회/7,000원/장경각
태고록/백련선사간행회/5,500원/장경각
나호아록/백련선사간행회/5,500원/장경각
고애만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산암잡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훨훨 털고 같이 가세/서암/6,800원/정토출판사
위대한 자기의 발견/서암/6,800원/정토출판사
마음 벗 그리고 땅/서암/6,800원/정토출판사

입문서, 개론서
100문 100답(불교입문편)/편집부/4,000원/대원정사
100문 100답(불교교양좌편)/편집부/7,000원/대원정사
기도/일타/5,000원/효림
근본불교의 이해/마스다니 후미오/5,500원/불교시대사
깨달음의 거울/법정/5,000원/불일
깨달음의 노래/이기영/5,000원/한국불교연구원
마음 닦는 길/지눌, 강건기/4,000원/불일
밀교의 세계/정태혁/8,000원/고려원
바웃드하 불교/나카무라 하지메/4,500원/김영사
부처님 말씀(1~5)/윤제형/15,000원/영산법화사
부처님 말씀/성열/13,000원/현암사
불교개론/마쓰야 후미오/5,000원/현암사
불교교리개론/가베코다 이에이, 고명석/6,000원/불교시대사
불교 기초 입문/장인식/5,000원/한국불교동신대학
불교 길라잡이/곽철환/18,000원/시공사
불교로 가는 길/원운/7,500원/정서원
불교를 알기 쉽게/종범/5,000원/밀알
불교를 찾아서/석지현/8,500원/일지사
불교와의 만남/강건기/6,500원/불지사
불교의 기초 교리/심재열/5,000원/선문출판사
아함경 이야기/마쓰야 후미오, 이원섭/5,000원/현암사
화엄경의 세계/다마키 고시로, 이원섭/5,000원/현암사
불교의 체계적 이해/고익진/7,000원/샘터
불교입문/다까사끼 지끼도/3,500원/우리출판사
불교입문/신법인/5,000원/김영사
불교입문/조계종포교원/3,500원/조계종출판사
불교학 개론 강의실(입문편)/장휘옥/5,000원/장승
불교학 개론 강의실(교리편)/장휘옥/5,500원/장승
불교학개론/김동화/7,000원/보련각
불교학개론/교양교재편찬(위)/6,000원/동국대출판부
붓다의 가르침/원폴라 라훌라/4,500원/대원정사
붓다 해석 실천/일지/4,000원/불일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7,000원/교보문고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정화/8,000원/장경각
생활 속의 기도법/일타/8,000원/효림
선가귀감/서산대사, 이종익/9,000원/보성문화사
선문찰요/혜암/5,000원/현문출판사
시작하는 마음/일타/5,000원/효림
한글 아함경/고익진/12,000원/동국대출판부
알기 쉬운 불교/편성제작국/6,000원/불교방송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권영한/15,000원/전원문화사
유마힐 소설경/이기영/8,000원/한국불교연구원
육조단경/광덕/12,000원/불광
육조단경/탄허/5,000원/교림
이것이 불교다/K. 스리 담마난다/5,000원/대원정사
참선 교육/현담/6,000원/수선출판사
천수경 이야기/김호성/4,500원/민족사
천수경/무비/4,500원/불일
한국불교사/김영태/15,000원/경서원
한국불교사 산책/김상현/7,000원/우리출판사
한국불교의 법맥/성철/5,500원/장경각
한국불교통사/정의행/10,000원/한마당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E. 콘즈/8,000원/세계사
현대불교 입문/마츠다니 후미오/5,000원/현음사
화엄의 사상/카마타 시게오, 한형조/4,300원/고려원
나의 부처님 공부/김정아/5,500원/문학아카데미
반야심경 이야기/법륜/7,000원/정토출판사
해설 반야심경/청담/5,000원/보성문화사

금강경(조계종 · 법륜종 · 조동종 · 태고종)
금강경 대강좌/청담/23,000원/보성문화사
금강경 대강좌/이계열/8,000원/여시아문
금강경/오쇼 라즈니쉬/7,000원/태일출판사
금강경 이야기 上下/법륜/上9,500원, 下6,30원/정토출판사
금강경/이기영/5,000원/한국불교연구원
금강경/불전간행회/5,500원/민족사
금강경 강의/무비/5,500원/불광
금강경 강의/신소천/5,000원/홍법원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上下/우학/上5,000원, 下5,000원/좋은인연
금강경 간정기/선우도량(편)/25,000원/선우도량

법화경(천태종 · 조동종 · 관음종 · 법화종 · 보문종 · 여래종 · 일승종)
법화경/윤허/7,000원/동국역경원
법화경/이원섭/6,000원/삼중당
한글 세대를 위한 법화경 上下/강산대사/각원15,000원/세계사
법화경 강의(1~10)/이법신/1권10,000원/영산법화사
알기 쉬운 법화경 강설/능가/4,000원/대흥기획
한글 묘법연화경/문정영/1,000원/보련각
묘법연화경 역해/한정섭/23,000원/불교동신교육원
(국역)묘법연화경/안진호/25,000원/법륜사
묘법연화경/불전간행회/13,000원/민족사

화엄경(조동종 · 법륜종)
화엄경/법정/7,000원/동국역경원
화엄경/최호/6,500원/홍신문화사
화엄경/불전간행회/12,000원/민족사
지송한글화엄경/해주/5,000원/불광
화엄경 강의/무비/9,000원/불광

찾아오시려면


책방 여시아문의 통신 판매 서비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통신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즉시 보내 드립니다.
(무송료 책방 부담)
전화 (02) 737-0695, 732-1521 팩스 (02) 737-0696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21-0569-439 예금주 조동규
서울은행 15504-3385504 예금주 조동규
농 협 053-01-226498 예금주 조동규

불심도 느끼고… 역사도 배우고…

불교테마 유물전시관…가족나들이 '손짓'

가정의 달·청소년의 달 5월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테마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전국의 이색박물관으로 가족 나들이를 떠나보자.

목아불교박물관 롯데월드민속박물관 호림박물관 등 규모는 작지만 신기함이 가득한 이색박물관들이 부처님오신날 봉축 특별 기획전과 공연을 마련하는 등 불자 관람객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은 불교 유물을 재현해낸 목공예품 및 석공예품 등이 전시돼 있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다. 목조각부문 중요무형문화재 목아 박찬수선생이 지난 93년 6월 설립한 박물관에는 불상 조사상 자상 나한상 목탱화 등 예배용 목공예와 염주 목탁 법상 법고 윤장대 죽비 등 생활용 목공예품이 주류를 이뤄 전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불화 서예 목관화 부작 등과 국가지정보물 3점(예념미타도장참법, 묘법연화경,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등의 불서와 글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개관시간 9:00~18:00, 관람료 어른 1천1백원 어린이 5백50원.

롯데월드민속박물관(관장 민준기)은 생활사 중심의 전시물로 꾸며져 있어 각 시대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백제 정림사지, 신라 감은사지, 고려 무량수전 등을 축소 복원하고, 애니메이션과 모형, 매직비전 등 특수장치를 통해 재미와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또 5월14일 오후 2시30분 민속관 놀이마당에서 승무 살풀이 바라춤 북춤 등의 봉축공연을 기획, 불자가족들을 초대한다. 개관시간 9:30~23:00, 관람료 어른 4천원 어린이 2천원.

성보문화재가 다수 소장전시되어 있는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삼)도 기획전 '불교미술의 초대'를 마련하고, 80여점에 이르는 초조대장경과 전적류 등을 전시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불자들로 하여금 고려전기의 불교계 동향과 대외관계를 보여준다. 개관시간 10:00~16:00, 관람료 어른 6백원 어린이 무료.

이 밖에도 〈감지은니묘법연화경〉 〈상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목판권자본(국보 265)〉 등 불서를 다수 전시하고 있는 삼성출판박물관(관장 김종규)과 일제 강점기에 창간된 〈유심〉 〈조선불교〉 등 불교잡지 희귀본을 볼 수 있는 한국잡지박물관(관장 허광수), 곱게 수 놓여진 보물 563호 가사(승복), 다라니주머니 등이 전시된 한국자수박물관(관장 허동화) 등 전국 20여곳의 이색박물관에서 불교테마의 전시코너를 마련, 불자들의 발길을 끈다.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무료관람이 가능한 이들 박물관은 온 가족이 불교와 더불어 역사를 배우고 동시에 재미를 더하는 나들이 코스로 안성마춤이다. 박물관을 관람한 뒤에는 주변관광지나 전원음식점을 찾아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도필선 기자



◇불교테마 전시코너를 마련하고 있는 전국의 이색박물관은 사찰 학생법회 및 초·중·고등학교 봄소풍 코스로도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볼만한 특수 박물관

박물관명	소 재 지	가는 길	전 화
롯데월드민속	송파구 잠실동	2호선 잠실역	(02)411-4761
삼성출판	영등포구 당산동6가	2호선 당산역	(02)697-4597
태광양	동작구 신대방동	2호선 구로공단역	(02)832-3486
한국불교	종로구 원성동	창덕궁에서 5분	(02)766-6003
한국자수	강남구 논현동	3호선 압구정역	(02)515-5114
한국잡지	종로구 청진동	광화문 교보문고	(02)735-9464
호림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삼성역	(02)566-8329
산림	포천군 소흘면 작동리	광릉수목원 부근	(0357)31-3894
목아불교	여주군 강천면 이포리	이포→여주	(0337)85-9952
동도사성보	경남 양산군 하북면	통도사내	(0523)82-1001
대관령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강릉시내	(0391)41-4683
제주도민속자연사	제주시 일도 2동	버스 7-2, 8-2	(064)22-2465

목아박물관 佛具用 생활 목공예품 주류
롯데월드 정림사지등 옛절 축소 복원
호림박물관 불교미술·전적류 집중전시

새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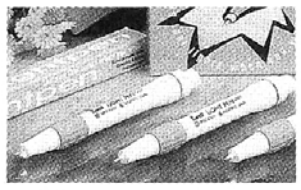
부처님 색칠하기

유아 상상력 개발 효과



새싹불자들의 동심과 천진불심을 색연필과 크레파스로 그려내는 그림공부 교육교재 〈부처님 색칠하기 - 팔상도〉가 나왔다. 화상타일 청자타일을 제조하는 벤처기업 (주)나통(사장 김석)의 불자사원들이 자비를 털어 만든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새싹불자들의 상상력과 뛰어난 잠재력을 키우고, 부처님 오신뜻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연꽃마을 5천원. (02)3273-0066



반디라이트펜

깜깜해도 글 쓸수있어

반디라이트펜은 기존의 볼펜과는 달리 어두운 곳에서도 글을 쓸 수 있다. 이 볼펜 아이디어의 핵심은 끝부분에 자그마한 미니전구를 넣어 불을 밝히는 것.

야간산사 참배, 영상교육장, 야간군사훈련, 산업현장 등 보조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면 편리하다. 96년 일본 소비자들이 뽑은 신제품상을 획득하기도한 이 볼펜의 가격은 2천5백원~4천원이다. 세아실업(02)735-7350

건강과 식품 〈6〉

합성당근색소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녹색채소, 토마토 등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암, 심장병 발생률이 적은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합성된 베타 카로틴이 활성 산소, 자유라디칼 분자의 작용을 막는 항 산화제(抗酸化劑)로서 비타민과 같이 선전되고 유행하게 되었다.

1982년부터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에서는 베타 카로틴이 과연 폐암과 심장병 예방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미국 국립 암연구소의 인체에 대한 투여 실험연구가 계속되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 의사 22,071명을 대상으로한 PHS 연구사업이었다. 한편 흡연 중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 1800명을 대상으로 한 ATBC와 CARET 연구가 미국 암연구소와 워싱톤대학 연구진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PHS 연구는 50㎎의 베타 카로틴을 격일로 12년간 계속 투여하였고 ATBC와 CARET 실험은 평균 4년간 계속된 실험이었다. 1996년에 같은 학술잡지에 동시에 발표된 이들 연구 보고는 비(非)흡연자 실험인 PHS에서는 폐암, 심장병 사망률에 관한한 무익무해(無益無害) 하였다는 것이었으나 흡연자의 ATBC의 CARET 실험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의 것이었다.

즉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對照群)에 비해서 각각 28%와 18%가 높다는 것이다. 예상을 뒤엎은 이 결과에 따라서 12년간 계속되던 PHS와, 6·8년간 수행되던 두 실험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망과 논쟁이 뒤를 따랐다. 50㎎의 투여량이 너무 과다한 량이라 부작용으로 해로웠던 것이 아니겠느냐? 녹색채소의 효험은 베타 카로틴 이외의 카로티노이드가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등 실험 설계의 부적합설이 무효과설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불로장생, 베스트셀러의 건강비결 책의 뒤를 쫓아 새로운 회춘(回春)의 보약(補藥)이 유행하는 작금에 이들 연구 소식은 큰 화제 거리이다. 비타민A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은 일찍이 1960년대에 스위스 제약회사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합성에 성공하였고 그후 치자, 고추 등 무해한 천연색소에서 암시를 받아 그 외의 몇가지 합성 카로티노이드가 안전한 식용, 화장품용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美 대학 실험결과 흡연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워

이태넝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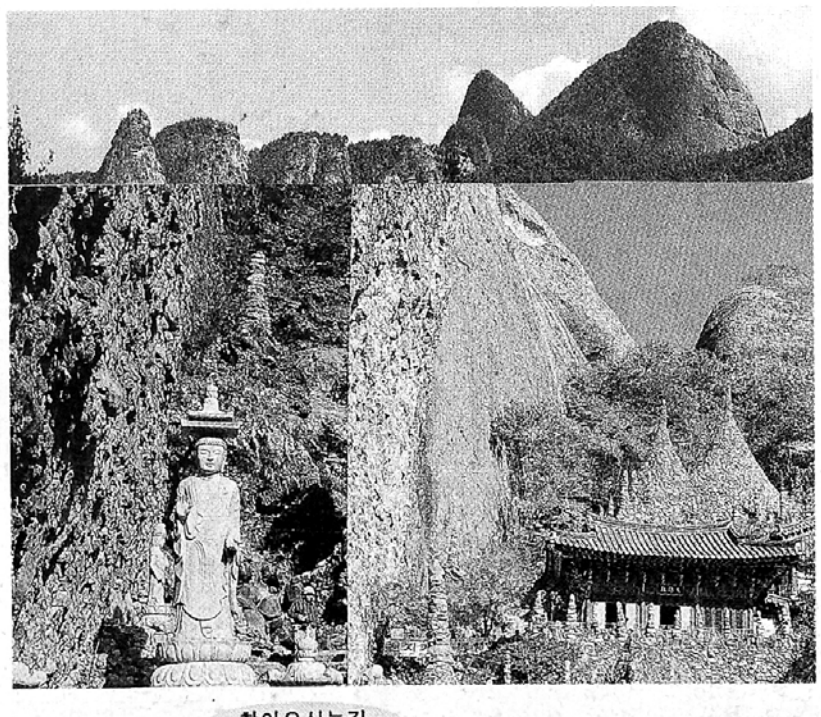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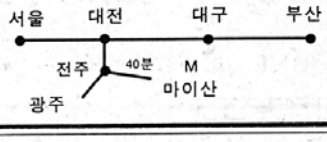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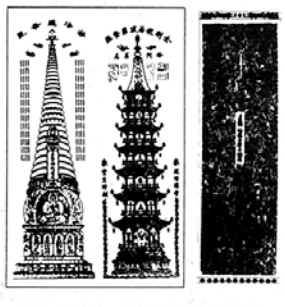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발원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리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박복금단 천 위에 100% 순수 앰집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 160㎝

스님들께는 스님용책자내용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리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리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포교차원에서 신도등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일깨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님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만들어 천도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타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집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종단소식

조계종

호국 전몰장병 천도법회

대구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17회 군·경전몰장병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인환(동국대 교수), 고산스님(쌍계사 조실)등 8명의 초청법사가 매주 수요일 법문하며 6월 26일에는 고창 선운사 도솔암으로 방생법회를 떠날 계획이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공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6일 구 해인초등학교에서 성보박물관기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9백47평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금년말 완공예정이다.

태고종

승려 연수교육일정 발표

총무원(원장 인곡)은 4월28일 97년도 승려연수교육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승려 자질 향상과 종단관 함양을 목적으로 열리는 올해 연수교육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며, 득도 5년 미만의 젊은 스님들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릴 연수교육 연차별 일정은 1차 6월23~25일, 2차 7월8일~10일, 3차 7월29일~31일까지 2박3일간이며, 4차는 8월28~29일까지 이틀간이다.

태고사 거제도 방생법회

태고사(총무 지화)는 4월20일 신도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도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법회에서 신도들은 국운융창과 남북통일, 가내평화를 부처님께 기원했다.

천태종

北주민 이웃돕기 바자회

서울 성룡사 신도회(회장 최금령)는 4일 신촌 마카로니에서 불우이웃 및 북한주민돕기 '바자회 및 하루찻집'을 열었다.

참기름, 고추, 깨, 각종 나물 등을 판매한 이날 바자회는 사찰 신도회가 북한주민돕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신도회는 또 바자회에 이어 하루찻집을 열고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진각종

종조탄생절 96주 법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10일 통리원 총인원 종조전에서 '제96주년 종조탄생절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종단 간부 및 스승, 종립학교장, 신행단체장 등 모두 4백여명이 참석할 이날 법회는 종조영정 개막식, 헌화, 종조법어 봉독, 통리원장 봉축사 등이 이어진다.

부산청년회 30돌 기념

부산지부청년회(회장 김미선)는 4월 26일 명륜심인당에서 부산지구 스승 및 전국청년회 임원 및 청년회원, 부산지구 신교도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이어 놀이마당으로 이어진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각 심인당 학생회별 서원가 부르기, 연극, 창작무용,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총화종

체탈등 징계자 대사면

총무원장 남정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1일 그동안 체탈도첩된 종단스님 10여명에 대해 전원 사면복권키로 했다.

남정스님은 "체탈도첩된 스님들을 방치하는 것은 부처님 자비사상에 위배됨은 물론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면복권의 배경을 설명한 뒤 "어두운 사바세계에서 갈등하던 스님들은 다시 부처님 가피의 품에 안겨 불국정토 건설에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문종

총무원 주관 사경대회

보문사를 비롯 전국 종단소속 사찰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봉축 사경대회'를 개최한다.

총무원(원장 혜일)이 주관하는 이번 사경대회는 사찰별로 선정된 우수작들을 한데 모아 이중 당선작을 뽑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선작은 부처님 오신날 당일 보문사 경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보문사(주지 법준)는 14일 1시부터 연극, 풍물놀이, 어린이 발표회 등의 공연과 보문동 일대에서 제등행렬을 펼치는 봉축행사를 실시한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하늘아래 첫절

지리산 법계사 보궁선다

2층 70여평 이달말 착공
화엄수행 도량으로 가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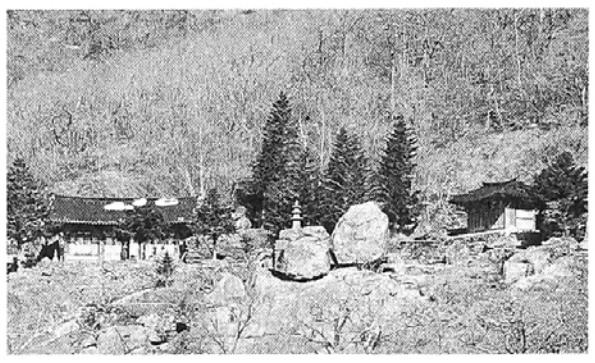
우리나라 하늘아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인 지리산 3대명찰의 하나인 법계사(주지 진욱)가 적멸보궁을 건립한다.

천황봉아래 자리한 법계사(허발 1450m)는 8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운번창과 불교중흥을 위한 2층 70여평 규모의 적멸보궁 건립불사를 3년계획으로 5월말부터 시작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운송하는 난공사로 진행될 법계사 적멸보궁은 신라시대 석탑으로 부처님진신사리가 봉안된 3층석탑(보물 제473호)을 마주보며 1층 48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인 요사채와 2층은 21평규모의 전통목조건물로 건립된다.

이를위해 법계사는 최근 1천3백여평의 국유지를 종교용지로 지목변경하고 정부보조 1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

신라진흥왕 5년 연기조사가 지리산 서쪽에 화엄사 4사자 석탑, 동쪽은 대원사 9층 석탑, 중앙에는 법계사를 창건하고 3층석탑을 세워 각각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었다.

그간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의 기운이 쇠퇴한다'는 전설에 의하여 수차례 일본인들에 의해 소실됐다 중창을 거듭했으며, 해방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시 소실된 것을 1979년 조재화 조재련 조재영불자등이 인법당과 산신각이 복원되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왔다.



◇지리산 천왕봉아래 위치한 국내 최고지대사찰 법계사가 적멸보궁을 건립한다. 사진은 지리산 법계사 전경.

법계사 주지 진욱스님은 "고승대덕스님들의 수행처로 명맥을 이어왔던 법계사를 복원하여 국태민안을 위한 기도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입주건물 부도사태
청주BBS 피해 우려

오랜 산고 끝에 4월 25일 개국한 불교청주방송이 또 한번의 회오리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불교청주방송이 입주해 있는 충청매일신문사의 모체격인 진흥건설과 진흥주택(대표 정진택)이 자금난으로 4억5천여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4월 30일 1차 부도처리 된것.

불교청주방송은 지난해 가을 정진택 사장으로부터 충청매일신문사옥 8층을 무상기증 받았었다. 그러나 정사장이 이를 번복해 현재 3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 5억원까지 지급, 설정등기까지 마친 상태.

진흥측의 부도가 계속 확산될 경우 불교청주방송국에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불교청주방송은 3일 운영위원회를 갖는다. 〈2일 현재〉



부산역 봉축 연꽃·탑 점등 부처님오심을 봉축하고 평화통일과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부산역앞의 봉축 탑·연꽃이 4월 29일 환하게 불을 밝혔다. 봉축탑은 높이 10.5m 8각 9층으로 삼광사서 제작했으며, 연꽃은 영남대 손규호 강사와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부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는 부산지역사찰 스님들과 운정수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갖고 이어 탑돌이를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중원 미륵리사지 명칭 誤記

도로표지판·안내 책자등에 '미륵사지'로

중원 미륵리사지(사적317호·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의 명칭이 도로안내표지판이나 홍보책자에 '미륵사지'로 잘못 표기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월악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점차 일반인과 불교신도들의 발길이 잦아진 미륵리사지는 수안보에서 사지까지의 16㎞ 구간 597번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을 비롯 각종 안내책자에 미륵사지로 잘못 적혀 있어 익산 미륵사지(사적150호)로, 혹은 절의 옛 이름이 미륵사지였던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계에서는 미륵불을 봉안했던 사찰(석굴사원)이었다는 점에서 미륵대원(彌勒大院)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문헌기록이나 유물에 일체 절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일명사지(逸名寺址)'는 관례에 따라 현지 지명을 따서 '○○리(里)사지'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운파스님 종정 유임

조동종 총무원장 송정스님

조동종은 1일 총무원에서 임시종회를 열고 새 총무원장에 송정스님(김해 성룡사 주지)을 선출했다. 송정스님은 지금까지 조동종 사무총장직을 맡아왔다.

이외에도 이날 종회에서는 운파스님이 종정에 재추대되는 한편 부종정에는 영봉스님이, 지금까지 총무원장을 맡아왔던 지명스님은 승정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번 인사개편은 종정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백양사 비상대책위 구성

장성군에 공개사과 요구

장성 백양사는 4월 27일 경내 회의실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위원장 지선스님)'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에는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둔사등 전남지역 4개본사와 40여개 말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세부조건의 해결없는 화해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장성군수의 공개사과가 있을때까지 전대중이 한길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음 형체없는 주장자

주장자란 손으로 들고다녀서 주장자가 아니라 마음에 중심을 세워서 주장자이다. 주장자는 누가 쳐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이므로 부터도 형체도 고정된 이 없이 도는 것이다.

철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TV방송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다채

btn '황룡사대종을 찾아라' KBS '팔만대장경'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TV 방송사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btn △11일='황룡사 대종을 찾아라' '특선 뮤지컬 이차돈의 하늘' '능호스님의 생명공양' △12일='특선 방화 석가모니 1·2부' '동남아시아의 종교축제'(13일까지) △13일='진흙 속의 연꽃' △14일='예불'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붓다의 고향을 가다' '봉축 음악회' '깨달음의 땅 수자타 아카데미'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 '임진란의 의승수군' '생방송 연등·연등' '특선 방화 그물에 걸치지 않는 바람처럼'

KBS △14일='팔만대장경' '산사의 소리' '특선 영화 리틀부다'

MBC △14일='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나라 미얀마'

SBS △12일='천상천하 유아독존' '고려대장경'

EBS △14일='달마이야기'



◇김재홍교수 ◇김상영교수 ◇김홍국씨 ◇조한순씨

불교방송 진행자 대폭교체

'아침을 열며' 김재홍교수 '백팔가요' 김홍국씨

불교방송이 1일 봄 개편과 더불어 진행자를 대폭 교체했다.

간판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BBS 백팔가요'(PD 유병직)가 '김홍국의 백팔가요'로 새롭게 단장하고 김홍국씨를 진행자로 내세웠다. '무명을 밝히고'(PD 이영준)는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가 새로 진행을 맡았다.

신설프로그램 가운데 생생한 생활·교통정보 등으로 청취자들의 출근길을 밝혀주는 '아침을 열며'(PD 박상필)는 경희대 김재홍 교수가,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과 만나는 '인연의 길'(PD 이선희)은 아동문학가 조한순씨가 진행한다. 〈연〉

"부처님 말씀이 절실한 때입니다"

만약 경전의 가름침과 세속의 문건을 보시하면
해박한 지혜의 과보를 받게 되며
밝은 등을 보시하면 눈이 밝아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

- 유취윤회경 -

사회의 어둠을 밝혀줄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군부대·경찰·교도소·양로원·中高불교학생회·도서관·가까운 이웃···**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 보낼곳

▷ 국내 : 군부대(법당, 포교당, 군승, 불자장병)
: 경찰(법당, 포교당, 경승, 불자경찰, 개인)
: 교도소(재소자중 불자, 교도관)
: 복지회관(전국 시·도·군·읍면 소재 회관)
: 대학(불교학생회 및 도서관)
: 도서관(전국 시·군·구립 및 사립도서관 열람용)
: 개인불자(시주자가 지정하는 분:지정법보시)

▷ 국외 : 해외의 한국 사찰·포교당
: 각국 불교 관련 단체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 보시방법

▶ 법보시
본사 소정 구좌에 1,000원 이상 송금하시면 모아서 신문사가 군부대등 필요한 곳에 보내드립니다.

▶ 해외 법보시
지정법보시와 동일
1부 80,000원(우편료 포함)

▶ 지정법보시
특정인 또는 특정의 기관에 신문을 보시하는 경우로서
보낼 곳의 주소·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1부당 40,000원(1년분)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본사 지로 이용 입금
※ 계좌 : 국민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 정기구독자 추천
친지·이웃등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정성껏 신문을 보내 드립니다.
1년 정기구독자 4만원, 6개월 22,000원, 1개월 4,000원

● 법보시양식


구 독 신 청 서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02)732-1522, 737-8881 F. (02)737-0697

"108배로 EQ교육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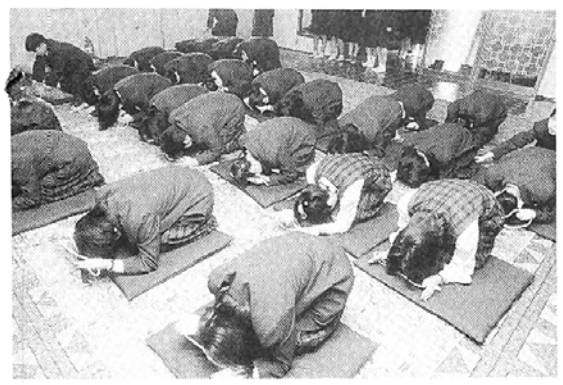
광동여고생 80명 실시 3달 감성변화

동사섭 수련대회등 교계 확산
"불교수행 EQ개발 모범"

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가 미래사회의 성공비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Q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종립 광동여고(교장 김양수)가 108배를 통한 EQ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광동여고는 108배를 통한 정서안정, 감성리듬을 갖게하는 특수 교육그램을 마련하고, 3월초부터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EQ 변동추이를 관찰하고 있다. 108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80여명. 광동여고는 이들 학생의 EQ를 측정해 10월에 있을 교학연구발표회에서 불교수행과 EQ증진과의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광동여고 이학송교법사는 "EQ는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의 정(定)과 중도(中道)사상 등의 불교교리와 상당부분 통한다"며 "불교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EQ개발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동여고는 108배를 통한 감성리듬을 갖게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EQ론자들은 EQ의 개념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타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인내심을 지속시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정서를 순화시켜 긍정적인 자아를 정립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EQ론자들의 해석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 전반에 내포돼 있거나 참선 108배 관법 등의 불교수행법을 통해 불자들 사이에서는 저변화되어 있다.

용타스님의 '동사섭(同事攝) 수련대회', 선재마을의 월간 〈선재〉를 통한 심성계발활동 프로그램과 전래놀이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이같은 사례들은 내적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집중력을 키우는 불교수행과 EQ 증진과의 관계를 밝혀줄 것으로 보인다. 또 빗나간 교육열과 성공학, 처세술의 차원에서 불고 있는 EQ열풍에 대한 자성적 운동으로 교육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심리치료전문가 방기연씨(강남 상담심리치료연구소 실장)는 "'요익중생'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교리 자체가 이성만을 강조하지 않는 EQ이며, 전인교육 인성교육으로 말해지는 것이 곧 불교의 개념을 EQ로 풀이한 표현"이라며 "불교교리와 불교수행을 통한 감성 재발견이 사회적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동대문서 조계사까지" 연등축제 일정 확정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는 4월28일 봉축실무자회의를 갖고 11일 개최되는 연등축제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연등축제는 △거리행사 △연등법회 △제등행진 △회향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거리행사로서는 종각, 동대문 등에서 등 시연회, 문화공연 각종 전시회가 진행된다. 또 제등행진은 각종 장엄물, 전통연등, 번, 자전거 묘기단 공연등이 거리를 장식하게 된다. 종각사거리에서 펼쳐지는 회향식은 단막극(극단 완자무뉘), 축하노래공연 등이 마련된다.



조계종 첫 함대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부장스님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30일 인천 해군 2함대를 방문했다. 총무원이 함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문금(5백만원)과 위문품을 전달 격려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토함산도 환경훼손에 멍든다

자연휴양림 조성 석굴암주변 오염 '불보듯'

경주 토함산 자락 37만평의 부지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돼 5월말 개장을 앞둔 가운데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15억6백만원을 들여 지난 91년부터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 시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왔다.

청소년 야영 및 가족단위 휴식지로 조성된 휴양림에는 37평형 1동과 5평형 2동 등 모두 10여개동의 통나무산막과 계곡을 막아 만든 물놀이장 2곳이 들어서 있다. 연간 예상 입장료 수입은 약 1억9천만원선.

일부 시의원과 경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진입로가 포장되고 근린지역에 숙박 및 놀이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연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수 시의원은 "휴양림이라 하지만 위락시설단지나 마찬가지"라며 "주차장과 오폐수정화시설이 미비해 환경오염은 불을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불자련, 연등나눠주며 북동포돕기운동 동참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4월26일 서울역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가 펼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2차 옥수수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은 불교자원봉사 어머니 합창단이 찬불가를 합창하는 가운데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준비한 연등과 꽃송이를 나눠주며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사진〉

성덕스님은 "성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연등을 나눠주니 참여도가 더욱 높다"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연등을 받고 좋아해 모금활동과 더불어 포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1寺1봉사센터 개설하자"

조계종 복지재단 '사찰역할' 포럼서 주장

전국복지망 구축도 제기

'므든사찰을 자원봉사센터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제기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4월28일 개최한 '사찰의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주제로한 포럼에서 나왔다. 사찰의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은 각 사찰이 보유·관리중인 각종 문화재와 수림 및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인근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발제에 나선 권경임(중앙승가대 강사)씨는 '사찰의 지역복지활동'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회의 현대화에따라 사찰이 주민생활환상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으로서 지역사회복지활동센터의 기능을 담당해야한다"며 "사찰보유 자원과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적 지식이나 방법및 기술의 도입을 통해 1寺 1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자"고 주장했다.

또 사찰이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및 전국 네트웍 구축 △지역자원봉사 인력확보 △홍보·교육실시 △자원봉사자 관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제기됐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송묵스님(자비와 행함이 하나되어회장)은 "현재 승가중심의 사찰복지는 한계가 있다"며 "자원봉사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설웅스님(봉정암주지)은 "사찰을 불자들의 기도 수행 친교뿐아니라 봉사의 장이 돼야 한다"며 "여론을 환기하여 공유시켜주는 작업과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홍철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는 "각 사찰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하나의 전문복지영역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강순환부장(덕유복지관)도 "사찰의 경우 자원봉사 인력이 충분한 만큼 직업이나 법회별로 나눠 봉사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화사 철불 국보지정 신청

황수영박사 소견 밝혀

철불 등에 명문이 새겨져 관심을 끌었던 강원도 동해 삼화사 철불(본지 125호 보도)이 국보로 신청된다. 또 삼화사 대웅전 앞 3층석탑을 해체복원하던 중 석탑 내부에서 사리함(목조·높이 15㎝·조선시대)에 담겨진 정교하게 세공된 작은 석탑 25개(높이 3~5㎝·통일신라)가 추가로 발견됐다.

황수영박사(前 동국대총장)는 소견서를 통해 "정제된 상호와 통견의 법의양식 등이 전형적인 9세기 신라불상"이라며 "동해안에서 발견된 유일한 신라불로 명문의 글자수도 전남 장흥 보림사 철불(국보117호)이나 철원 도피안사철불(국보63호)의 30~40자를 훨씬 넘는 146자나 돼 국보급으로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박사는 "접착부분과 동체내부에 진흙모래 등을 사용하고 있어 당시 불상조성법 표본이 된다"고 말했다.

삼화사는 동해시와 함께 6월17일 오후2시 동해예술회관에서 철불보존과 명문해석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합청사 인근 종교시설 '어린이집' 설립 국고지원

정부는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인근 종교시설에 '어린이 집'을 설치하여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다. 인근 사찰의 어린이 집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지정될 경우 건축비등 설치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운영비와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월부터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찰에 대한 정부의 사설자금 확대와 각종 운영체계를 완화하는 보육사업지침을 개정했다.

목탁소리

의제개혁 '실종'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첫 사공이야 물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떠났지만 다음 사공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나, 사공이 여럿으로 늘어나면서 자칫하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또 왜 그 곳으로 가야하는지 조차 아리송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계종은 지난해 5월 의제개혁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의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실무위원회를 갖는등 의제개혁은 순항을 예견이나 한듯 쾌속질주했다. 특히 무질서한 승가의 의복을 정비,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종도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치면서 법계에 따라 의제를 구분하는 의제개혁안까지 마련되었고 입법예고한다는 일정까지 논의됐다.

하지만 이같은 의제개혁의 의지는 생각처럼 오래가지 못했다. 의제개혁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제개혁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실무자가 바뀌었고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시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를 정점으로 한번의 공청회도 갖지 못한 채 의제개혁은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용두사미가 된 것이다. 어쩌면 자연사됐다는 말이 더 어울릴성 싶다.

현재 자연사된 의제개혁은 어느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캐비넷 한구석에 맡겨진 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어쩌면 큰 개혁선을 이끌고 가기 위해 동면시키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 항해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추진력있는 선장이다. 하루빨리 선장을 선임해 의제개혁호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불뉴스

中信會, 민족위한 기원법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9일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3부 요인을 비롯 신행단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불방정상화 범불교대책위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위원장 지원스님·이하 범대위)가 1일 발족했다. 총 18개 단체가 참가한 범대위는 동출스님과 연기영교수를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종하 영담스님의 이사직 사퇴와 검찰에 대한 수사촉구 등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향후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관련자 고발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북한산 지키기' 1백인선언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키기위한 훼손 반대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고은 김성동 손기정씨등 각계 저명인사 1백명은 4월 20일 '북한산국립공원 파괴를 막기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범시민운동차원으로 확대해 사회쟁점화 할 것을 촉구했다.

창가학회 회관건립 '주민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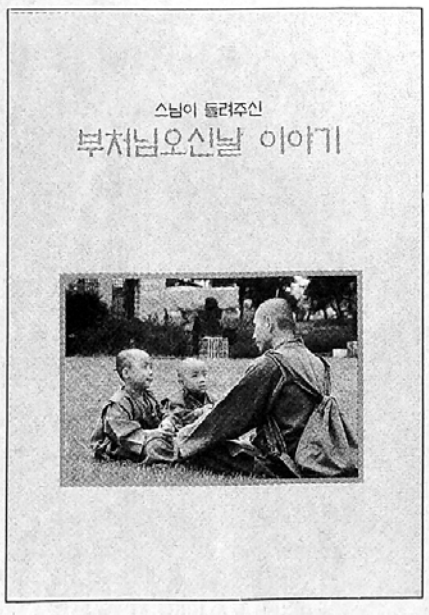
세계창가학회(SGI) 한국본부 포교원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 답십리3동 주민 50여명은 4월 29일 포교원 건축현장에서 건립반대 항의농성을 벌였다.

한편 창가학회는 95년에도 서울 효창동에 포교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했었다.

8쌍 무료 합동결혼식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설산스님)는 1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유태호, 염점자씨외 8쌍의 무료합동 결혼식을 열었다. 이날 주례사에서 설산스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정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禮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흰 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새벽 별…큰 깨침
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이야기 둘
부처님오신날 등을 켠다
만개의 등, 하나의 등
온 겨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얀연꽃 피어나라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 온라인 번호 ◈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 64페이지 ■정가/1,500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마특곡 석조 여래부처님은 어느 곳에서 보아도 자애롭다.



◇"우리 뿌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기회였어요" 석굴암과 남산 부처님에게서 한국인의 얼굴 원형을 발견했다고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이다.

"바위마다 부처님 미소"

석굴암 본존불 예술성 탁월
곳곳 불상…남산 '노천박물관'

정병국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연구원〉

전문가 안내

석굴암 석굴암은 신라인의 믿음과 슬기로 이루어진 찬란한 문화의 금자탑이다. 신라인의 신앙적 소산이며, 치정자와 백성이 혼연일치된 민족정신의 응결체로 볼 수 있다. 사상적으로 볼 때 토함산은 신라오악중 동악으로서 신라인들에게 영악(靈岳)으로 존숭받았던 산이다. 석굴암이 창건되던 경덕왕(751년)대는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신라역사상 최고의 융성기였다.

석굴암 석실의 구조와 조상(彫像)의 수는 전실은 방형이며 8부중과 2구의 금강역사가 있고 비도(비道)에는 4구의 사천왕이 안치되고 원형의 후실안의 조상은 모두 24구이다.

본존불상은 그 조각의 종교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다. 반개의 눈, 아름다움 그자체를 나타내는 눈썹, 미간에 서려있는 슬기로움, 금방이라도 설법할 듯한 자애로운 입과 코, 길게 늘어진 귀, 굽타식의 나발, 백호 등 하나하나의 부분이 생명력을 충분히 간직한 깨달음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얼굴은 인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위엄을 갖췄다.

경주 남산 남산은 신라 사령지(四靈地)가 운데 한곳이다. 남산의 동남산 북쪽에 옥룡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그 뒤 거대한 암석에 탑곡마애조상군(보물 제201호)가 있다. 암석은 사방 사면으로 되어있고 가장 높은 북면은 높이 9m 사방 30m 정도로 둘러져 있다. 북면 바위는 여래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목탑이 있고 그위로 비천(飛天)의 모습을 조각하였다. 목탑앞에는 사자형상의 짐승 두마리가 지키고 있다. 전체 모습이 상징하는 뜻은 석가모니의 설법광경으로 추정된다. 서면 바위에는 여래좌상과 비천상이 안치되고 남면바위에는 삼존불상이, 원권에는 여래사와 그 앞에 여래입상이, 정면으로는 석등을 세웠던 자리와 삼층석탑이 있다.

탑곡에서 동쪽으로 500미터 지점이 미륵곡이다. 그곳에 보리사와 미륵곡석조여래좌상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몸통부분이 얼굴에 비해 작은 편인데 이같은 조성양식은 통일신라 이후에 유행하던 수법이다.

신라오악중 동악인 토함산의 석굴암 부처님과 남악인 남산의 부처님들을 살펴볼때 다양하게 전개되는 종교관의 신앙체계와 결부되어 신라인의 솜씨, 희로애락, 슬기로움과 강한 호국사상을 느끼게 된다. 신라인의 정서는 고신라에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보이다가 통일기에 불교가 정착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불상이 고착화되어 그 형상은 엄숙 단정하고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자아낸다. 불교가 가장 꽃핀 8세기 부처님들은 이상세계가 확실히 실현된 가장 승화된 신라인의 얼굴이었다. 이러한 형상이 지금의 우리 정서와 크나큰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이는 곧 신라인의 얼굴이 우리 민족의 얼굴이요, 우리 민족의 정서요, 한국인의 얼굴임을 찾아볼 수 있다.



◇석굴암 삼층석탑에서 정병국연구원의 설명을 듣고있는 참가자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4월 석굴암·남산

"한국인의 얼굴 - 석굴암과 남산부처님"

초록이라고 하나로 부르기에는 풍부한 색깔이 너무나 고운 신록. 싱그러운 신록의 향기가 점점 높아가는 4월말, 170명의 답사객들은 천년 고도 경주로 떠났다.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고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세번째 불교문화 테마여행의 목적지는 '석굴암과 남산'. 수학여행때 누구나 한번쯤 가 보았을 경주는 사실 한번으로는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보고 또 봐도 보고싶은 우리 문화유산의 보고다. 정병국연구원(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의 자상한 안내와 강의는 석굴암과 남산에 대한 이해를 한층 새롭게 해주었다.



◇완벽한 미의 석굴암 본존부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잊어서 안될 작품으로 경주의 불상을 갖고 있다. 영국인은 인도를 버릴지언정 셰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이 석굴암의 불상이다."

석굴암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에서 우리 미술사의 태두 고유섭 선생이 〈신라의 조각〉에서 이렇게 극찬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지난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전세계인의 성보가 된 석굴암. 석굴암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하여 새벽 4시 하현을 향한 반달의 달빛이 눈부신 토함산 기슭을 올랐다. 스님의 새벽예불소리가 청량하게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 세상 가장 완벽한 불상

우리나라 불상을 대표하는 석굴암 부처님은 언제 보아도 단아하고도 기품있는 자태로 맞아준다. 아! 부처님! 이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불상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조각미와 신비로운 미소가 석굴을 꽉 채우며 눈앞으로 다가든다. 저절로 경배가 올려진다. 8부신중, 사천왕상, 금강역사, 십일면관음보살, 십대제자 등 벽면과 감실의 조상(彫像)들 모두가 역동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정호교수(연세대)는 '석굴암'을 주제로 한 글에서 "…본존불이 독화하고 있는 '솔로'의 세계가 아니라 수많은 조상(彫像)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몸짓으로 교향하는 돌의 오케스트라요, 평면 아닌 입체의 만다라 그림이요, 변기 힘든 신비의 세계다. 동지때면 햇빛이 석굴암 본존불의 백호에 정면으로 비춘다고 한다.

"한국사람들은 적어도 일생동안 석굴암에 두번은 온다고 합니다. 수학여행때 오고 또 한번은 나중에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참배를 온다는 얘기지요. 석굴암부처님의 미소를 자신의 모습을 늘 비춰보는 거울로 삼고 정진하십시오." 석굴암 주지 법달스님의 자상한 법문이다.

한국사람 두번은 다녀가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지금까지 발견된 절터가 129곳, 불상이 99체, 크고 작은 탑들이 73기나 되는, 말 그대로 불국토이다. 남산에 있는 부처님들도 코가 깨지고 손이 잘리고 심지어는 얼굴전체가 없어지는 등 수난을 당해왔다. 그나마 다행으로 미륵곡에 있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136호)'은 원래의 자비로운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고목의 뿌리처럼 단단하게 놓인 8각 복련위에 8각 기둥이 솟아있고 그 위에 맑고 부드러운 앙련이 피었다. 하얀 화강석으로 조성된 이 여래상은 크고 둥근 연꽃위에 결가부좌하고 촉지항마인의 수인을 한 채 긴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바세계를 굽어 살핀다. 석굴암 본존부처님보다 한결 친근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탑곡에 있는 높이 9m 사방 30m 정도의 커다란 암석군에 새긴 마애군상 사면석불은 남산중에서도 명물이다. 65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큰 바위에 우주를 담아놓았다.

안내자 정병국연구원은 "당시 신라인들의 사상과 정서, 염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 불상들"이라며 "직접 현지에서 부처님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저변에 흐르는 일맥상통하는 공감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뿌리 재확인 기회"

불교문화 테마여행 1회때부터 계속 참여했다는 김창순씨(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 "우리 불교 문화의 한없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여행에서 마치 신라인이 된듯 했다"고 기뻐했다. 김인순씨(서울 도봉구 장위동)는 "우리의 뿌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기회였다. 돌부처님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조상 신라인들의 친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년 고도의 향기로운 숨결에 몸을 흠뻑 적시고 귀경하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석굴암 본존부처님을 닮은 넉넉한 미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글=이경숙 사진=고영배 기자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석굴암 참배 자애로운 삶 배우고 남산 오르면 누구나 신라인되고…"

화무쌍한 석각의 '프레스코벽화'를 두른 석불사원"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삼국유사〉권 5 '대성효이세부모신문왕대'를 보면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석굴암)를 세웠다고 한다. 김대성이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걸작을 이룩한 것은 신라인의 민족혼이다. 김대성의 발원은 신라국민의 염원이었고 석굴조성은 혼연일체된 민족정신과 온국민의 정성이 응결체로 나타난 소산이다. 석굴암의 과학적 구조는 현대인들도 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형태 / 규격(폭×높이)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

